



여제일남부 편금 결승에 오른 대구의 강지현(왼쪽)과 인천의 서미라가 동시에 원발공격을 하고 있다. 3:3 동점에 서미라가 우세승을 거두었다.

올해 국가대표들 초반 탈락 이번 속출 고등부 강세에 힘입어 서울 종합우승으로 3연패

개최지 인천 지난해 7위에서 종합 2위에 올라

「황해로 세계로 미래로」라는 구호 아래 지난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인천에서 펼쳐진 제 80회 전국체육대회가 막을 내렸다.

16개 시도대표와 해외동포들이 참가해 39개 종목에서 열전을 펼친 이번 대회에서 경기도는 대회 4연패를 이루었고 서울이 2위, 개최지 인천은 3위를 차지했다.

한편 인천남부학생체육관에서 열린 태권도경기에서는 서울이 여고부 5체급 석권과 남고부 7체급 입상 등 고등부 강세에 힘입어 종합우승

을 차지하며 대회 3연패를 차지했다.

개최지인 인천은 지난해 7위에서 2위로 올랐고 뒤를 이어 전남이 3위, 광주가 4위를 차지했다.

2000년 국가대표선발전과 시드니 올림픽 대표선발전을 앞두고 펼쳐진 이번 체전은 전, 현 국가대표선수들을 포함한 전국의 시도 대표선수들이 자신의 기량을 점검하는 가운데 열전을 펼쳤는데 올해 국가대표들이 대거 초반에 탈락하는 이변을 보여주었다.

서울 여고부 금 5, 은 1, 동 1개 따내 최강 자랑 남고부 7체급 입상자 배출

서울이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대회 3연패를 이룬데에는 여고부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서울은 여고부에서 8체급 중 5체급에서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했을 뿐만 아니라 은메달 1개와 동메달 1개를 추가하며 모두 7체급에서 입상자를 배출하는 기염을 토했다.

지난해 전국체전 라이트급 우승자인 윤성희(리라공고)는 이번에 페더급에 출전, 예선 초반부터 뛰어난 경기력을 발휘하는 가운데 무난히 결승에 올라 경기의 김민아(고양중고)를 얼굴 발차기와 뒷차기를 연속 공격하며 무려 4-0이라는 큰 득점차로 이기고 금메달을 목에 걸어 대회 2연패를 차지했다.

밴텀급 전남수(경성여실고)는 빠른 발차기와 체력을 겸비한 가운데 결승에 올라 충남의 장주현(충남체고)을 맞아 막상막하의 경기를 펼친 끝에 우세승으로 승리를 거두며 금메달을 차지했다.

올해 유일한 여고생 국가대표로 활약한 이정민(송곡여고)은 유연성과 민첩한 기회 포착으로 결승에서 경기의 박조은(심원고)을 맞아 1회와 3회 뒷차기로 득점을 올리며 2-0으로 승리를 거두었다.

미들급의 한현아(경성여실고)와 헤비급의 윤현숙(송곡여고)도 뛰어난 체력과 다양한 발차기를 구사하는 가운데 결승에 올라 경남의 이선영(경남체고)과 인천의 한다운(계산여고)을 각각 2-1과 3-2로 이기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편 라이트급 결승에 오른 이인종(서울체고)은 경남의 황학순(경남체고)과 2회전까지 2-2 동점을 이루는 막상막하의 경기를 펼쳤으나 3회 들어 3점을 허용하는 가운데 2점 득점에 그쳐 아깝게 은메달에 머물렀다.

플라이급 경기에서는 준결에서 충남의 민봉녀(충남체고)를 우세로 이기고 올라온 전북의 국현진(고창여고)이 역시 준결에서 서울의 김경희(송곡여고)를 우세로 이기고 올라온 전남의 강지나(영광고)가 맞붙었는데 2-1로 국현진이 승리를 거두었다.

한편 울산 대표로 출전한 고수진(울산서여상)은 핀급 준결승전에서 차세대 국가대표 유망주로 떠오르고 있는 경기의 이혜영(수원정산고)을 우세승으로 이기고 결승에 올라 광주의 김주현(광주체고)을 1-1 동점 끝에 우세승을 거두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제 80회 전국체육대회 태권도경기 종합순위

등위	시도명	종합점수	금	은	동	지난해 순위
1	서울	2886	11	4	9	1
2	인천	2563	2	9	13	7
3	경기	1807	3	6	6	5
4	전북	1493	4	2	6	6
5	대구	1492	3	3	7	9
6	전남	1325	2	2	7	3
7	경남	1243	4	1	3	14
8	경북	1056	3	0	5	15
9	광주	1039	2	2	3	4
10	강원	912	1	2	6	11
11	충남	869	0	4	2	8
12	부산	861	1	2	3	10
13	대전	743	0	1	5	12
14	충북	628	1	0	4	13
15	제주	612	1	1	1	2
16	울산	462	2	1	0	16

대구 경상공고가 남고부 2체급 석권

남고부 경기에서는 서울과 대구, 전북이 각각 2개씩 금메달을 따냈다.

특히 대구에서는 경상공공의 정남영과 이현수가 각각 플라이급과 웰터급 정상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그러나 헤비급 우승이 유력시됐던 김민석은 결승에서 인천체고의 박용수에게 3-2로 판정패, 은메달에 머물렀다.

서울의 김영철(한성고)은 핀급 결승에서 강원 의고석화(강원체고)를 1-1 동점 끝에 우세승으로 이기고 체급 정상에 올랐고 밴텀급의 박태열(서울체고)은 결승에서 인천의 이해민(선인고)을 맞아 2-1로 승리를 거두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그밖에 서울에서는 플라이급 최광철(서울체고), 페더급 문상현(성동고), 미들급 임석준(한성고)이

은메달을 따냈고 웰터급 김교식(서울체고)과 헤비급 윤원중(서울체고)이 동메달을 각각 차지했다.

이로써 서울은 라이트급을 제외한 7체급에서 입상자를 배출하며 전통 강호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전북은 김성두(군산고)와 임태수(전북체고)가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는 가운데 페더급과 라이트급 정상에 올랐고, 핀급의 박성철(전북체고)이 동메달을 따냈다.

한편 홈팀인 인천은 박용수(인천체고)가 유력한 우승후보 김민석(경상공공)을 이기고 헤비급 금메달을 따내 기쁨을 감추지 못했고 밴텀급 이해민(선인고), 웰터급 이재영(선인고)이 은메달, 페더급 문화선(강화고), 라이트급 금복수(선인고), 미들급 정현수(부광고)가 동메달을 따내는 등 8체급 중 6체급 입상자를 배출하는 기염을 토했다.

★ 화제의 인물

고등부 헤비급 우승 박 용 수 (인천체고)

속타는 개척시 인천에 대회 3일째 첫 금메달 선사

강력한 우승후보 김민석(경상공공)에 3-2승리

“인천에서 치르는 대회인데 제가 우리 고향의 이름을 명예를 빛내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께서 그동안 뒷바라지 해주신데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금메달을 목에 걸어드리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지난 10월 13일 전국체전 3일째 경기에서 남자 고등부 헤비급 우승을 차지한 박용수(인천체고 3)는 대회 주최도인 인천에 첫 금메달을 안겼다.

이번 대회에서 박순수는 키가 큰 장점을 살리는 공격으로 앞발 빠른발로 얼굴공격을 성공시키는 주특기를 유감없이 발휘하는 가운데 예선부터 결승까지 높은 득점차로 승리를 거두었다.

특히 결승전에서는 김제경의 대를 이을 헤비급 유망주로 주목받고 있는 대구의 김민석을 맞아 3-2로 이기고 정상에 올랐다. 박용수는 김민석의 빠른발을 물러차기로 받으며 장신을 이용한 앞발 공격을 쉴새없이 퍼부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몸이 약해서 체력을 키우기 위해

도장에 가서 태권도를 배우시 시작했다는 박용수는 현재 194cm에 90kg으로 삼성애스원의 김경훈(196cm)의 뒤를 이어 두번째로 키가 크다.

올해 5·18 광주민주화기념 전국남녀고교대회에서 3등, 문화관광부장관기대회에서 2등을 차지했는데 이번 전국체전에서 한 차원 높은 기술발휘로 금메달을 따냈다.

박용수를 지도한 인천체고 이국재 코치는 “신장이 좋은데 비해 체력이 약한 것이 문제다.

그러나 앞으로 꾸준한 노력으로 체력을 보강한다면 국제무대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국가대표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랑했다.

매번 경기 때마다 나와 응원해 주며 “항상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금메달을 걸어드리자 기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뭉클했다는 효심깊은 박용수는 앞으로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 꿈이라며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강해은, 윤송희 등 여자 국가대표들 줄줄이 초반 탈락 조향미·신경현도 동메달, 이정민만 여고부서 우승

올해 여자 국가대표들이 잇따라 초반 탈락했다.

세계선수권대회 2연패와 함께 지난 7월 시드니 올림픽세계선수권대회에서 본선타켓을 따낸 강해은(서울·상명대)은 페더급 1차 예선에서 광주의 이미진(광산구청)에게 돌려차기로 실점을 허용한 후 만회하지 못해 초반 탈락하는 이변이 있었다.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리스트인 김용경(강원·춘천시청)은 미들급 1차 예선에서 대구의 박은희(경희대)에게 1-0으로 패하며 탈락했다.

또한 캐나다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각각 은메달을 따낸 바 있는 심혜영(경북·삼성에스원)과 정재은(서울·한체대)은 각각 플라이급과 밴텀급 1차 예선에서 대구의 김병희(대구협회)와 강원의 진용순(춘천시청)에게 1-0과 3-2로 패하며 탈락했다.

세계선수권대회 은메달리스트인 윤송희(경남·한체대)는 핀급 2차 예선서 광주의 이순영(광산구청)과 막상막하의 기량을 펼쳤으나 우세를 내주며 아깝게 탈락했다.

올해 국가대표로 입상권에 든 선수는 여고부에 출전한 웰터급 이정민(서울·송곡여고)이 금메달을 따낸 것이 유일하고 조향미(인천·인천시청)와 신경현(경기·경희대)이 동메달 따내는데 그쳤다.

세계선수권대회 3연패의 관록을 자랑하는데다 지난 7월 시드니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본선 출전권을 획득한 조향미는 라이트급 준결승전에서 소극적인 플레이로 서울의 장지원(한체대)에게 우세패 하며 탈락했다.

조향미를 이기고 결승에 오른 장지원은 대전의 정



▲밴텀급 결승에서 광주의 정미나(왼쪽)와 강원의 진용순이 막상막하의 경기를 펼치고 있다.

미향(목원대)을 맞아 2-1로 승리를 거두고 체급 정상에 올랐다.

헤비급에 출전한 신경현은 준결에서 전세계선수권대회 3연패 관록의 정명숙(전남·삼성 에스원)을 맞아 2-2 동점 끝에 우세를 내주고 탈락했다.

정명숙은 결승에서 인천의 박성희(인천전문대)를 3-1로 가볍게 이기고 금메달을 차지함으로써 93년부터 올해까지 7년 연속 우승의 기록을 세웠다.

반면 '95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리스트인 이승민은 이번에 경남협회 소속으로 플라이급에 출전, 빠른발과 앞발 후리기 등을 주특기로 무난히 결승에 올라 인천의 윤명숙(인천시청)과 한판 대결을 펼쳐 뒷차기로 득점을 올리며 1-0으로 승리를 거두었다.

남자 국가대표 노현구만 유일하게 금메달 김제경 전국체전만 8번째, 정명숙 7년 연속 우승 기록

남자대학부와 일반부 경기에서는 올해 국가대표로 세계선수권대회 입상자들이 줄줄이 탈락하는 가운데 서울의 노현구(한체대)만이 페더급 정상에

올라 체면을 유지했다.

세계선수권대회 플라이급 금메달리스트인 윤종일(대구·삼성 에스원)은 세계선수권대회 3연패를 자

랑하는 진승태(경남·한국가스공사)와 막스막하의 경기를 펼쳤으나 우세를 내주고 2위에 머물렀다.

세계선수권대회 편집 금메달리스트인 민병석(서울·한체대)은 1차 예선에서 경기의 장원모(경희대)에게 1-0으로 판정패하며 초반 탈락했다.

밴텀급 금메달리스트인 고대휴(삼성에스원)는 2차 예선에서 경북의 김현용(영천시청)에게 3-2로 판정패하며 탈락했다.

또한 지난 9월 시드니 올림픽 아시아지역선발전에서 올림픽 본선 티켓을 따온 김병욱(울산·삼성에스원)이 라이트급 1차 예선에서 경기의 안홍엽(경기도협회)에게 2-1로 판정패하며 탈락했다.

웰터급 금메달리스트인 강종오(서울·도시철도공사)는 2차 예선에서 '98 방콕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류근무(대구·가스공사)에게 돌려차기와 나래차기 등을 허용하며 4-1로 패했다.

류근무는 인천의 전현우(인천협회)를 판정승으로

이기고 결승에 올라 경기의 이준희(상무)를 내려차기로 제압하며 1-0 판정승을 거두고 체급 정상에 올랐다.

미들급 국가대표인 이동완(강원·춘천시청)은 준결에서 인천의 차용희(상무)에게 무려 4-0이라는 큰 득점차로 패하며 동메달에 머물렀다.

차용희는 결승에서 '98 방콕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강동국(경남·가스공사)과 맞붙어 2-1로 판정패하며 은메달을 차지했다.

울산의 김제경(삼성 에스원)은 대회 첫날 남자 일반부 해비급에 출전해 우승을 차지하며 전국체전에서만 8번 우승하는 신기록을 달성, "역시 김제경"이란 찬사를 받았다.

김제경은 94년도에 부상으로 출전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곤 91년부터 이번 대회까지 전국체전에서만 모두 8번째 금메달을 따내는 기록을 세웠다.

★ 화제의 인물 ★

여고생 국가대표 유망주 윤 성 희 (리라공고)

페더급 우승으로 올해 5관왕에 올라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윤성희가 이번 전국체전에서도 대회전 높은 득점으로 상대들을 누르고 페더급 우승을 차지해 전국체전 2연패의 영광을 안았을 뿐만 아니라 올해에만 전국대회에서 5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게 돼 차기 여자 국가대표 유망주로 손꼽힌다.

윤성희는 다져진 기본기에 힘입어 경기를 읽을 줄 아는 노련한 경기 운영과 다양한 고난이도 기술을 발휘하는 가운데 전북의 김현희를 3-2, 충남의 홍수진을 3-0, 전남의 김현미를 3-1로 이기고 결승에 진출, 경기의 김민아를 4-0으로 크게 이기고 페더급 우승을 차지했다.

윤성희는 올해에만 전국대회에서 8연이나 입상하는 놀라운 성적을 보여 주었는데 그중에서도 금메달이 5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였다.

올해 초 국가대표선발 예선전에서 밴텀급 1위를 차지하며 대표 가능성을 엿보였던 윤성희는 최종전에서 4위를 차지하며 대표 문턱에서 탈락했는데 이후

중고연맹회장기, 5·18 광주대회, 문화관광부장관기에서 우승한데 이어 전국체전에서 각시도의 대표선수들을 물리치고 우승하는 등 날로 뛰어난 기량을 과시해 유력한 대표 유망주로 손꼽히고 있다.

170cm의 키에 58kg인 윤성희는 서울은천초등학교 4학년 때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

해 5학년 때 전국어린이태권왕겨루기 대회에서 우승하며 타고난 재능을 일찌감치 발휘하며 주목을 받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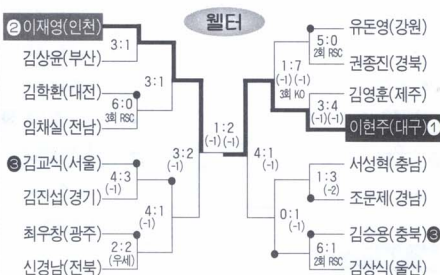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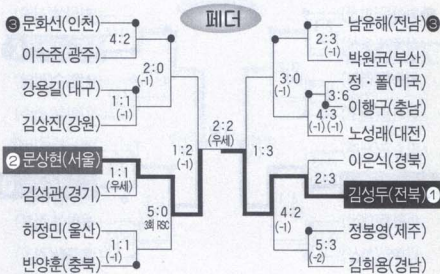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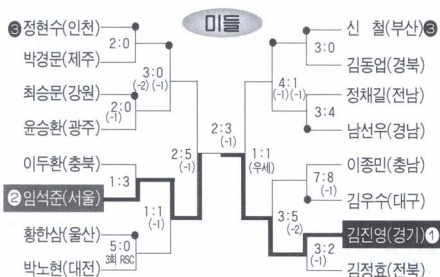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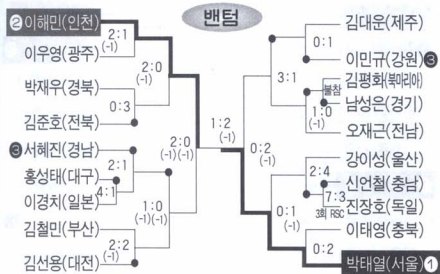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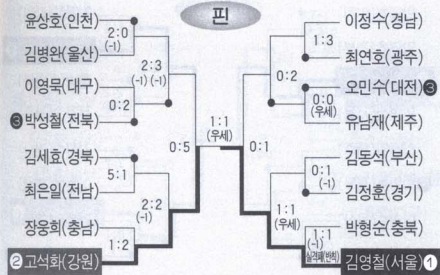
윤성희는 남보다 더 많은 시간을 운동에 투자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신 운동시간만큼은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훈련에 임한다고 밝힌다. 스스로 체력이 약하다고 평가하는 그녀는 앞으로 체력보강을 위해 좀 더 노력해 어릴 때부터 꿈꾸어온 국가대표의 꿈을 이루겠다고 굳은 각오를 보였다.

윤성희를 지도하고 있는 최종국 코치는 "타고난 선수이다. 침착하게 경기를 읽을 줄 알며 기본기가 좋다. 앞으로 체력만 보완하면 훌륭한 선수가 될 것이다."라며 국가대표로 손색이 없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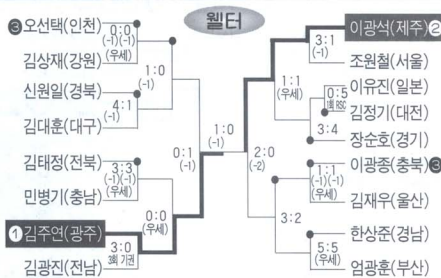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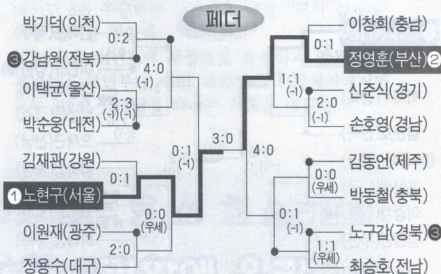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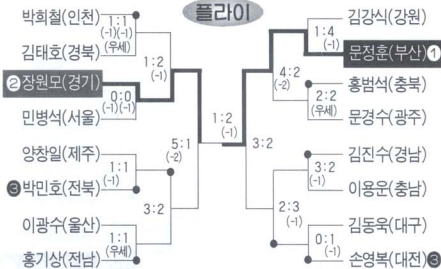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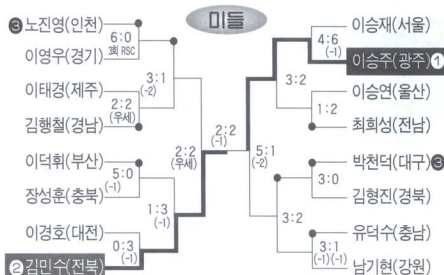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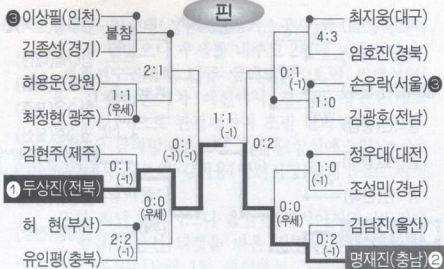
- () : 감점
- ①②③ : 순위
- ● : 승자

남자 고등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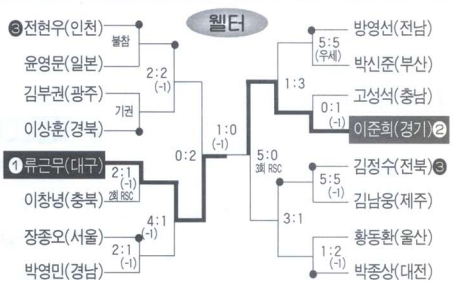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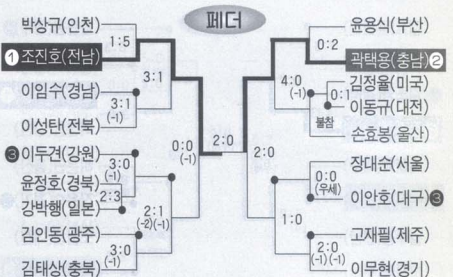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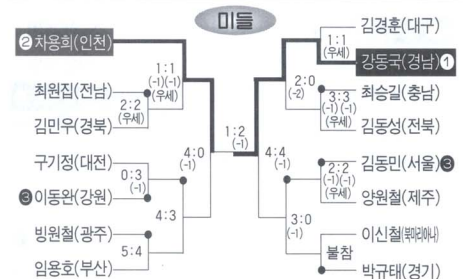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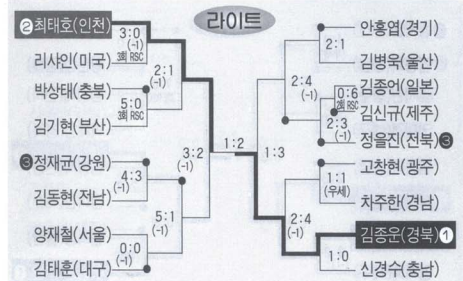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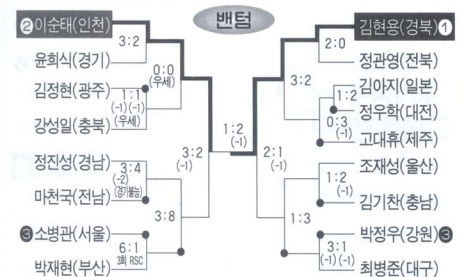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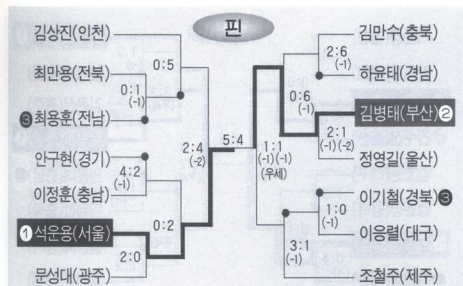
남자 대 학 부

* () : 감점
 * 1 2 3 : 순위
 * ● : 승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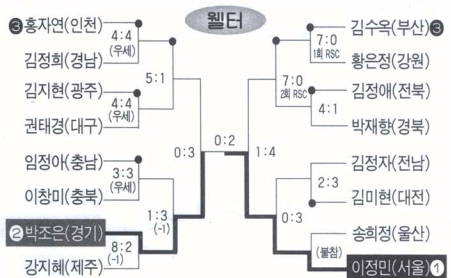


- () : 갑점
- 123 : 순위
- ● : 승자

남자 일반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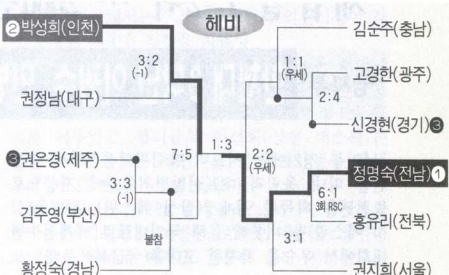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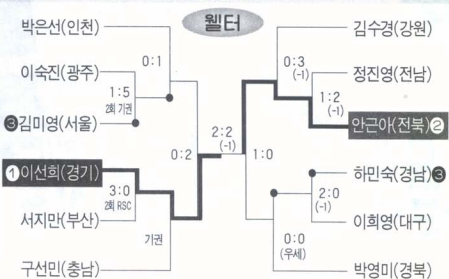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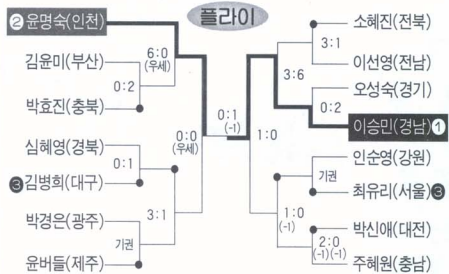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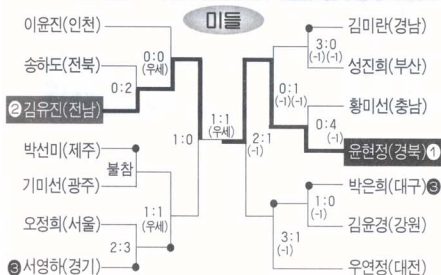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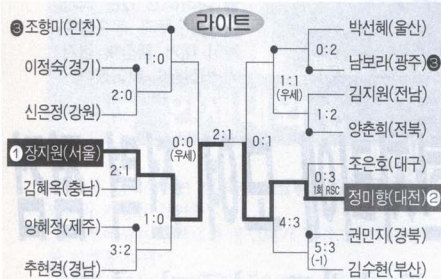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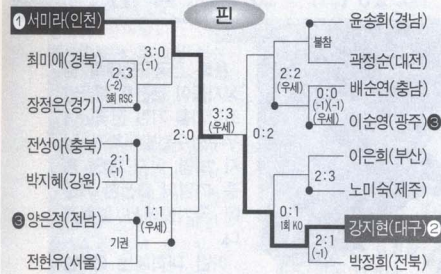


著 () : 감점
 ※ ①②③ : 순위
 ※ ● : 승자



- * () : 점진
 ●●●● : 순위
 ● : 승자

여자 일반부



경기
분석

1999년도 전국남녀우수선수선발대회

10. 26 (화) ~ 29 (금) · 국기원

올해 전국규모대회 입상자들이 출전해 체급별 최강자를 가린 전국남녀 우수선수선발대회가 남자 281명, 여자 190명 등 총 471명이 출전한 가운데 국기원에서 펼쳐졌다.

이번 대회에는 2000년 국가대표선발전을 한달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펼쳐져 체급별 1, 2위자에게는 최종전 출전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더욱더 경기마다 열기를 뽐냈다.

그러나 이번 대회는 이미 2000년 국가대표 선발대회 최종전 출전권을 갖고 있거나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대표선발전을 대비하고 있는 국가대표선수들과 우수선수들이 대거 불참해 경기의 박진감이 떨어졌다.

여자 밴텀급 준결에서 삼성에스원의 정미나(왼쪽)와 경성여실고 전남수가 격돌하고 있다. 1-1 동점에 전남수가 우세승을 거두며 결승에 올랐다

올해 전국대회 입상자들 한자리에 모여 전력 점검

체급별 1, 2위 ... 2000년 국가대표 최종전 출전

남자부 한체대 3학년 이광수, 민병석, 이승재, 최희성 막강 파워 자랑

남자부 경기에는 시드니 올림픽예선전에서 출전권을 따내 올림픽 대표선발전최종전에 자동 출전권을 획득한 김제경(삼성 에스원), 김병욱(삼성 에스원)을 비롯해 올해 국가대표로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고대휴(국군체육부대), 노

현구(한체대), 장종오(도시철도공사) 등이 국가대표 최종전과 올림픽 대표선발전을 앞두고 대회에 불참했다.

그러나 플라이급에는 올해 국가대표로 세계선수권대회 핀급 금메달리스트인 민병석(한체대)이 체

중을 올려 출전한 것을 비롯해 플라이급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리스트인 윤종일(삼성 에스원), 전국가대표인 박희철(성균관대), 유영택(국군체육부대), 최만용(삼성 에스원), 석운용(도시철도공사) 등 우수한 선수들이 대거 참가해 치열한 접전을 펼쳤다.

우수한 선수들이 많이 포진돼 있어 매 게임마다 열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근소한 득점차로 판정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체대 민병석은 예선 첫 경기에서 전 국가대표 최만용을 맞아 결승전 경기와 같은 치열한 접전을 펼쳤는데 2-1로 승리를 거두고 한 고비를 넘겼다.

이어진 경기에서도 만만치 않은 경기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부평기술고의 정근호, 고려대의 손우락, 삼성 에스원의 윤종일과 막상막하의 접전을 펼치는 가운데 승리를 거두고 결승에 오르며 최종전 티켓을 따냈다.

또한 한체대 이광수는 동성고 이수봉, 서울체고 김재식을 차례로 이기고 준결에 올라 성균관대 박희철에 1-0으로 승리를 거두고 결승에 오르며 최종전 티켓을 따내자 같은 학교 민병석이 기권함으로써 플라이급 정상에 올랐다.

한편 미들급 경기에서도 한체대가 막강한 파워를 자랑했다.

이승태는 예선 첫 경기에서 패기로 밀고 들어오는 한성고의 장두상과 6-6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을 벌

인 끝에 장두상의 1점 감점으로 승리를 거두고 2차전에 올랐다.

이어 원발 빠른발을 주득점으로 청주기공고의 이두환에게 3-0, 용인대 이기선에게 3-0으로 가볍게 이기고 준결에 올랐다.

준결에서는 동천고 정영환의 빠른 발차기에 고전하는 가운데 3-3 동점에 우세승을 거두고 결승에 올라 역시 결승에 오른 한체대의 최희성에게 기권승을 거두며 체급 정상에 올랐다.

한편 고등부 선수들은 패기를 앞세워 적극적인 공격으로 대학, 실업팀의 노련한 선수들에게 도전했으나 반격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남자 편급 경기에서는 고교생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선인고의 윤상호와 청주 신흥고의 박형순은 패기와 함께 적극적인 공격으로 대학 선배들을 따돌리고 결승에 나란히 진출하며 내년도 국가대표 유망주로 기대를 모았다.

한편 삼성 에스원의 조진호는 1차 예선에서 선인고 이해민에게 4-0으로 크게 이기며 16강에 올라 청주대의 김향수에 4-1, 경상공고 정남영에 3-0, 조선대 김의철에 3-0으로 크게 이기며 결승에 올라 국군체육부대 이순태를 3-1로 이기고 체급 정상에 올랐다. 강한 체력과 투지를 앞세운 조진호는 이번 대회에서 뛰어난 경기력을 발휘하며 매회전 높은 득점으로 승리를 이끌어 이번 대회 남자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했다.

여자부

한체대와 용인대 3명씩 최종전 티켓 따내

여자부 경기에서는 대학과 실업팀 선수들이 막상막하의 기량을 보여주었다.

대학부에서는 한체대와 용인대가 각각 3명씩 최종전 티켓을 따냈다.

한체대는 페더급 장지원이 우승을 차지한데 이어 편급 주혜원과 라이트급 양혜정이 2위를 차지하며 3체급이 최종전 출전 자격을 획득했다.

용인대는 미들급 우승을 차지한 윤원정을 비롯해 플라이급 오정길, 페더급 이정숙이 각각 체급별 2위를 차지했다.

특히 윤원정은 준결에서 전 국가대표 오정희(경희대)를 맞아 뛰어난 체력을 바탕으로 뒷차기, 받아차기 등을 성공시키며 4-0으로 승리를 거두고 결승에 올라 본리여중의 박명운을 맞아 3-1로 가볍게 승리를 거두며 여자 최우수선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올해 국가대표로 활약한 경희대의 신경현은 헤비급에 출전, 고려대 권지희를 2-0으로 이기고 준결에 올라 경희대 김순주와 고전한 끝에 우세승으로 결승에 올라 송곡여고의 윤현숙에게 받아차기를 성공시키는 가운데 체급 정상에 올랐다.

실업팀 가운데서는 삼성 에스원과 인천시청이 각각 두명씩 최종전 티켓을 따냈다.

플라이급에 출전한 삼성 에스원 심혜영은 뛰어난 유연성과 다양한 공격으로 결승에 올라 용인대 오정길에게 뒷차기, 돌려차기를 성공시키며 2-1로 승리를 거두었고, 웰터급의 이선희(삼성 에스원)는 결승에서 서울체고 김원지를 맞아 3-3 동점 끝에 우세승으로 체급 정상에 올랐다.

'98 방콕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인천시청의 이지은은 강원체고 이정임, 효성고 장은숙, 용인대 김태정을 차례로 이기고 준결에 올라 진영정보공

고 손화정과 격돌 끝에 우세승을 거두고 어렵게 결승에 올랐다.

결승에서는 삼성 에스원의 정미나를 우세승으로 이기고 올라온 경성여실고 전담수와 체급정상을 놓고 치열한 접전을 펼쳤으나 두 선수 모두 득점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가운데 이지은이 우세승으로 금메달을 따냈다.

또한 인천시청은 서미라가 편급 2위에 오르며 최종전 진출에 성공했다.

여고생 중에서는 리라공고 2학년생인 한진선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한진선은 투혼을 발휘하는 가운데 예선에서 본리여중의 박미정을 가볍게 4-0으로 이기고 8강에 올라 전 국가대표 김미영(고려대)과의 대결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으며 상대방의 허점을 공격하는 가운데 2득점을 올리는 기염을 토하며 준결에 올랐다.

김제시청 양춘희와의 준결은 서로 공격을 주고 받으며 2-2까지 가는 팽팽한 접전 끝에 우세승으로 결승에 올라 한체대 양혜정을 맞아 돌려차기로 득점을 올렸으나 받아차기로 실점하며 1-1 동점이었으나 우세승을 거두고 체급 정상에 올랐다.

한편 여자 미들급 경기에서는 중학생이 고교, 실업팀 선배들을 차례로 이기고 결승에 진출, 국가대표 최종전 티켓을 따내 눈길을 끌었다.

본리여중의 박명은은 빠른 순발력을 바탕으로 예선서 강원체고 김정자를 3-0으로 크게 이기고 8강에 올라 한체대의 황미선을 5-3으로 이기는 기염을 토했다.

이어 준결에서 경원대의 김미란을 2-1로 이기고 결승에 진출하며 차세대 유망주로 꼽혔다. 박명은은 결승에서 체력이 떨어지는 가운데 용인대 윤현정의 뒷차기에 실점을 당하며 3-1로 패해 은메달에 머물렀다.

화제의인물

본리여중 박명은 (여자 미들급 준우승)

선배들 제치고 국가대표 최종전 티켓 차지

올해 중고연맹, 문광부장관기, 소년체전 우승 ... 차세대 유망주

"이번 대회에 나와 입상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우수한 기량을 갖고 있는 선배들과 경기를 하게돼 한 게임만이라도 이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최종전에 나가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박명은은 고교, 대학 선배들을 이기고 미들급 2위를 차지하며 내년도 국가대표 최종전 티켓을 따내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번 대회를 위해 박선수는 지난 두달간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새벽운동, 오후, 야간 훈련 등 많은 훈련양으로 대비해왔다.

고등학생들이 감당해야 할 만큼 강도높은 훈련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코치와 선수들간에 호흡이 맞았기 때문이다.

두달전부터 본리여중 태권도부를 맡게 된 강선

경 코치는 울산이 고향인 박명은과 함께 먹고 자는 자취생활을 해오며 선수 선배로서 뿐만 아니라 가족과 떨어져 학교에 다니는 박선수의 친언니 역할을 해오며 자신감을 심어주고 체력 보강을 위해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던 것이다.

지난해 전국소년체전에서 준우승한 것을 비롯해 올해 중고연맹대회, 문광부장관기대회, 소년체전 해비급 우승을 차지하며 차세대 유망주로 떠오르고 있는 박명은은 국가대표최종전 출전을 앞두고 "이겼다는 마음보다는 최선을 다해 뛰면서 선배들의 기량을 한 수 배웠다는 자세로 최종전을 뒤풀겠습니다."라고 말한다.

당장은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할지라도 선배에게서 한 수 배우겠다는 그녀의 말 속에서 당찬 면모를 엿볼 수 있었다.



입상자 명단

◆ 최우수선수상 : 남 - 삼성에스원 : 조진호 ◆ 지도자상 : 남 - 한 체 대 : 함 준
여 - 용 인 대 : 윤현정 여 - 삼성에스원 : 김세희

		남 자 부		여 자 부	
체 급	등 위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핀급	1	윤상호	선인고	주혜원	한체대
	2	박형순	청주 신흥고	서미라	인천시청
	3	최연호	문성고	박효주	서울체고
		최광철	서울체고	안혜경	인천정보고
플라이급	1	이광수	한체대	심혜영	삼성 에스원
	2	민병석	한체대	오정길	용인대
	3	박희철	성균관대	윤명숙	인천시청
		윤종일	삼성 에스원	이혜영	수원정보산업고
밴텀급	1	조진호	삼성 에스원	이지은	인천시청
	2	이순태	상무	전남수	경성여실고
	3	홍률락	경희대	정미나	삼성 에스원
		김의철	조선대	손화정	진영정보공고
페더급	1	이원재	조선대	장지원	한체대
	2	한정대	용인대	이정숙	용인대
	3	남연식	용인대	주미영	경원대
		정영훈	동아대	조선미	수내고교
라이트급	1	이준희	상무	한진선	리라공고
	2	신준식	경희대	양혜정	한체대
	3	김교식	서울체고	김희정	배성여상
		김도영	부평기술고	양춘희	김제시청
웰터급	1	오선택	경희대	이선희	에스원
	2	이남열	성균관대	김연지	서울체고
	3	장순호	경희대	정진영	경희대
		이현수	경상공고	황경화	충북체고
미들급	1	이승재	한체대	윤현정	용인대
	2	최희성	한체대	박명은	본리여중
	3	신 철	금정고	김미란	경원대
		정영한	동천고	오정희	경희대
헤비급	1	문대성	삼성 에스원	신경현	경희대
	2	현재호	계명대	윤현숙	송곡여고
	3	이석훈	한체대	고진숙	부산체고
		송성빈	한체대	김순주	경희대

100장의 올림픽 본선ퟐ켓 중

유럽 강호 스페인 퐁켓 4장 모두 확보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유럽지역선발전이 10월 16일과 17일 이틀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총 36 개국에서 남자 58명, 여자 36명 등 총 94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유럽지역은 이번 대회로 16장의 퐁켓이 결정되었음은 물론 지난 7월 크로아티아 세계선발전에서 18장의 퐁켓을 확보함으로써 모두 17개국이 34장의 퐁켓을 확보하여 가장 많은 본선 진출권을 확보하였다.

각국 선수들의 기량이 평준화되어 있지만 세계 선발전에서 이미 2체급을 확보해 놓은 스페인이나 나머지 2체급 퐁켓 확보에 성공함으로써 태권도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또한 2004년 올림픽 개최국인 그리스가 유럽지역선발전에서 3장의 본선 진출권을 획득하는 성과를 보이며 그리스 올림픽에 태권도의 정식종목 채택 가능성은 밝게 해주었다.

한편 대회를 개최한 홈팀 스웨덴은 남자 -80kg 급과 +80kg급에서 우승자를 배출하며 2장의 퐁켓 확보에 성공했다.

다음은 정보 수집 및 경기분석가 시드니 올림픽 유럽지역선발을 참관하고 돌아온 대한태권도협회 김무천 운영부장으로부터 대회총평 및 경기분석을 들어 정리했다.

2004년 올림픽 개최국 그리스 3체급 출전권 따내 홈팀 스웨덴은 남자 2체급에서 퐁켓 확보

남자 -58kg급 경기에는 15명의 선수가 출전했다. 1위로 출전권을 확보한 헝가리의 조셉 사뮈 선수의 예선전부터 오른발 돌려차기와 뒤차기, 뒤돌려차기 특기를 앞세워 러시아의 안드레이 선수와 이스라엘의 이엘 선수를 가볍게 누르고 준결승에 진출하여 폴란드의 로만 선수를 4-1로 물리치고 결승전에 진출하여 그리스 선수의 기권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헝가리는 올림픽 무대에 1명의 대표를 파견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과 올림픽에서 맞붙는 체급인 남자 -68kg급 경기에는 16명의 선수가 출전했다. 전체적으로 평준화된 실력을 보여 선수간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다. 스페인의 프란시스코 선수는 나래차기와 원발 빠른발 앞돌려차기, 오른발 뒤차기, 오른발 앞돌려차기 등 다양한 기술로 유고슬라비아의 조나 선수를 9-4, 조지아의 버크라즈 선수를 5-0으로 누르고

준결승에 진출하여 네덜란드의 대니스 선수에게 7-2로 승리하고 결승전에 진출하여 러시아의 디지티 바신수의 기권으로 승리했다.

남자 -80kg급 경기에는 14명의 선수가 출전해 올림픽 본선 퐁켓을 놓고 치열한 접전을 펼쳤다.

경량급에 비해 중량급 경기에서는 특별히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가 없는 가운데 이태리의 데메오 선수와 홈그라운드에서 선전한 스웨덴의 로만 선수가 본선진출권을 획득하였으나 기술발휘에 있어서 단조로운 면모를 보여주었다.

남자 +80kg급에선 11명의 선수가 출전하였는데 프랑스, 쿠바, 사우디, 이집트 선수가 신장과 체력면에서 강세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본선진출권을 획득한 스웨덴의 마코스 선수와 그리스의 니코라이다스 선수의 기량은 한국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한 수 아래로 나타났다.

스페인의 노장 에레나 노련한 경기운영으로 승리 핀란드 뛰어난 경기력으로 여자 두체급 휩쓸어

여자 -49kg급 경기에는 9명의 선수가 출전했다. 대부분의 선수가 신장면에서 한국선수들에 비해

윙대한 면모를 보여주었다. 다른 대륙에 비해 체력과 신장면에서 우세한 편이었으며 특히 독일의 파

34장 유럽 차지



유럽지역선발전에는 36개국에서 94명의 선수가 출전해 올림픽 본선 진출권을 놓고 치열한 접전을 펼쳤다. 사진은 개최국에서 선수단의 입장 모습.

디미 선수는 예선전부터 이스라엘의 나마 선수를 10-2 이태리의 아프제니 선수를 8-0 등 큰 점수차로 가볍게 이기고 덴마크의 한니 선수와 함께 진출권을 획득했다. 결승전은 한니 선수의 기권으로 독일의 파디미 선수가 우승하였다. 올림픽 무대에서 한국과 상대할 체급인 여자 -57kg급 경기에는 13명의 선수가 출전했다. 신장과 체력면에서 우위를 보이는데다가 시드니 올림픽 진출권을 따낸 유럽 선수들의 기량이 뛰어나 한국은 이에 대비한 집중적인 전략이 필요한 체급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의 버지니아 선수는 신장과 체력이 뛰어난 뿐만 아니라 나래차기, 받아차기, 뒤차기 등 기술을 다양하게 구사하는데다가 투지가 좋아 올림픽에서 메달 가능성이 높은 유망주이다. 버지니아 선수는 결승에서 그리스의 아레티 선수가 기권함으로써 우승하였다.

여자 -67kg급 경기에는 8명의 선수가 출전했는데 세계선발전에 비해 비교적 우수한 선수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체력과 신장에서 한국선수에게 우위를 보이는 가운데 노르웨이의 튜른디 선수와 핀

랜드의 커사마자 선수가 본선 출전권을 획득하는데 성공했다.

여자 +67kg급 경기에는 역시 8명의 선수가 출전하였다. 무거운 체중을 가진 선수들이라 다른 체급 선수들의 경기에 비해 몸동작이 느린데다 특별한 기술을 구사하는 선수들이 드물었다.

지난 6월 캐나다 세계선수권대회 웰터급에 출전하여 3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투지를 불태우며 금메달을 획득한 바 있는 스페인의 에레나 선수는 이번 대회에 중량을 올려 +67kg급으로 출전하여 다양한 공격 스타일을 구사하는 가운데 결승에 올라 노련한 경기운영과으로 핀랜드의 배애라 선수를 5-0으로 꺾고 우승하였다.

유럽지역은 전체적으로 여자 체급이 강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력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유럽선수들이 유리한 점을 감안하면 한국으로선 유럽선수들이 강력한 라이벌인 셈인데다 기량면에서도 뛰어난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 한국은 유럽 유망주들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Male Division		Female Division	
-58kg	1 Joseph Salim (Hungary)	1 F. Helvacioğlu (Germany)	-49kg
	2 Michalis Mouroutsos (Greece)	2 Hanne Poulssen (Denmark)	
	3 Roman Warot (Poland)	3 Louise Gill (Great Britain)	
-68kg	1 Francisco Zas (Spain)	1 V. Laurence (Netherlands)	-57kg
	2 Dzitiv Aslanbek (Russia)	2 Athanasopoulou (Greece)	
	3 Dennis Beckek (Netherlands)	3 Askaradzinska (Poland)	
-80kg	1 Roman Livaja (Sweden)	1 K. Koskinen (Finland)	-67kg
	2 Mario De Meo (Italy)	2 Trude Gundersen (Norway)	
	3 Zoran Prenad (Belgium)	3 Ekaterina Noskova (Russia)	
+ 80kg	1 Marcus Thoren (Sweden)	1 Elena Benitez (Spain)	+ 67kg
	2 Alexandros Nikolaidis (Greece)	2 Vcra Livkkonen (Finland)	
	3 Denis Gasparik (Slovakia)	3 Laurence Rase (Belgium)	

* 체급별 1, 2위자 올림픽 본선출전권 획득. 3위자는 1, 2위자가 악물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 출전자격을 획득하게 된다.

출전 선수들 철저한 분석으로 대비책 마련해야

김무천 대한태권도협회 운영부장이 말하는 예선총평과 본선대책

2000년 시드니 올림픽 태권도경기에 출전할 국가와 엔트리가 최종 확정됐다.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치러질 태권도경기에 출전할 국가와 선수는 지난 7월 크로아티아 세계선발전과 9월과 10월에 각각 열린 4개 대륙별 예선전을 통해 88명이 선발되었고 주최국 호주에서 8명, 와일드카드 4명 등 총 44개국 100명으로 확정됐다.

남녀 4체급씩 8체급이 열리는 시드니 올림픽

은 주최국을 제외한 국가들은 남녀 2체급씩 최고 4체급만 참가할 수 있도록 참가선수가 제한됐다.

한국은 대만과 필리핀, 미국, 쿠바, 스페인 등과 함께 4체급 출전권을 모두 따냈다.

다음은 정보수집 및 경기분석차 세계선발전과 지역선발전을 참관한 대한태권도협회 김무천 운영부장으로부터 예선전 총평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들어 정리했다.

세계선발전과 대륙별 예선전 결과 유럽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100장의 본선티켓 중 와일드카드 4장을 제외하고 유럽이 34장으로 가장 많은 티켓을 차지했고, 아시아 25장, 팬암지역 19장, 아프리카 10장, 주최국 호주가 8장으로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 출전하게 됐다.

한국은 남자 -68kg, +80kg급과 여자 -57kg, -67kg급 등 남녀 각 두 체급에 출전하게 됐다. 각국의 실력이 세계적으로 평준화되어 가는 시점에서 각 국가별로 정부와 체육회 및 협회 차원에서 올림픽 입상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 올림픽 본선에서는 각축전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올림픽 무대에서 한국을 가장 위협할 상대로는 지난 7월 8일부터 11일까지 열린 크로아티아 세계선발전에서 32장의 본선 티켓중 18장을 확보, 50% 이상을 가져간 유럽세로 스페인, 독일, 프랑스, 터키, 덴마크와 이태리, 차기 올림픽 개최지인 그리스와 유럽 주최국인 호주가 남·여 4체급씩 출전하게 되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팬암지역의 쿠바, 멕시코, 미국 뿐만 아니라 아시아지역의 대만, 필리핀, 중국 등과 이집트를 제외하고 비교적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선수들은 특유의 유연성을 갖고 있는데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좋은 성적을 올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은 세계선발전에서 3장의 티켓을 획득한 후 아시아지역예선대회에서 1장의 마지막 티켓을 거머쥐으로써 4체급 출전권을 모두 획득하였으나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의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선수선발 및 훈련과 정보분석 등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 선수들은 대표선발전을 통해 내년초에야 최종적으로 시드니 올림픽 대표가 최종적으로 선발되었지만 외국선수들은 선수층이 얇아 이번 올림픽 예선전을 통해 선발된 선수들이 올림픽 대표로 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전력분석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

특히 한국은 세계선발전에서 티켓을 놓친 -68kg급의 경우 각국 선수들이 신장이 월등한데다 체력과 파워가 고무 좋아 이 체급에 대한 특별 대비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체급의 강자인 이란의 하디 사이보네코할 선수는 6월 캐나다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김병욱을 누르고 우승한 세계챔피언으로 한국을 위협할 유력한 상대로 주목된다. 또한 독일의 이지 아타키는 빠른 발 돌려차기, 원발 받아차기, 오른발 뒷차기를 주특기로 하고 있고 이태리의 크라우디오 놀라드가 나래차기와 받아차기, 뒷차기 등 다양한 공격 기술을 발휘하고 있어 이들 선수들에 대한 보다 철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드러났다.

+80kg급에서는 세계선발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프랑스의 파스칼 선수가 무려 2m 2m의 긴 신장으로 먼 거리에서 돌려차기와 받아차기를 주특기로 하고 있고 쿠바의 샌즈널슨은 뛰어난 체력을 바탕으로 한 뛰어난 기술을 구사하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알도사리 크하리드는 체력이 좋은데다 국제경기 경험이 많아 노련한 경기운영으로 본선에서

입상가능성이 높은 선수로 주목된다.

여자의 경우 -57kg급은 각국의 기량이 비슷한 수준이라 우열을 가리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신장은 작으나 힘이 좋고 양발 뒤편이 주특기인 터키의 하미드 비킨, 원발과 오른발 받아차기가 주특기인 이탈리아의 크리스티아나, 신장과 체력, 다양한 기술이 뛰어난 뿐만 아니라 투지가 좋은 네덜란드의 버지니아선수, 브라질의 카로리나 카르멘의 기량이 뛰어난 것으로 드러났으며 대만의 후진령은 신장이 크고 빠른발 돌려차기, 앞발 끌어 돌려차기를 주특기로 하고 있어 이들 선수들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과 대비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67kg급은 조항미와 세계선발전 결승에서 맞붙은 스페인의 일레인 루이즈, '99 세계선수권대회 은메달리스트로 원·오른발 돌려차기와 연결공격이 뛰

어난 대만의 장후이장, 오른발 돌려차기가 주특기인 미국의 쿤겔 카파라와 멕시코의 넬사 모니카 델 선수수가 한국의 유력한 상대선수가 될 것으로 떠올랐다. 이처럼 시드니 올림픽 예선전을 통해 드러난 외국선수들에 대한 정보와 기술을 철저하게 분석해 이를 토대로 만반의 대응책을 준비할 시점이다.

선수층이 두터운 우리나라와는 달리 외국은 체급별로 특정 선수들의 활약이 두드러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각종 국제대회에서 분석한 자료와 비디오를 통해 올림픽 본선 출전이 유력한 선수 개인 개인의 장단점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한국선수와의 경기에서 승리한 선수의 주요 득점기술을 분석하고 이에 대비한 대비책을 세워 보다 철저한 과학적인 훈련으로 올림픽에 대비해야 한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태권도경기 체급별 출전국 현황

국가명	남자부				여자부				계	국가명	남자부				여자부				계
	-58	-68	-80	+80	-49	-57	-67	+67			-58	-68	-80	+80	-49	-57	-67	+67	
호주	0	0	0	0	0	0	0	0	8	멕시코			0		0		0		3
중국				0			0	0	3	니카라과아				0					1
대만	0	0			0	0			4	트리니토바고						0			1
인도네시아					0				1	미국	0	0			0		0		4
이란		0	0						2	베네주엘라								0	1
일본	0						0		2	오스트리아		0							1
한국		0		0		0	0		4	크로아티아								0	1
쿠웨이트	0								1	덴마크			0		0				2
말레이시아								0	1	핀란드						0	0		2
필리핀	0		0		0	0			4	프랑스				0				0	2
사우디아라비아				0					1	독일		0	0		0				3
베트남					0	0			2	영국				0			0		2
베닌		0							1	그리스	0			0		0			3
이집트	0			0		0			3	헝가리	0								1
레소토			0		0				2	이태리		0	0			0			3
모로코	0						0	0	3	네덜란드						0	0		2
사우디아라비아				0					1	노르웨이							0		1
아르헨티나	0	0							2	러시아		0						0	2
브라질						0			1	슬로베니아			0						1
캐나다								0	1	스페인	0	0					0	0	4
칠레			0						1	스웨덴			0	0					2
쿠바			0	0	0			0	4	터키					0	0			2

ARYAN의 나라 이란에서의 태권도 지도 中

현재 세계 각국에 파견되어 활약 중인 태권도 사범은 5천여 명에 이른다.

해외에서 땀흘린 태권도 사범들의 노력에 의해 태권도는 전 세계인이 즐기는 스포츠로 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드니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이란은 최근 손꼽히는 태권도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크로아티아에서 열린 시드니 올림픽 세계선수권과 9월에 필리핀에서 열린 아시아지역선수권에서 각국이 최대 남녀 각 2체급으

로 제한된 티켓 중 남자 2체급 모두 본선 티켓을 따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올림픽 본선무대에서의 메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되는 이란이 태권도계에서 "태풍의 눈"으로 성장한 데에는 지난 14년간 이란에서 태권도를 지도해온 강신철 관장의 노력이 매우 컸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지에서는 이란에서 태권도를 지도해온 강신철 관장으로부터 어떻게 가르쳤으며 그 나라의 태권도 현황과 발전사에 대한 글을 받아 3회에 나누어 실는다.

'86 아시안 게임의 빛나는 영광

이란은 이미 74년 아시안 게임을 주축하였다.

내가 이란에 파견된 85년도에 우리나라는 '86 아시안 게임과 '88 서울 올림픽을 유치하고 성공적인 개최에 그야말로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을 때였다.

'86 아시안 게임이 성공해야 올림픽을 잘 치를 수 있는 길이 열리기에 선진국이 되기 위한 안간힘을 쏟아부은, 말 그대로 단군 이래 최대, 최고의 잔치를 서울에서 준비하는 과정이다.

태권도 역시 처음으로 '86 아시안 게임을 대비하여 한국 전체급 석권의 목표를 천명하고 자신하였다. 그러나 시합 첫 날 한국팀의 전체급 석권의 꿈이 좌절되는 이번이 수월 성균관대학 체육관에서 일어났다.

10월 1일 밴텀급의 홍종만 선수가 요르단의 하바비디에게 판정패로 탈락하면서 이란을 비롯한 인니, 네팔, 요르단 팀의 코치와 선수들은 아연 흥분한 상태가 되었다.

8강전에서 맞붙은 네팔 선수는 막새음 같은 수준을 구사해 이란선수에게 괴롭고 피곤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다. 주먹으로 얼굴 공격은 다반사고 낭심차기를 연거푸하여 네팔의 신재균 선배가 원망스러울 정도였다.

그러나 행운의 여신은 결국 이란의 거대리 선수에게 금메달을 안겨주었다.

'86 아시안 게임에 참가할 대표선수 훈련시 8명 전체급을 훈련시키던 중 이란 올림픽조직위로부터



▲'86 서울 아시안게임에서 에브라임 거대리가 밴텀급 우승을 차지하며 기뻐하고 있다.

4명만 출전할 수 있다는 전갈을 받았다.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은 가라데 협회와 타 체육협회 단체들의 압력 때문이었다.

왜냐하면 이란 올림픽 조직위 산하 체육청에 등록된 스포츠 단체 중 외국인 코치가 있는 협회는 태권도와 여자 사격코치인 중국 코치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이란의 특수한 경제 사정상 미화로 금여를 지급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로 선망인 동시에 미운 오리새끼와 같은 존재였다.

엔트리 마감 3일전 회장과 올림픽 조직위를 방문, 통사정을 하여 아시안게임의 중요성과 국가 이미지 제고(堤高=쳐들어 높임, 정도를 높임) 등을 강

조, 급기야는 종합 2위를 못하면 즉시 사표를 내고 귀국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1명을 더 출전할 수 있게 하였고 선수 선발 중 가장 고심(苦心=몹시 애써)해서 고른 마지막 선수가 국제대회 출전 경험이 전혀 없었으나 신체조건이 가장 좋았던 복덩이 거 데리었다.

에브라임 거데리는 '86 아시안 게임의 화려한 우승으로 이란 정부에서도 많은 포상을 받았고 태권도의 위상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나와 올림픽조직위와의 약속도 지킬 수 있게 했다.

10월 2일은 박봉권 선수와 이란의 알리 하지푸이

세계대회급의 훈련은 3개월, 나머지 크고 작은 시합은 1~2개월의 합숙훈련을 거친다. 1진인 국가대표와 2진, 3진으로 편성한다. 한편, 웬만한 도시마다 팀이 구성되어 있어 국가대표와 2~3진 중 결원이 생길 시는 즉각 보충할 수 있다. 이란팀이 99년 팔복할 만한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전국의 시·도에 팀이 포진하고 있는 두터운 선수층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매년 수많은 리그전을 통해 시합을 자주한다. 이런 분위기는 한국과 대만, 이란 등 열손가락에 꼽을 정도의 국가만이 실행하고 있을 뿐이다. 85년도 7회 세계대회를 맞이한 첫

전역에 팀이 포진된 “두터운 선수층”이 강점 타고난 체력에 근력 갖춘 선수들 힘 넘쳐

결승에서 다했으나 박선수의 두뇌 플레이에 걸려 하지푸일은 힘차람과 에너지 발산만 하는 격이었다.

하지푸일은 결승전에서 결국 은메달에 그쳤으나 시합이 종료된 후에도 펄펄 넘치는 힘 때문에 도핑 테스트를 받기도 하였다.

'86 아시안 게임의 기본좋은 성과로 이란 선수들을 먼저 보낸 후 나는 목화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이란으로 기본좋은 첫 걸음을 옮겼다.

'86 아시안 게임 - 수원 - 이란 종합 2위가 연결된 기념으로 수원에 남창도장을 개관한 것이 벌써 12년 쯤이 되어간다.

이란 태권도의 무서운 저력

필자도 금연자(禁煙者=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지만 이란의 선수나 코치를 대부분인 99%가 금연자다. 이것이 한국선수와 지도자들과는 훨씬 높은 선진문화라 하겠다.

이들의 생활은 무도인으로서의 덕목이랄 수 있는 청렴, 수신, 노력의 생활이 있기 때문이다.

국가대표 선수를 선발하는 테엔 단 한 가지만을 적용한다. 실력대로 공명정대하게, 이 원칙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며 벗어난 적이 없다. 이것은 태권도를 하는 근본(根本=사물이 생겨나는데 바탕이 되는 것)이나 같은 것이다.

이란 전 지역에서 리그전을 통해 올라온 최종의 선수들과 비록 등수에는 들지 못한 선수라도 특별한 재능이 있거나 신체적 조건이 월등한 선수는 추천을 해서 합숙훈련을 같이 받을 기회를 준다.

훈련은 100킬로미터 구보였다. 10시간이 넘게 걸려 된 후 저녁늦게 다른 주에서 그 몸으로 대표선수들이 시범을 보인 일이 있다. 이란 선수들의 힘은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육식이 주식이고 타고난 체질에 근력에 있거니와 워낙 잘 먹고 그 에너지를 태권도 외에 쏟을 데가 없기도 한 때문이다.

피땀어린 훈련과의 싸움

새벽 훈련은, 6시에 전원 집합이 되어 있어야 시작된다. 주장으로부터 점호를 받고, 이란국가를 시작으로 하루 일과가 시작된다. 가벼운 몸풀기로 정신을 차린 뒤 서서히 4킬로미터 구보가 끝나면 스프레칭 후, 본격 훈련에 돌입한다. 지긋지긋한(선수들 표현) 계단 오르내리기도 다양하게 시킨다. 땀 수 있으면 같은 동작의 반복을 피하려 연구하고 애쓴다. 훈련의 목표는 1% 영감(靈感=신의 계시를 받은 것 같이 머리에 번득이는 신묘한 생각)과 99%의 노력, 이것이 전부다. 어차피 훈련이란, 자신과의 극기(克己=자기의 욕망이나 충동, 욕망, 감정 따위를 의지로 눌러 이김) 싸움이므로 스스로 정해진 코스를 완주케한다. 일거수 일투족은 3~4명의 코치들에 의해 체크된다. 감독을 보는 나의 입장은 선수들의 진을 빼지 않을 정도로 기(氣=활동의 원인이 되는 힘)와 힘을 안배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정신력과 집중력을 살핀다. 힘은 체력의 60~80%까지만 쓰게 해준다. 이러한 모자람의 덕을 응용한 힘의 축적관계와 에너지 소모의 차이를 측정 후의 힘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케한 후 시합에

임하게 하는 것이 나의 주임무라 할 수 있다.

평소 기술훈련에 있어서는 절대 한국선수의 흉내는 내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 모방은 항상 창조에 끌려다니기 때문이다. 그대신 남들이 못하는 기술 한가지를 비기(秘技=나만이 갖고 있는 기술)로 갖출 수 있도록 한다.

획일적인 단체 훈련은 체력강화 외에는 하지 않는다. 개인차를 최우선으로 각 선수의 몸에 맞는 기

다.

국내 평가전을 치를 때는 대표팀 선수는 1점을 접어두고 시합을 하게 한다. 즉, 상대선수가 1득점을 얻고 시작하는 것이다. 상대에 따라 2, 3점까지 접고 평가를 할 때도 있다. 이렇게 해서 완전한 1득점과 경기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지 여부를 체크한 것이 중요한 선수 기록카드로 남는다.

세뇌 교육 心3 身3

< 정신적 측면 >

① 나는 국가를 대표한다. 고로 모든 행동은 국가를 대표한다.

② 나의 상대는 한국선수가 아닌 나 자신이다. 내가 이 세상의 주인 공이다.

③ 관장님의 올바른 지시에 복종한다.

< 기술적 측면 >

① 시합은 머리로 싸우는 것이다. 몸으로 싸우는 것은 2류다.

② 사자(獅子=무트 짐승들의 왕으로 불리는 고양이과의 맹수)가 되어 시합에 임한다. 모든 주도권을 장악하라.

③ 깨끗하게 싸운다. 나와 국가의 명예를 지킨다.



▲ '89 프랑스 국제오픈대회에서 이란팀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특성을 파악한 후 그 기술을 연구, 개발시키는 것 또한 나의 몫이다.

공격형, 수비형, 공방형 모두에 익숙하도록 대처능력을 키우기 위해 상당히 위험한 훈련이지만, 특수한 것 중에는 코너를 배수진 삼아 역습하는 것, 다수 대면, 2대 1, 3대 1 등 실전 거루기, 손을 구속시킨 후 피하기만 하는 훈련, 절대 물러서지 않고 공격만 하는 훈련 등등을 거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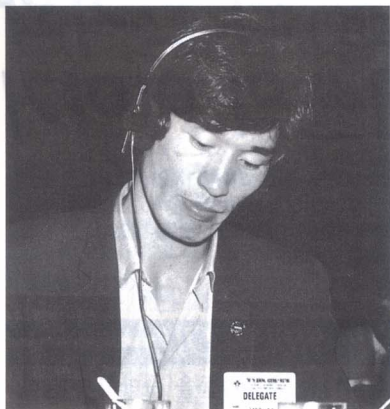
훈련 과정은 자유롭되 엄하다. 규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모든 간섭을 배제한다. 단, 규정에 위반되는 행동을 할 시엔 가차없이 처벌하는데 대부분 이란 처벌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체력훈련과 청소 또는 차가운 눈초리와 무관심 등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어 스스로 깨우치게 한다.

국가대표는 국가대표다워야

훈련 중 1주일에 2~3회 정도는 아침 운동으로 품세를 교육한다. 품세를 거루기에 잘 응용할 줄 알면 일격에 KO가 나오는 비기(秘技)를 만들 수 있

위와 같이 정신, 기술 측면의 세가지씩을 간단히 글로 표현하였지만 훈련하는 과정에서는 필요한 여러 가지 복잡한 규율과 수칙이 뒤따른다. 단 한 가지 기술이라도 원발을 오른발보다 더 잘 쓰도록 한다거나 선수는 몸이 제일 귀하다거나 땀 흘린만큼 얻는 결과가 메달의 색이라거나, 상대방의 장단점 파악, 찬스포착, 선제공격, 끝을 보는 근성 등 자질구래한 것들을 팀 코치와 트레이너, 주장에 일임하고 1주에 한번 정도 검토하고 평가를 한다.

훈련은 혹독하지만, 일단 어느 시합이든 경기장에 들어서선 승부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다. 다만 평소 훈련 때의 100%의 기량을 펼친 경기는 패했다 하더라도 다음에 기회를 준다. 반대로 비겁하게 이기거나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할 시는 그 순간부터 선수 생명은 끝난다. KO로 멋진 장식을 하였거나 큰 기술차로 상대를 완전 제압했을 때는 나의 지극한 환대를 받는다. 한 예로 이란국제대회시 한국팀(모대학대표팀)의 한 선수를 일격에 큰 대(大)자로 KO시켰고 또한번은 '89 프랑스 오픈에서 멋진 승



▲85년 서울에서 열린 제 7회 세계선수권대회의 대표자 회의에 강신철 관장이 이란대표팀 코치자격으로 참석했다.

리를 거두기도 했다. 시합측면으로는 이란이 세계 2위가 되는 것이 나의 지상 명제(命題=말겨진 문제)였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는 이란 사범들의 정신자세 확립이 세계 1위보다 더 희망적인 일이라 하고 말해왔다. 금메달은 언제든 기회를 만들 수 있지만 정신적인 인격과 높은 문화와 교육은 짧은 시간에 훈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란에서 생활하다 보면 모든 걸 떠나 이란 사람이 된다. 한국과의 시합을 할 때도 내 자식이 필히 이기기를 기원한다. 한국을 이겨야 세계 속에 태권도가 살아남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국내 태권도에도 자극을 주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촉진제가 되리라는 신념이 있다. 태권도는 한국의 것만이 아닌 세계인의 것이기에, 공정한 실력 판정으로 실력이 인정되면 메달은 누구나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은 체감(體感=몸에 느끼는 감각)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뜻있는 지도자라면 한국팀을 이기는 팀이 많아질수록 한국의 태권도가 세계의 태권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역설을 잘 아시리라 믿는다.

인살라 (알라 신의 뜻대로)

85년 9월 4일 잠실체육관에서 열린 제 7회 세계대회 첫날 미들급에서 이란의 주장 자해디와 지금은 연예인이 된 이동준의 결승전에서 이란은 은메달에 머물렀으나 세계대회 첫 시합치고는 짝잡한 수확이었다. 이번 대회를 위해 장충동 엠버서더 호텔에 보름간 묵었는데 이때는 FAX가 없었던 때라

전화나 텔레스로 본국과 연락을 취하였다. 9월 4일 저녁 이란 정부측에서 미국과 이스라엘과의 시합은 무조건 출전해서는 안된다는 명령이 떨어졌다.

최고의 기량을 갖고 있던 선수가 미국과의 시합을 코앞에 두고 있는 터라 허락을 받기 위해 무진장의 노력을 했으나 정부의 정치적 입장이 완고하여 승·패와 관계없이 출전시에는 이란에서의 태권도 활동은 끝이라는 강경한 자세에 애꿎은 두명의 선수만 너무 울어 눈이 툭툭부어 올라 지도자로서 안쓰러움과 무력감을 느껴야 했다. 죽도록 훈련만 하고 시합장에서 한번 제대로 뛰여보지도 못한 선수들에게 "인살라(신의 뜻대로)"가 과연 어떤 위안이 될 수 있겠는가.

이슬람 율법에 의하여



▲유일한 남자기수 85년 잠실체육관에서 열린 제 7회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여자가 국가를 대표하면 안된다는 이슬람 율법에 의해 강신철 코치가 이란국기를 들고 입장했다.

85년과 89년 세계대회 개막식, 각국을 대표하는 피켓걸이 국기를 들고 입장해야하는데 오직 이란만이 필자가 기수가 되어 입장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유인즉 이슬람 율법에 의해 이슬람 정복을 착의하지 않은 여자가 국가를 대표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53개국 중 유독 필자만이 청일점이 된 것이다.

전국에 T.V로 중계된 이 광경을 본 많은 선후배들의 우스개 농담 속에서 모두들 색다른 개회식을 즐겼다.

<다음호에 계속>

태보(TAE-BO)

USA TODAY에 실린

「태보」의 인기와 창시자 블랭크스의 이야기

요즘 미국에서는 태권도(TAEKWONDO)와 복싱(BOXING)을 묶어 에어로빅스운동으로 만든 태보(TAE-BO)가 건강을 원하는 사람들 사이에 폭풍적인 인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미국의 일간지 유에스에이 투데이(USA

TODAY)는 <태보>의 창시자인 빌리 블랭크스의 걸어온 길과 <태보>의 인기, 그리고 미국사회의 반응에 대해 특별기사를 실었다.

이를 간추려본다.

<박채희 옮김>

때리기! 차기! 찌르기! 뛰어오르기!

빌리 블랭크스의 Tae-Bo 건강법은 그의 늘어나는 추종자들을 숨막히게 한다.

정열적인 건강사업활동가인 빌리 블랭크스는 맘으로 짓는 100명의 운동가들로 가득한 수업에서 동작을 시범해 보이며 빠르고 귀찮이 터질 듯한 음악에 맞추어 『무릎! 무릎! 차기! 때리기!』를 외친다. 밀어버린 머리와 조각 같은 몸을 가진 44세의 블랭

유명 개종자들을 얻었다.

그는 여기저기 모습을 나타내는 TV정보광고로 몇 백만 개의 「태보」 비디오를 팔았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 of 한 부분이다. 블랭크스가 그의 운동이 독특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다른 운동전문가들은 전국적으로 2/3의 운동센터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킥복싱, 카디오복싱, 박스에어로빅 프로그램과 매우 흡사하다고 얘기한다. 6피트 185파운드 of 블랭크스는 틀림없이 이런 움직임에 이끌고 있는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인물이다. 그의 이력은 지금 그의 한시간 운동보다 더 열정적이다.

▶자서전, The Tae-Bo Way는 25달러에 땀땀 복스사로부터 막 출판되었다.

▶아이들용 하나, 연장자용 하나를 포함한 12개 이상의 새 「태보」 비디오가 개발단계에 있다. 그는 이미 7개의 테

이프를 내놓았고 새로운 TV정보광고가 이번 가을 방송예정이다.

▶새로운 빌리 블랭크스의 「태보」 센터가 지난달 휴스턴에서 문을 열었고 그는 1년내에 다른 지역에도 몇 개를 더 열 계획이다.

수업이 끝난 후 비좁은 사무실에 앉아 블랭크스는 특히 그의 프로그램의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때 가끔 철학적이 되며 때때로 방어적이 된다.

전도 활동

독실한 기독교인인 그는 책상 한쪽에 2개의 성경

Punch! Kick! Jab! Jump!

Billy Blanks' Tae-Bo regimen leaves his growing number of followers breathless

By Nancy Hellmich
USA TODAY

SHERMAN OAKS, Calif. — "Knee, knee, kick, punch," blares blare Billy Blanks shouts over fast-paced, dominating music in a dance studio before a class packed with 100 sweat-soaked exercisers.

With his shaven head and sculpted body, Blanks, 44, is the self-styled leader of the hottest fitness movement around — Tae-Bo, a hybrid of karate, boxing and aerobic dance.

He preaches self-improvement class. Blanks is often philosophical and occasionally defensive, especially when asked questions about the safety of his program.

A sense of mission

A devout Christian, he has two bibles on the side of his desk.

Blanks sees Tae-Bo as his mission, in life. He says it increases people's service and muscle endurance, fastness, flexibility and body control.

And as they master the program, it builds their confidence.

was several tim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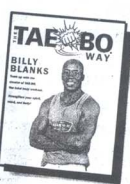
He says it was in 1976 in the basement of his home that he began developing what he eventually named, Tae-Bo.

The "Bo" stands for the ancient martial art he loves: Judo.

His wife, Cathy, had given him the Rocky soundtrack.

He began kicking, punching, dancing to the music.

About that time, a talent scout called him to be in a production of The Nightwatcher, and Blanks began



Blanks agrees it's a hard workout. "Anything that is easy is no good," he says.

▲미국신문 유에스에이 투데이(USA TODAY)에 실린 「태보」(TAE-BO)와 창시자 빌리 블랭크스의 기사.

크스는 가장 최신의 인기 운동종목이고 태권도, 복싱 그리고 에어로빅스의 혼합물인 Tae-Bo의 지도자이다. 그는 고된 운동과 절단력을 통해 자기항상을 설교한다. 그는 "힘을 내요! 힘을 내요!" 그리고 "잘했어요! 잘했어요!"라는 슬로건으로 그의 운동 비디오 시청자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다. 그리고 여기 빌리 블랭크스의 월드 트레이닝 센터에서의 수업에서 그는 높은 강단에서 뛰어내려와 제자들을 사이사이를 오가며 열심히, 열심히, 더 잘, 항상 잘하도록 격려한다. 가상의 적에 대한 많은 차기, 때리기, 찌르기를 포함한 그의 강의 프로그램은 부록 쥘즈, 갈렌 엘렉트라, 매릭 존슨과 신바드와 같은

책이 있다. 블랜크스는 인생에서 「태보」를 그의 전도활동이라고 본다. 「태보」는 사람들의 호흡기능과 근육 인내력, 균형, 유연성과 신체조절을 할 수 있다고 그는 말한다. 그리고 그들이 프로그램을 숙달하게 되면 그들 스스로 「태보」의 이미지를 세워갈 수 있게 된다.

어디서든지 전통적인 에어로빅은 주로 여성들의 흥미를 끌고 이 운동은 남성들이 흥미를 느낀다고 한다. “모든 남성들은 가슴속 깊이 권투선수를 원하고 있다. 여기에 와서 그들은 복싱이나 태권도를 하는 것처럼 한다.”고 그가 밝혔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블랜크스는 어떻게 하면 이루어고 하는 도전적인 일이 인생을 변화할 수 있는지를 안다. 펜실바니아 주 에리에서 태어난 그는 15명중 4째였다. 그의 아버지는 낮에는 철 주물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청소차를 운전하였다.

“우리는 너무나 가난했지만 난 그 사실을 몰랐어요. 부모님들이 우리들을 계속적으로 보살펴주셨기 때문이지요.” 그의 부모는 그를 사랑과 규율 속에서 키웠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벌리 너는 무엇이든지 열심히 해야 한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상기해요.”

어린 시절 블랜크스는 진단하지 못하는 독서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또한 그는 작고 단단한 힘줄을 가지고 있어 행동과 유연성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었다. “나는 둘 이상의 근육을 동시에 움직일 수 없어서 정말로 걷는 것과 점프를 동시에 할 수 없었어요.”

무술을 배우다

12살이었을 때 그는 TV시리즈인 그린 호넷에서 나오는 무술배우 이소룡을 보고, 블랜크스는 세계 무술 우승자가 되기를 결심하였다.

그후 16세에 그는 가라데에서 검은 띠를 획득했으며 US 가라데 팀에 들어가 1980년에는 그 팀의 주장이 되었다. 그로부터 그는 다양한 국내와 세계 시험에 나가기 시작하였고 곳곳에서 우승을 하였다.

결국 「태보(Tae-Bo)」라고 이름짓게 된 것을 개발하기 시작한 것은 그의 집 지하실에서인 1976년이였다. 「태(Tae)」는 동양 무술인 태권도를 상징하고 「보(Bo)」는 복싱을 상징한다.

그의 아내 게일은 록크음악의 사운드트랙을 전해 주었다. 그는 음악에 맞추어 차기, 때리기, 춤을 추기 시작하였다. 그 당시 발레교사로부터 블랜크스는 발레와 음악의 가치를 배우기 시작하였다.

에어로빅스(AEROBICS)란?

지금 온 세계를 휩쓸고 있는 에어로빅스 열풍은 미국공군의 항공임상의학연구소장을 지낸 케·H·쿠퍼 박사가 창안해낸 운동방식이다.

쿠퍼 박사는 4년남짓 동안에 걸쳐 5,000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운동량을 점수로 나타내는데 성공했다. 종전까지는 어느 정도의 운동량을 소화하는 것이 심폐기능강화 및 체력증진에 도움이 되는지 객관적인 기준이 없었으나 쿠퍼 박사는 운동량을 점수로 환산함으로써 각 연령층과 체력에 알맞은 운동량기준을 설정했다. 에어로빅스란 산소의 최대 섭취량을 늘리는 운동이며 달리기, 수영, 자전거 타기의 3가지가 기본 동작이다.

그러나 체조나 댄스 등에서 에어로빅이론을 활용해 에어로빅스체조나 에어로빅스댄싱이 태어나고 보니 음악에 맞추어 움직이는 에어로빅스체조나 에어로빅스댄싱이 주로 여성들 사이에서 많은 인기를 모으는 바람에 에어로빅스라면 바로 체조나 댄싱을 연상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하지만 심폐기능을 강화하고 지구력을 키우는 에어로빅스의 3대 종목으로 쿠퍼 박사는 달리기, 수영, 자

전거 타기를 꼽고 있음을 잊지말아야겠다.

쿠퍼 박사는 건강과 체력의 유지에는 1주일에 30점의 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에어로빅스의 1점은 산소 7ml를 소비하는 운동량을 뜻한다.

그러나 같은 거리인 1.6km(1마일)를 달리더라도 14분 30초에서 20분 걸리면 1점밖에 안되고 12분에서 14분 30초 사이면 2점, 10분에서 12분 사이면 3점, 8분에서 10분 사이면 4점, 6분 30초에서 8분 사이면 5점 6분 30초 이하면 6점이 된다.

이렇게 달리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의 거리와 소요 시간을 점수로 환산해서 표를 만들어 놓았다.

따라서 1주에 30점이면 하루에 5점짜리 운동을 6일 하든지 6점짜리 운동을 5일 하면 건강과 체력이 유지된다는 이야기다.

재미있는 것은 골프를 에어로빅스 점수로 환산하면 18홀을 모두 돌아도 3점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1주일에 18홀을 10차례는 돌아야 건강과 체력이 유지된다는 이야기가 된다.

일반적으로 레저스포츠는 에어로빅스 3대 종목에 견주어 낮은 편이다.



▲태권도 한마당에서 펼쳐지는 태권도 체조나 태권도 에어로빅스도 내용이 좋고 흥겨우면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로의 보급도 가능하다.

다음단계 : 가르침

블랜크스는 에리에 처음으로 몇몇 '태보'강좌를 개설하였고 다음으로 보스턴에 개설하였다. 1989년 영화배우인 캐더린 바흐가 필라델피아에서 「블러드피스트」란 영화를 찍는 동안 경호원으로 일하였다. 그는 「태보」로 바흐를 훈련시키기 시작하였고 그녀는 그에게 "내가 생각하기에 당신은 켈리포니아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말하였다. 그해 그는 로스앤젤레스로 옮겨갔다.

블랜크스는 교회에 가는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그의 체력센터에 나간다. 그리고 화요일 저녁에는 성경공부를 하러 간다.

그의 고객이 떨어놓는 이야기

유명인사들이 낮에 그의 센터에 오고가지만 소란을 피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실, 블랜크스는 한 수업시간을 기억하는데 그는 한 여자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었다. "힘내세요. 당신은 정말로 훌륭한 몸매를 가지고 있군요. 다음 번에 내가 당신이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가 배우인 에인젤스 바세트에게 얘기했었던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은 그 후였다. 그의 고객들은 열성적인 그룹이었다.

9년동안 수업을 받고 있는 51세의 주디 블로어가 말하길, "빌리는 여러분이 전에 만날 수 있었던 사람 중에 가장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람이에요."

48세인 프리랜서 제작자 에릭 게이지는 지난주 블랜크스의 중간휴식시간에 "몇 가지 이유로 블랜크

스가 가르칠 때는 난 더 열심히 하게된다"고 말한다. 4년간 '태보'를 한 베테랑 33세의 스테이지 알드리치는 그녀가 해왔던 운동 중에 가장 힘든 운동이라고 말한다. "느낌상 꼭 올림픽을 위하여 훈련하는 것 같아요."

블랜크스는 '태보'가 어려운 운동이라는 그녀의 말에 동의하였다.

"어떠한 것이든 쉬운 일은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태보'에 관한 관심사

운동연구가들은 알고 있지만 '태보'의 안전성을 분석해 놓은 과학적인 연구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일부 전문가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안전한 운동을 증진시키는 비영리단체 ACE(미국 운동평의회)에 다니는 운동생리학자 리처드 코튼은 "특히 여러분이 정확하게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등, 무릎, 엉덩이, 발목, 팔목, 어깨, 활동이 많은 다른 관절에는 몇 가지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고 말하며 "태보"는 훌륭한 강사의 지도를 받아 점진적으로 배우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한다.

ACE의 대변인이자 할리우드의 트레이너인 켈리 로버츠는 블랜크스가 가르치는 수업에 참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블랜크스는 열성적인 지도자이지만 그의 수업은 여러 가지 다른 동작들의 수많은 반복이 포함되어 있고 속도도 너무 빠르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녀는 일반적으로 카디오복싱을 하면 자기 자신을 다치게 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들의 인대와 관절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많이 그리고 너무 빨리 운동을 하게되면 잠재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블랜크스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적당한 기술을 가르쳐 주는 강사를 만난다면 '태보'는 위험한 것이 아니다"라고 응답한다.

이러한 종류의 운동이 지루하고 단조롭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블랜크스는 "그런 사형들은 지도자에게 달려있다. 지도자는 그 운동에 생명을 줄 수 있다"고 대변한다.

그의 이력서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블랜크스는 그의 실적과 그의 명성을 수호하는데 익숙하다. 그는 몇몇 과거의 사업 동업자들에게 비난 받아왔다. 그의 전 매니저는 블랜크스의 이력서에 서술되어있는 것과 같이 7년이 아닌 겨우 2년간

이 세계챔피언이 되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의 이력서는 정확하지 않다고 말한다. 블랜크스는 이것은 세계타이틀의 의미를 어떻게 정의하나에 달린 문제라고 말한다. 여러 개의 다른 단체가 세계챔피언 대회를 후원한다. 그리고 블랜크스는 자신은 7개의 세계 챔피언십을 따냈고 10개의 국내 챔피언십을 따냈다고 말한다.

AAU(미국체육회) 가라데 회장은 "그가 여러 번 AAU 가라데 챔피언이 됐었다"고 말한다. "그는 실제 천하무적입니다. 그는 내가 본 최고의 운동선수입니다."

블랜크스는 그를 개인적으로 비난해왔던 사람들에게 대해 논의하는 것을 피한다.

"사람들은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게 마련이죠."라고 말한다.

집안 일

블랜크스에 있어 '태보'는 집안 일이나 다름없다. 그의 아내 게일은 그의 파트너이다. 그의 딸 셸리즈는 강사이자 그의 비디오에션 스타이다. 그리고 그의 책에는 동작을 시험보이는 그녀의 사진이 실려있다. 그의 아들인 빌리 2세 또한 '태보'를 가르친다. 그리고 블랜크스의 세 형제는 그의 밑에서 일한다. 그의 성공은 웨스트 힐즈와 홈비에 4000평



▲「태보」에는 복싱의 다리돌리거나 잼, 스트레이트 등 복싱의 여러 동작이 끼어 있다.

방 피트의 지중해식 가옥을 그에게 안겨주었다. 그는 그가 다니는 교회에 관대하게 현금하고 장학금과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였다. "나는 신에게 그의 몫을 먼저 바친다."고 그는 말한다.

블랜크스는 누구를 감동시키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말한다. 그는 과거와 똑같은 사나이이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예요."

그리고 그가 사람들을 돕는 것은 「태보」를 가르치는 것이다. "나는 죽는 날까지 이 일을 할겁니다."

에어로빅스의 운동효과는?

일반적으로 에어로빅스는 8주 동안 계속하면 그 효과가 나타난다. 운동효과라 불리는 변화는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에어로빅스의 운동효과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① **폐의 효율향상** - 폐의 기능이 좋아져서 조금 힘을 쓰면 많은 공기를 받아들이고 내뿔을 수 있게 된다. 한마디로 많은 산소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다. 지구력이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의 두배이나 되는 공기를 처리할 수 있어 몸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 생산도 높다.

② **심장의 강화** - 심장이 박동할 때마다 내보내는 혈액이 많이 늘어난다. 게다가 1분 동인의 심박수는 감소해 지구력이 강한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안정시 매분 20차례나 적다. 이것은 하룻밤 자는 동안 약 1만 차례 정도의 심박수가 절약됨을 뜻한다. 반대로 지구력이 약한 사람은 언제나 충분히 산소를 공급하려고 마구 심장이 두근거려야 한다.

③ **혈관수의 증가** - 체력이 생기면서 수많은 모세혈관이 새로 태어나고 혈관은 굵어진다. 이 때문에 혈액이 온몸 구석구석까지 충분히 보급되어 산소도 이 혈

액을 따라 운반되기 때문에 각 조직에서 충분한 에너지 생산이 이루어진다.

④ **근육·혈관의 탄력성** - 약하고 밀도 낮은 근육이 팽팽한 조직으로 변한다. 그 결과 체중의 변화 없이도 몸은 강건해진다.

⑤ **산소의 운반 공급효율의 상승과 최대산소 소비량의 증가** - 이 결과 온몸의 상태는 좋아져 특히 가장 중요한 폐, 심장, 혈관계가 강화되어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강해진다. 이상에 밝힌 운동효과는 실제로 수립된 과학적 데이터로부터 나온 것이며 이밖에도 마지막으로 주관적 색채가 강화되는 하지만 반드시 끝이 아닐 운동효과를 또 하나 꼽아야겠다.

⑥ **인생관의 변화** - 정신적인 안정을 얻게 되면 모든 일에 자신이 생긴다.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에도 잘 견뎌낼 수 있게되고 잠도 잘 자게된다. 조금 힘든 직장 일도 끄덕 없이 소화해낼 수 있고 일을 하더라도 피로가 쌓이지 않는다. 육체의 변화가 정신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인생관조차 변화시키게 된다.

결론을 말한다면 적극적인 운동으로 최대산소공급력을 높이는 것이 인생을 이겨나가는 길인 셈이다.



태권도와 나

임혜련

태권도학과가 있는 대학 학보 편집장의 글

(웅인대학교 대학신문사 용인춘추 편집장 · 환경보건학과 3)

세계화에 성공했으나 대중화 위해 노력해야

국민스포츠, 국기라고도 하는 태권도에 관한 기억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이다.

특히 남자들은 태권도와 관련되지 않은 일을 하고 있어도 어렸을 적에 흥얼처럼 너도나도 태권도장에 다녔었고, 몇몇 여자아이들도 호신술로 남자아이들 틈 속에서 도장에 다녔다.

태권도를 미처 배우지 못한 남자들은 군대에 가서도 훈련을 받아야 하니 과연 종주국답게 태권도의 파장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하물며 운동에는 소질도, 관심도 별로 없는 나도 '88 올림픽 때 그 넓은 운동장에서 도복으로 정갈하게 빼 입은 청년들이, 도미노가 쓰러지듯이 기왓장을 격파하는 모습을 보았을 땐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렁거렸었다.

내가 한국인임을 잠시나마 뿌듯하게 느끼고,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그들의 주먹질이 멋져 보였다.

또한 시범단이 동작 하나하나를 펼칠 때마다 관중들을 열광하게 만들며, 칼 끝에 매달려 있는 사파를 아슬아슬하게 격파시키기라도 하면 그 순간이 주는 긴장감에 남몰래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했다.

태권도는 우리나라를 대변할 수 있는 하나의 상징으로 세계 속에 각인되었고 많은 외국인들도 우리의 태권도에 열광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태권도계의 보급에 대한 노력은 전 세계 구석구석에 퍼져나가지 않은 곳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태권도의 모습은 무엇일까? 지금까지 회상했던 부분도 태권도가 한창 보급되던 전성기의 모습이고, 지금의 우리가 바라보는 태권도도 그 때의 시범단이 보여주는 격파예술이 아닌가? 왜



태권도 경기는 다른 운동종목과는 달리 체육관을 가득 매우며 경기를 관람하고, 밤을 새며 TV중계를 시청하지 않을까?

축구나 야구와 같은 종목에 많은 국민들이 열광하고, 유도, 레슬링 같은 종목도 손에 땀을 쥐며 극적인 드라마를 연출하는데 태권도 경기에 대한 설레임은 전혀 기대할 수 없다.

간혹 채널을 돌리다가 태권도 경기를 접하게 되더라도 재미를 느낄 수가 없다.

시범단의 격파나 품새, 태권무 시범에서 발견했던 진취적인 기상은 보이지 않고, 누가 이기고 졌는지 잘 분간할 수 없는 시험만이 자리하고 있다.

또한 '발놀림이나 공격횟수로 미루어 짐작할 때 이 선수가 이기겠구나' 하던 나의 생각은 문외한으로서 주체담았음을 깨닫게 되고, 더 이상의 미련없이 채널을 돌려버리게 된다.

태권도와 대중화의 괴리. 그 시작은 어디부터일까?

1960년대 초, 태권도 경기가 시작되면서 약 40여년

만에 세계속의 태권도로 자리매김한 활발한 해외 교류는 타 무도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빠른 것이었으며, 동시에 양적으로 팽창, 전세계에 태권도를 배우지 않는 나라는 없을 정도가 됐다.

세계 구석구석까지 훌륭한 지도자들이 태권도의 위상을 세우며 '한국'이라는 국가적 이미지에도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각각의 다른 특성을 지닌 두 개의 단일문화가 만나 복합적인 새로운 문화를 탄생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을 것이다.

태권도는 경기화를 통해 보급을 확대하고 기술을 발전시키며 중주국으로서의 세계적인 위상도 획득했고, 또한 그러한 진행과정도 비교적 순탄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태권도가 세계화에 성공하며 올림픽 종목에 채택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두었지만 일반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기 등 품새가 차지하는 면이 크다.

하지만 경기는 겨루기로 진행되어 관객액이나 시청자, 국민들의 요구에는 부응하지 못하는 점이 있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득점과 승패를 가리는데 있어 반드시 확보해야 할 객관성이다.

경기를 시청하다 보면 득점의 원칙은 정확하고 과격하게 공격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판단기준은 호구복에 부딪쳐 들게 되는 소리 정도가 아닐까 판단된다. 실제로 과학적인 측정방법보다는 심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 있는 애매모호한 경기규칙 때문에 원칙에 따른 승패에도 '혹 중심의 대량권 때문이다'라는 불신감이 조장될 우려가 많다.

규칙에 있어 좀더 객관적인 틀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중주국인 만큼 기술력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기술개발과 체력이나 정신력을 길러 발전에 발전

모든 국민이 태권도를 생활체육으로 삼았으면 중국의 태극권 못지않게 널리널리 퍼져야

경기에 열광하는 관중들은 흥미와 객관성을 따지며 호응하게 마련이다.

다른 관람 요소들도 많겠지만 보편적인 감정에 의존하여 태권도가 놓치고 있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일단 태권도 경기에선 역전이 없다. 아니 있다고 할 지라도 경기진행은 전혀 재미가 없다.

다른 종목과 비교하여 태권도가 가지는 절대적인 가치기준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농구를 보면 3점 슛이 가져다주는 드라마틱한 역전도 곧잘 연출되곤 하는데 태권도는 단일특점제라 어떠한 기술을 사용하든지, 신체부위 어디를 공격하든지 간에 1점 밖에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경기를 우위에서 진행하던 선수가 그대로 승자가 되는 확률이 높으며, 더 화려하고, 더 좋은 기술을 이용하려는 동기를 부여하지 못한다.

다만 중심을 안정하게 이동하여 발을 내치르는 단순한 기술을 자주 사용하게 되어 역전의 가능성이나 스릴감은 희박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태권도 하면 막연히 떠올리는 기억이나 기대감은 격파시범이랄지 하늘을 향해 쪽 뺨은 발차

을 거듭하고 있는 외국의 도전을 막아낼 수 있도록 항상 연구하고 대비하며 태권도를 한차원 높게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태권도는 우리나라를 알리고 이해시킬 수 있는 하나의 문화이다.

중주국으로서 모든 국민이 태권도를 생활체육으로 즐기며, 정신적인 모체를 기대하고 배우러 오는 외국인들에게 우리가 기술 말고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태권도에 우리 민족의 얼을 담고, 문화를 나타낼 수 있는 끼리를 만들어야 한다.

가끔 중국의 천안문 광장에서 무리를 지어 진지하게 태극권을 수련하는 중국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중주국인 만큼 국민들의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언론매체의 홍보가 아쉬울 때이다.

동네 야수터에서 즐넌기가 아닌 태권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국민들을 상상해보며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는 전세계인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태권도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태권도
동아리 탐방

24

국민대학교
태권도부

보여준 것보다 보여줄 것이 더 많은 동아리



신선함과 패기가 느껴지는 태권도 동아리 부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국민대학교
KOOKMIN UNIVERSITY

대학 태권도 동아리를 취재해 오면서 많은 학생들을 만났고 많은 경우를 접했다.

동아리 역사가 50년이 넘는 학교에서부터 90년대 이후 생겨난 동아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사적 연원을 가진 이들 동아리는 함께 한 시간

이 길건 짧건 간에 제 나름대로 독특한 분위기를 갖고 있었다.

오래된 동아리는 오래 되어서 좋은 맛이 있고 또 생긴 지 얼마 안된 동아리는 그 나름의 신선함과 패기를 갖고 있어 좋았다.

이번 호에서 만나려고 하는 국민대학교 태권도 동아리는 후자의 경우에 속한다. 93년 설립되어 올해로 7기째를 맞는 이 동아리의 면모를 들여다 보며 30여명의 젊음이 어떻게 또 하나의 가능성을 만들어 가는지를 지켜 보기로 한다.

93년 동아리 설립, 96년 감동의 입방

취재를 위해 모여 앉은 자리에서 한 부원은 국민대학교 태권도부가 이제까지 취재한 다른 동아리

들과는 조금 다를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무슨 소릴까 싶어 물어봤더니 다른 학교 동아리들은 전통이 오래 된 학교도 많고 행사도 다양하고 대회 참가 경력도 많지만, 생긴 지 7년 밖에 안 된 국민

국민대 태권도부

승리인 것이다! 비록 그나마 택견과 방을 함께 쓰고 있기는 하지만 부원들은 마냥 좋기만 하다. 사실 거의 이들의 공간이기 때문.

아침 7시 30분에 모인다!!

이들의 헝그리 정신을 확실히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바로 훈련시간.

새벽부터 일어나 아침 밥도 못 챙겨 먹고 멀게는 부평에서 두 시간 씩이나 걸려 학교로 오는 이들. 학교에 도착해 아침 7시 30분에 학교 체육관에 모이는 이유는 바로 태권도 수련 때문이다.

사실 아침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헝그리(?) 하게 수련을 하는 진짜 이유는 다름이 아닌 바로 장소 문제 때문이다. 부드러운 매트가 깔린 유도장이 있기는 하지만 사용이 여의치 않았다.

따로 태권도 수련장이 없는 관계로 체육학과가 사용하는 체육관을 함께 이용하다 보니 집중도도 떨어지고 효율성이 없었던 것. 그래서 사용 시간대를 달리하는 발상의 전환을 해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나름대로 획기적이었던 이 발상을 그대로 실천해 옮기는 데는 어려운 점이 많았다. 1주일에 2~3천 자율적으로 훈련에 참가한다는 비교적 자유스러운 기본 원칙이 있기는 하지만, 공부하랴 대학 생활 즐기랴 정신 없이 바쁠 젊음들에게 아침 훈련은 분명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전화위복, 위기를 기회로 생각하는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젊음의 정신 하나로 이들은 아침 훈련에 잘 적응하고 있다. 참말 헝그리 정신의 승리



▲95년 제 1회 연무시범에서 고공 3단 앞차기 시범을 보이고 있는 조하민(94학번).

대 태권도 동아리에게는 이리저러 하다는 식의 '말의 성찬'을 늘어놓을 만한 것이 없다는 것. 대신 이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향보다는 내실을 다지기 위한 작업에 더 열심이라고. 이어지는 부원들의 여러가지 이야기를 들으며 이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다.

92년 체육학과와 태권도 부원들이 선보인 연무 시범을 지켜보던 학생들 중 평소 태권도를 수련하고 싶어했던 학생들이 고학번을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한 것이 동아리의 시발점이다.

처음에는 체육학과에 가서 함께 운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운동이 이뤄졌고 93년에 10여명 정도의 부원들이 태권도 동아리를 만들게 되었다. 여기에는 체육교육학과 김도연 지도교수의 도움이 컸다고.

94년에는 3~40명이 모일 정도로 1년만에 규모있는 운동 동아리로 성장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동아리 방이 없어서 운동 시간에만 체육관에서 얼굴을 보고 훈련하고 헤어지는 수준이었다고 한다.

93년부터 몇 년 동안 이런 눈물없이 볼 수 없는(?) 가슴아픈 헤어짐이 있는 끝에 이들은 드디어 96년 감동의 입방식을 갖게 된다. 성실한 자세로 훈련에 임하고 장소가 없어도 부지런히 땀 흘린 이들의 열정에 하늘도 감복한 것일까. 학생회관 4층에 마련된 보금자리에 들어서면서 이들이 느꼈던 감동은 지금까지도 쉽게 잊혀지지 않는 보람찬 기억이다. 쉽게 동아리 등록을 하고 쉽게 자신들의 공간을 확보했다면 결코 느낄 수 없는 헝그리 정신의



▲96년 처음으로 연무시범을 학우들 앞에서 선보이게 된 태권도 부원들의 모습. 진땀 긴장된 모습이다.



▲품새시범을 선보이고 있는 부원들의 표정이 시뭇 진지하다.

라 아니할 수 없다.

어렵기만 할 것 같았던 아침 훈련이 시간 활용의 측면에서 대단히 유용한 것임을 깨닫게 된 요즘, 이들은 동아리 초창기 멤버로서 느끼는 애로 사항을 조금씩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얻고있다.

사람들이 태권도 동아리로 모이는 이유?

인터뷰 자리에 함께 했던 부원들 중에 특이한 경우가 있었다. 검도부에 적을 두고 있는 99학번 기초과학부 박승혁은 검도부원임에도 불구하고 태권도 동아리의 모임에는 빠지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뭘

터한 했수이긴 하지만 태권도 동아리에게 있어 그의 존재감은 그만큼 깊다. 많은 선배와 후배들을 대하면서 늘 웃는 모습이었던 그에게 동아리 부원들은 아낌없는 신뢰를 보내주는 듯 하다.

물론 “귀엽게 말하려는 경향이 있어요.”라는 어느 여자 부원의 폭로(?)에 모두들 “맞어 맞아” 하며 웃기는 했지만...

동아리 사범을 맡고 있는 같은 94학번 국문과 조하민. 태권도 4단의 고단자인 그는 실제로 도장에서 아이들을 지도한 경험도 있는 ‘진짜’ 사범 출신이다. 평상시 후배들에게 잘 해주는 선배지만 훈련 때는 카리스마를 발휘하여 영락없는 호랑이 사범님으로 돌변한다고 한다. 훈련하다가 기암을 받았다는 한 후배는 그래도 조 사범이 국문과에서 수석을 한 대단한 선배라면서 자랑스러워 했다.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에게 부원들은 그의 카리스마를 인정하는 것으로 동의를 표시했다.

같은 94학번 경영학과 문일웅. 인터뷰 내내 재치있는 웃음으로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이끌던 그는 회계사 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이다. 비록 매일 매일의 아침 수련에 참가하지는 못하지만 틈틈이 후배들을 즐겁게(?) 해주며 동아리의 분위기 메이

나름대로 신선함과 패기를 가진 젊음들 93년 동아리 설립, 올해 7기째 부원들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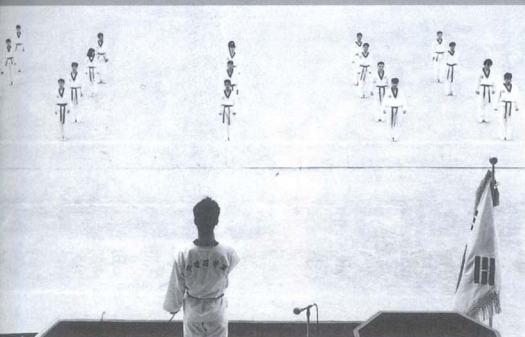
까? 혹시...스파이? 하나 숨길 것 하나 없는 투명한 태권도부에 무슨 스파이냐고 한다면 할 말은 없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대체 뭘까? 답은 아주 간단하다. 그냥 ‘사람들이 좋아서’ 다. 오히려 다른 부원들보다 더 열심히 동아리 방을 지킨다는 승혁에게 부원들은 하나같이 기특하다는 듯한 눈길을 보내고 있었다.

그리고 5년간 회장을 맡고 있는 94학번 경영학과 강홍주. 친구따라 동아리에 들어왔다가 시원하게 내지르는 기합소리에 반해서 학창시절을 태권도와 함께 하게 된 경우다.

5년이란 그가 군대에 가 있던 시간까지 장난삼아

키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한다고 한다. 역시 같은 94학번 수학교육과 이선옥. 다른 동아리에 가장 잘 알려진 태권도 동아리의 대모다. 동아리 후배들과 졸업한 선배들을 이어주는 연락책이라고나 할까. 그 역시 졸업생으로서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지만 동아리 행사라면 빠지지 않고 달려와 후배들을 격려하는 의리파다.

96, 97년도에 동기들이 모두 군대에 가는 통에 동아리의 공동화(空洞化=아무 것도 없이 텅빈)현상이 벌어졌을 때도 늘 동아리 방을 지키고 있어서 다른 동아리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동아리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다. 그래서인지 선배와



▲95년 연무시범을 위해 대운동장에 도열한 태권도부원들.

후배가 함께 하는 자리가 더욱 활성화 되었으면 한다는 애정어린 충고도 정겹게 들린다.

한쪽 구석에서 말없이 웃기만 하던 96학번 경영학부 최동기는 초등학교 때 배웠던 태권도를 제대로 해보고 싶어 동아리에 가입한 일반적인 가입 동기를 갖고 있었다.

후배들은 그에 대해 멋있다. 술과 당구를 잘 한다고 이야기 했지만 본인은 그저 웃기만 했다. 같은 학과, 같은 학번 김대환. 이번 학기에 처음 동아리에 가입했다는 그는 졸업할 때까지 2단을 따고 싶다는 착실한 바람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98학번 전자공학부 우영미. 현재 태권도 2단인 그녀는 1학년 때 태권도와 테니스 사이에서 갈등하다 테니스부에 가입해 활동했었다. 그러다가 태권도부에 와서 보니 앞으로 부흥(?)할 것 같은 조직이 느껴져 함께 하게 됐다고 예쁘게 웃었다. 자신이 속한 집단의 비전을 공유한다는 것이 그 집단뿐만 아니라 구성원의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부흥의 조직을 함께 느낀다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다.

이제 1학년들 이야기. 부사범의 중책을 맡고 있는 경영학부 윤현민. 2단의 실력을 가졌기에 부사범으로 발탁이 되었지만 어린(?) 나이에 훈련을 보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1년간 열심히 해서인지 어떤 무게감이 느껴졌다. 충무를 맡고 있는 전자과 박신재는 뛰어난 발차기 실력으로 부원들 사이에 각인되어 있었다.

회계를 맡은 경영학부 백경민은 유난히 이 동아리에 많은 '민'자 돌림 중 유일한 여성이다. 무용하듯 하는 동작 때문에 별명이 「택견」이지만 뭔가 할 수

있다는 성취감을 맛보고자 태권도 동아리에 가입한 만큼 열심히 분발해서 불명예를 벗어보고자 한다고. 「버섯돌이」라는 별명이 잘 어울리는 도목환경공학부 석정민. 자유스럽고 인간적인 분위기가 좋아 태권도 동아리를 사랑하노라는 그는 장난스럽고 노는 걸 좋아하지만 그 속에 열정이 담겨 있다는 선배들의 애정어린 평가를 받는다.

또 법학부 김종기와 김정훈은 2학기에 가입했지만 편안한 동아리 분위기에 아주 만족하고 있다고. 김종기는 3단의 실력을 갖고 있는데 집중해서 공부하기 위해서도 태권도가 좋은 운동이라고 소개. 경영학부 여은애는 노래도 잘하고 장학생에다가 합기도까지 했다고 사방에서 한마디씩 해주느라 정신이 없었다. 동아리 지면에 다 소개하기도 벅찰만큼 이들의 서로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 없었다.

이제까지 해온 일보다 앞으로 할 일이 더 많다는



▲아침 일찍부터 태권도 수련으로 심신을 단련한 부원들이 자랑스럽게 단체촬영을 했다.

것은 생각해보면 아주 신나는 일이다.

동아리 인준을 받기 위해 함께 애쓰며 준비했던 95년 연무 시범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는 94학번의 고성담을 들으며 후배들은 비록 현재 부족한 것이 많지만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것을 믿는다. 그 믿음이 이들에게 힘을 주고 서로 의지하게 한다. 이 동아리가 30년쯤 후에는 어떤 모습일까 즐겁게 상상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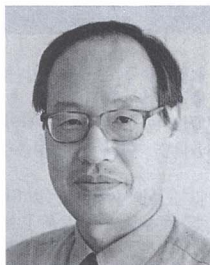
〈정순영 프리라이터〉

역사 향기가 깃든



〈연재 제 20회〉

태권도 백과



이 경 명

(충청대 스포츠외교과 교수)

『태권도 한마당』이 걸어온 길

‘태권도 한마당’이란 행사가 창설된 지도 벌써 8년째, 20세기를 마감하는 제 8회 태권도 한마당이 올하는 새 천년을 앞두고 7년을 총결산하는 의미로서 행사의 주최와 성격에서 변화를 가져왔다.

그 첫째로 대한태권도협회와 국기원이 뒤늦게 공동 주최한다는 것.

두 번째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형식의 문호가 ‘참가자격’이라는 제한성을 부여했다는 것, 세 번째는 수상자들에게 인증서 및 상금 등 특전이 부여됐다는 것이다.

‘태권도 한마당’이란 달리 표현하자면 ‘태권도의 정수를 펼쳐는 큰 마당’이란 뜻이다.

‘한’은 크다, 모든 것, 또는 하나 등 여러 가지 뜻을 함의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큰’ 대(大)의 의미에 해당하고 ‘마당’이란 집의 앞뒤나 어떤 곳에 닦아 놓은 탄탄하고 평한 땅 또는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일을 당하는 그때 등을 함의하는 것으로 봐서 태권도 정수를 신명나게 펼쳐 흥취를 만끽하는 큰 잔치를 의미한다.

태권도인의 신명나는 큰 잔치 판을 들여다보며 우리 태권도인은 진정 태권도 발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누구를 위해 일해 왔는가를 더듬어 보자.

태권도 한마당의 배경

태권도 한마당의 창설 배경은 태권도의 구성 요소 중 겨루기의 스포츠 일반화에 대한 우려에서 출발한다. 겨루기의 스포츠화는 무도로서 태권도의 본질을 희석시키는 작용을 하며 특히 일반인들이 갖는 태권도의 편견적 인식에 적잖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으며, 보다 태권도의 본래적 정신 수양(품새)과 그 정신의 기적(氣的)인 현상(격파)을 태권도인의 마당을 통해 태권도의 본래적 모습으로 돌아가 경연자들의 기량을 가늠하고 일반인에게 태권도를 생활체육으로 선양하자는

포괄적 의미를 찾아 볼 수 있다.

당시 협회 전무이사 강원식(현 태권도신문사 사장)은 6개월 동안 고뇌 끝에 ‘태권도 한마당’의 행사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먼저 ‘태권도 경연규칙’에 착수한다.

그리고 그 시기를 12월로 정하고 행사에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해 후원자 모색, 행사의 격조를 감안해 고수의 시연, 태권무 시연, 남녀노소의 균등한 참가자, 관객동원을 위해 티코 자동차(독일 권 스포츠사 후원) 1대를 비롯, TV 등 푸짐한 경품 마련 등 세심한 중지(兼智)가 협회 임원들의 노력으로 꽃피우게 되었다.



▲태권도 한마당에는 어린이부터 70대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가 참가한다. 사진은 97년도에 인천 노인대학 할머니들이 태권체조를 보이며 건강한 모습을 자랑했다.

태권도 경연규칙

대한태권도협회는 1992년 6월 1일자로 품새 및 격파에 대한 태권도 경연규칙을 제정했다. 총칙 16조로 제정된 경연규칙의 제 1조 (목적)는 이 규칙은 본 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모든 태권도 경연대회 (품새 및 격파)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타당한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경연에 대비하는 선수 및 지도자들을 위한 올바른 지도 방향을 설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간의 규정변화는 건강품새가 태권체조, 고난도 기술격파가 종합격파로 바뀌었고 잠시 시범겨루기가 채택되기도 했으며 호신술종목이 추가되었다.

이 경연규칙은 해를 거듭함에 따라 제반 규정이 세분화, 명료화되었다.

태권도 큰 잔치로서 「92 태권도 한마당」

힘과 기를 겨루는 태권도의 큰 잔치 '92 태권도 한마당'의 특징은 "엘리트 선수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겨루기 중심의 일반대회와 달리 태권도를 즐기는 동호인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도록 품새와 격파를 주로 한 경연대회"라는 점이다.

"협회는 연간 10여 차례나 개최되는 모든 대회에

서 겨루기 부문만 실시됨으로써 일반인들에게 태권도의 전체적인 개념을 왜곡시킨다는 지적과 국민들의 생활체육적 가치를 홍보해야 한다는 일선의 요구에 부응하여 이 대회를 창설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모두 함께 만드는 태권도 큰 잔치는 품새, 격파 경연대회로서 가능한 많은 동호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소년부(초·중), 청년부(고·대 35미만 일반), 장년부(35세 이상), 여성부(고교 이상) 등 4개 부로 나누어 품새와 격파경연을 실시키로 하고 품새경연은 일반, 창작, 건강품새 부문으로 구분, 그리고 격파도 위력을 중심으로 하는 부문과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했다.

격파경연에서는 주먹, 손날, 앞차기, 옆차기 등을 이용한 위력격파와 높이뛰어차기, 멀리뛰어차기, 고난도 기술격파 등의 기술격파로 나누어 실시했다.

감동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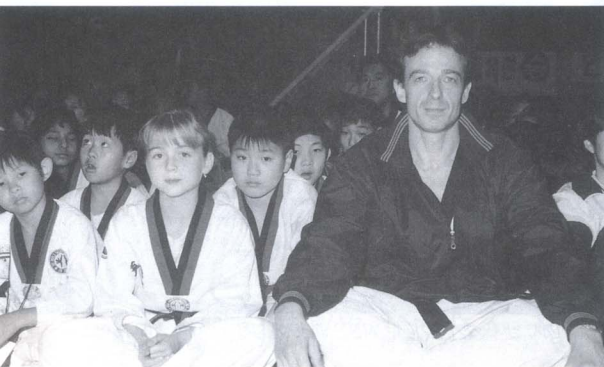
태권도 경연대회에는 5살의 어린이로부터 여든 살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출전. '힘과 기, 정신력의 조화'를 이룬 명실상부한 태권도 한마당이였다.

백혈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던 태권소녀 이명순 양이 건강을 되찾고 한마당잔치에 나와 태권도인들

에게 감사의 인사말, 제 4대 태권도협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노병직 원로(당시 73세)가 미국에서 와서 품새를 보이며 무도인의 건강함과 정신력의 진면목을 보였고, 일본에서 태권무를 연구하는 범기철 사범의 태권무 '천지의 혼' 공연, 미동초등학교 어린이의 시범, 은광여고팀의 건강품새 등 시범은

다. 주제의식이란 한 국가의 헌법처럼 한마당행사의 본질과 의미를 규정하는 것으로 앞으로 열릴 한마당행사의 기본정신과 혼이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전통무예로서의 위상을 살린 우리 문화의 한 분야로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치어걸이 등장하고 서양밴드 소리가 난무하는 놀이판으로 갈 것인가를 지적하고 한국의 전통문화 가운데서 호응하는 태권도, 한국인들의 일상생활과 떨어져서는 생각할 수 없는 태권도를 만드는 것이 태권도 한마당이 추구해야 할 목표이고 전부"라고 하며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란 평범한 진리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줄 것이라고 했다.



▲해외에서 온 참가자가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태권도 한마당은 94년도에 한국방문의 해를 기념하여 국제대회로 격을 높혀 국내외 동호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뜻깊은 행사를 마련했다.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이었으며 율동적인 선과 그선이 자아내는 미(美)와 기(氣)는 신선한 감동을 안겨줬다. "절도있고 힘찬 품새, 태권도의 위력을 한눈에 보여준 격파를 통해 무도로서 태권도의 가치를 보여주었고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

국민일보 체육부 기자 서완석은 태권도지 92년 겨울(제 83호)에 기고한 글에서 "태권도사에 중대한 획을 그은 태권도 한마당"이라 평하며 "뚜렷한 주제의식으로 향후 방향 정립"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먼 훗날, 전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한국 문화의 일부로서 태권도가 제모습을 갖췄을 때, 오늘의 이 태권도 한마당은 그 주춧돌이었노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싶으며 말하고 싶다."며 어떻게 하면 한마당행사를 통해 무도로서의 태권도를 되살리고 생활체육으로 가까이 다가 갈 수 있는가 향후 태권도 한마당의 발전방향에 대해 언급하며 우선 태권도 한마당의 주제의식이 명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품새 경연의 내용과 구성

품새 경연은 일반 품새와 창작 품새 그리고 건강 품새로 구분, 제 1회 태권도한마당에서 실시되었다.

일반 품새란 현재 수련하고 있는 유급(품)단 품새를 누가 절도있고 힘차게 잘할 수 있는가를 경연했다.

창작 품새란 새롭게 창작한 품새를 경연하는 것으로 기존품새와 유사한 형태로 일선에서 활용할 수 있는 품새로서 기존품새에 포함되지 않은 맨손공방 또는 무기를 든 상대와의 공방기술로 구성할 수 있으며 태권도 동작 원리에 부합되면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았다.

그리고 건강품새는 태권도 수련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품새와 창작품새의 구성과는 달리 일반인이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쉽게 태권도에 접근할 수 있는 동작으로 하는 것으로 태권도 동작을 위주로 하되 형태는 전신운동으로서 생활체육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연시간은 2~3분으로 제한하며 필요시 음악 또는 음향효과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제 3회 '94 태권도 한마당부터는 건강품새의 명칭을 '태권체조'로 바꾸었다.

제 3회 태권도 한마당 '94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주최

'94 한국방문의 해를 기념하여 한국관광공사와 공

동으로 주최한 제 3회 대회는 그동안 태권도 동호인을 대상으로 경연대회를 펼친 것을 벗어나 처음으로 국제대회로 개최되어 국내의 태권도 동호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뜻깊은 행사였다.

해외에서는 미국을 비롯, 12개국에서 168명의 선수단이 참가했다. 국제대회로 도약한 이 행사는 해외

상자, 그리고 경연자 대표로 선서를 해 관중들로 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태권도 세계화를 위한 학술세미나 개최

대한태권도협회는 태권도 세계화를 위한 학술세

남녀노소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생활체육대회 겨루기 위주에서 벗어나 품새와 격파 경연도

동포 및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방문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관광상품으로써 기틀을 잡았다.

그리고 해외선수단의 기량이 중주국 태권도인들보다 빠지지 않음으로써 국내 태권도인들을 놀라게 했다.

제 1회 태권도 사진 전시회 개최

대한태권도협회는 일간스포츠와 공동주최로 제 1회 태권도 사진 전시회를 개최하여 태권도 한마당 '94 경연대회가 펼쳐진 잠실학생체육관을 찾은 많은 관중들에게 태권도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스포츠 문화 창달에 기여했다.

전시된 사진은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서의 태권도, 태권도의 예술적 가치가 높은 사진 및 태권도의 역사적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은 사진들이 망라되었다.

태권도 사진 전시회는 우리의 자랑스런 전통문화의 현대적 계승과 태권도의 힘과 기와 미를 보여줌으로써 태권도의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고 태권도 문화의 세계화를 이루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평가였다.

73세 김순철 씨, 경연자 대표로 선서

태권도 4단 보유자이며 73세의 할아버지인 김순철 씨는 제 4회 태권도 한마당 '95 경연대회 개막식에서 국내외 태권도 동호인 1,573명이 출전한 경연자 대표로 선서하는 영광을 가졌다. 노익장을 과시하며 태권도의 강인한 정신력을 모범으로 실천해 보여준 김순철 씨는 불광건민조기회 회원으로서 '92, '93, '94 태권도 한마당에 연속 출전하여 창작품새 우수상 수상자이다. 김씨는 최고령자, 창작품새 수

미나를 태권도 한마당 '95의 문화행사로 8월 25일 서울 뉴스타 호텔에서 개최하고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태권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이 학술세미나에는 많은 태권도 인사들이 참석해 진지하게 태권도의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을 했다.

'94 태권도 사진전



일 시 • '94. 11. 26(토)~28(월)
 장 소 • 잠실학생체육관
 시상식 • '94. 11. 26(토) 15:00
 주 최 • 타 권 스포 츠 대한태권도협회
 후 원 • 문화체육부, 대한체육회, 한국사진기자회
 협 찬 • OASIA나랑 Kodak

▲94년도 태권도한마당대회 때는 태권도의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고 태권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사진전시회를 가졌다. 사진은 사진전시회 팸플릿.



▲96년도 태권도 한마당에서는 문화행사로 태권도 세계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태권도의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했다.(사진은 개회식 인사말을 하고 있는 고 홍중수 상임부회장의 모습)

“태권도의 세계화”를 주제로 기조강연은 정찬모 교수(단국대)가 하였고 “태권도 교육의 세계화로 영구 올림픽 종목 채택”(장주호 박사), “태권도 경기의 개선방향”(성낙준 교수), “민간의교와 태권도 문화창달” (고두현 전 서울신문 체육부장), “태권도

고수회의 기본정신은 먼저 ‘종교 및 관의식을 초월하며, 지역주의, 물질, 배움의 높낮이에 얽매이지 않는 태도와 마음을 기초로 삼고, 형제의 정으로 맺어진 것이니 불변하며 고수회의 일원으로서 실력과 명예와 정도의 품행을 다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고수회는 큰 길을 굳게 걸어가는 무도인으로 연구하며 몸소 실천하는 행동철학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95년 말부터 시작한 교본 작업도 태권도 사랑의 한 마음으로 태권도에 관한 모든 것을 해외에까지 널리 알릴 수 있는 제대로 된 교본이 필요하다는 뜻의 결실로서 ‘태권도교본’을 97년 11월 상재했다.

역대 태권도 한마당 현황

제 1회 태권도 한마당 '92 : 12월 9일~11일 올림피아공원 펜싱경기장 392명 1,346명 참가

제 2회 태권도한마당 '93 : 11월 27일~29일 KBS 88 체육관 296명 627명 참가

문화행사로 사진전, 학술세미나 열려 올 행사는 국기원 주관으로 왕중왕 선발대회

의 해외보급과 세계화”(고의민 제독 사범) 등 각 주제의 발표가 있었다.

한마당대회 통해 ‘고수회’ 결성

고수회란 명칭은 한국 태권도 고수회의 약칭이며 ‘태권도 한마당대회’에서 배출된 고단자들의 이색적 모임으로 94년 12월 10일 강신철 사범을 주축으로 결성되었다.

10인의 고단자로 결성된 고수회는 한마당대회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이 대회에서 배출된 많은 인재를 모아 무예, 무도정신이 깃든 태권도의 혼과 진수를 새로이 개발하자는 뜻에서 출발했다.

제 3회 태권도 한마당 '94 : 11월 26일~28일 잠실학생체육관 1576명(국내 1,408명, 해외 12개국 168명)

제 4회 태권도 한마당 '95 : 8월 26일~28일 KBS 88 체육관 1571명(국내 1,410명, 해외 13개국 161명)

제 5회 태권도 한마당 '96 : 11월 29일~12월 1일 KBS 88 체육관 1,897명 (국내 1,892명, 해외 31개국 200명)

제 6회 태권도 한마당 '97 : 11월 27일~30일 잠실학생체육관 2,410명 (국내 2,159명, 해외 13개국 215명)

제 7회 태권도 한마당 '98 : 7월 31일~8월 2일 올림픽 제 2체육관 2,773명(국내 2,635명, 해외 12개국 138명)

격파는 인간의 한계성에 대한 도전

격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강신철 고수(고수회 회장)는 “격파는 태권도 수련의 총체”라며 “스스로 태권도 기술연마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술”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태권도 3대 요소는 품새, 겨루기, 격파인데 일선도장에서 수련생들에게 격파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아 몹시 안타깝다고 했다.

격파는 주로 주먹, 손날, 발을 많이 사용하는 데 주먹 격파를 잘하기 위해서는 주춤지르기 연습부터 착실히 하고 발 격파를 할 경우에는 옆차기, 스트레칭, 근육운동으로 관절을 풀어주고, 손날 격파는 손목 강화훈련부터 쌓은 뒤 격파에 들어가야 한다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태권도 한마당 '98에서 보여준 위력을 보면 주먹 격파는 기와 17매, 손날격파는 벽돌 3매, 발격파에서 뒷차기로 송판 7매, 멀리뛰어차기에서 장애물격파로 410cm, 높이뛰어차기에서 265cm, 그리고 종합격파부문에서 고난도기술로 3방 뛰어 뒷차기 등 놀라운 진면목을 기록했다.

제 8회 태권도 한마당 '99



▲태권도 한마당 '99 캐릭터인 '태룡이'.

대한태권도 협회와 국기원, KBS가 공동 주최하는 제 8회 태권도 한마당이 국기원 주관으로 처음으로 국기원에서 개최된다. 그리고 대회



▲우렁찬 기합소리와 함께 대리석을 격파하며 태권도의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는 주먹격파 모습.

의 성격도 바뀌어 지난 7년간의 역대 대회까지 각 부별, 종목별 개인 입상자 및 입상팀이 참가해 각 부문 금세기 최고의 왕중왕을 가려 뽐게 된다.

특히 우승자에게는 칭호에 걸맞은 인증서 및 시상품을 비롯, 100만원의 상금 또는 장학금, 승단기간 단축, 2000년 국기원 주최 무도경연대회 결승 진출권 등 각종 특전을 부여기로 했다고 한다.

이번 행사는 금세기를 결산하고 새 천년을 준비한다는 의미를 부여하며 기존 한마당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왕중왕 선발대회로 그 격을 한차원 높였다고 한다.

한편 국기원은 서기 2000년 'New Millennium, New Taekwondo'를 지향하는 새로운 태권도문화의 시연장을 준비하며 전세계 태권도장을 대상으로 하는 “국기원 오픈세계 태권도한마당 2000”을 준비하고 있다.

뒤늦게 공동주최로 참여한 국기원의 기획력이 국기원의 명성을 국내외에 드높이고, 국기원의 참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전세계 태권도인들은 기대하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역사속의 테권도소설



<연재 제 34회>

호로아 글 · 그림

받아들여지지 않은 두억시니의 건의

참으로 오랜만의 일이다.

동학군의 군사(軍師)라기보다 지리산패의 두령으로서의 두억시니가 그의 심복(心腹=마음놓고 믿을 수 있는 부하)인 족제비와 단 둘이 대화를 나누는 것은 정말 오랜만이였다.

그 동안 긴박한 상황변화가 숨들릴 사이 없이 이어지다 보니 두 사람이 속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적 여유마저 없었던 것이다.

전봉준이 동학군을 두 패로 나누어 한 패는 경천으로부터 판치를 넘어 효포 농치를 거쳐 공주를 치게 하고 또 한 패는 이인으로부터 북쪽으로 거슬러 올라가 공주를 공격하도록 명령을 내린 직후 두억시니와 족제비는 마주앉아 서로가 지니고 있는 정보를 교환했다.

두억시니의 막사 안에는 그와 족제비 단 두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없었는데도 말 못하는 사람들처럼 그들은 수화(手話=손짓으로 하는 말)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다.

대화의 내용이 매우 중요해 관군의 간자(間者=스파이)뿐만 아니라 동학군에게도 알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실패하고 말았네.』

복면 속의 두 눈에는 웃음을 머금고 있으면서도 두억시니가 손짓으로 표현한 첫 마디는 매우 어둡고 무거운 내용이었다.

『두령, 그러시다면 전봉준 장군이 두령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까?』

족제비가 놀란 표정으로 역시 수화로 묻는다.

잠시 허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두억시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네, 다른 건의는 모두 받아들였던 전봉준 장군이 이번만은 나의 건의를 외면하고 군이 공주 공격을 결정해버렸네.』

『.....』

『족제비 어떤가? 지금 공주를 지키려고 내려온 일본군은 대략 500명은 넘는 것이 아닌가?』

『두령 맞습니다. 공주와 그 언저리에 깔아 놓은 간자(間者=스파이)들로부터의 보고를 종합하면 500명은 넘습니다. 아마 600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짐작됩니다.』

승산없는 공주 싸움...

철수 건의한 두억시니

그러나 목숨 걸고 끝까지 싸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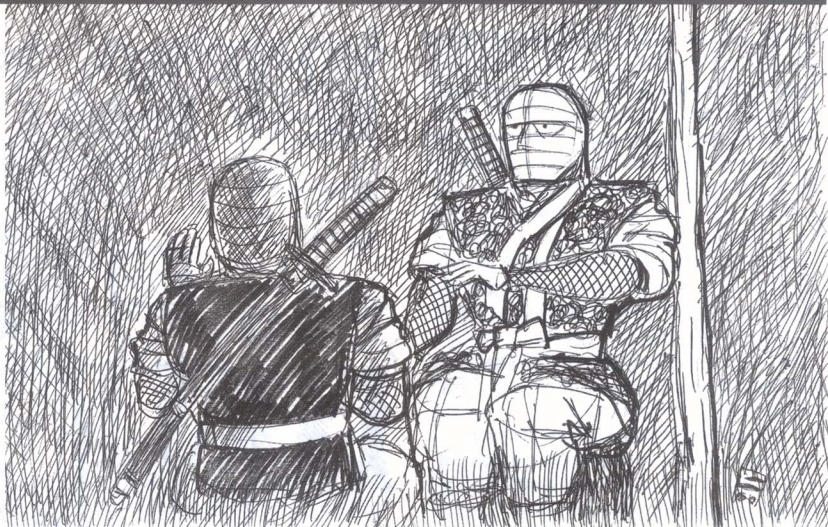
『600명이라...』

두억시니는 지그시 눈을 감더니 잠시 생각에 잠긴다.

『족제비, 그 600명의 일본군이 지닌 신식 화기(火器)와 수많은 관군에 맞서서 싸우려면 구식무기밖에 갖지 못한 동학군이 얼마나 있어야 되는지 아는가?』

『글쎄요,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 지금의 보급 2만명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닐세, 4~5만 명은 있어야 되네. 그것도 목숨을 초개(草芥=지푸라기, 곧 「하찮은 것」을 비유하는 말)처럼 여기는 4~5만 명이 있어야돼. 그리고 그 4



~5만 명이 야간기습의 실전경험도 지니고 있어야만 그 가운데 1만 명 가량을 희생시킨 뒤 겨우 이길 수 있네』

그러니까 두역시니는 목숨을 아끼지 않는 4~5만 명이 야간기습을 감행해서 그 가운데 1만 명 가량은 일본군 600명과 관군의 신식무기에 희생당할 것을 각오해야만 어렵사리나마 승산(勝算=이길 가망)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전봉준의 직속부대는 4천명에 불과했고 동학군은 전군(全軍)이 1만 명 정도인데다가 전투경험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세(戰勢=싸움의 형태)가 불리해지면 반수 가량은 도망가버릴 것으로 보아야하는 군사들이었다.

공주는 피해 서울로 올라갑시다

『그래서 공주는 피하고 우회(迂廻=멀리 돌아서 감)해서 서울로 진격하자고 전 장군에게 건의한 것인데...』

『두령, 전봉준 장군이 공주점령에 집착하는 까닭은 역시 풍수지리설(風水地理說=땅의 형세나 방위를 인간의 운수인 길흉화복·吉凶禍福과 관련시켜 설명하는 학설) 때문입니까?』

『그렇다네. 전 장군은 풍수지리설에 깊이 빠져 계

시네. 공주는 십승지(十勝地=피난하기 좋다는 열 군데의 땅) 가운데 하나로 옛부터 전해져 내려오고 있지 않은가. 또 공주를 함락시키면 설사 그 뒤에 서울진격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한동안은 공주에서 버틸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일세』

두역시니의 속셈은 공주를 피해 서울로 쳐올라가면 조정이 공포에 떨게되고 일본군도 당황하게 되니까 전국 각지에서 동학군뿐 아니라 일본세력을 몰아내자는 뜻을 가진 농민들이 일제히 들고일어나으로써 러시아 등 열강의 개입을 유도해 일본의 조선침략을 견제하려는 것이었다.

『두령, 그러니까 지금의 동학군 1만 명만으로는 도저히 일본을 몰아내기 어렵단 말씀입니까?』

『매우 유감이지만 그렇다네. 더구나 공주에 매달려 있다가는 더욱 전망이 어두울 뿐일세. 게다가 김개남 장군과 손화중 장군은 북상(北上)을 안하고 있으니 말일세』

그러니까 두령 두역시니가 이길 가능성이란 거의 없는 싸움에 목숨을 바치려고 하고 있는 사실에 즉제비는 가슴이 아팠다.

『두령,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면 일단 지리산으로 철수해서서 뒷날을 기약하시죠. 전봉준 장군이 두령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떠나실 명분은 충분하지 않습니까?』

족제비의 이 말에 두역시니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는다.

『두령. 그렇게 하시는 것이 이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족제비는 일본과 관군의 연합군과 동학군의 전력(戰力=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냉정히 비교평가하고 공주를 피해 바로 서울로 쳐올라가자는 두역시니의 건의를 전복준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매우 못마땅했다.

〈두령과 같이 뛰어난 안목(眼目=사물을 보아서 분별할 수 있는 식견)과 지략(智略=술기로운 계략)을 갖춘 인물이 또 어디 계시단 말인가. 전복준 장군은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구나〉

두역시니의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굳이 동학군에 남아 있어야될 까닭이 없다는 것이 족제비의 생각이었다.

『족제비 잘 듣게. 공주에서의 싸움에서 우리는 이기지 못할 거야. 아니 살아남기조차 쉬운 일이 아닐 거야. 그러나 비록 우리가 패배하더라도 이 전쟁을 포기할 수는 없네』

두역시니는 어린아이에게 타이르듯이 족제비에게 차근차근 이야기한다.

『전복준 장군이 이끄는 동학군 봉기는 설사 전쟁에 진다해도 역사에는 뚜렷이 남는 장한 일이 될 것일세』

『.....』

『그러니 내가 이 마당에 어찌 전 장군을 버리고 떠나겠는가. 끝까지 갈 수밖에...』

귀신을 때려잡을 만한 무예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의리를 존중하고 정에 여린 두령을 바라보면서 족제비는 〈내가 두령을 따라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 것처럼 두령도 전복준 장군의 거사에 끝까지 참여할 작정이로구나〉라고 생각했다.

마지막 승리는 유격전(遊擊戰)이...

『군사(軍師)는 좀 남아주시요』

공주 총공격을 논의하는 마지막 참모회의가 끝난 뒤 간부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자 전복준은 두역시니만을 불러 세웠다.

『공주를 우회해서 막바로 서울로 향해 쳐올라가자.』는 두역시니의 건의에 대해 전복준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간부들이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먼저 공주를 함락시켜서 남부조선을 완전히 장악한 뒤 전주의 김개남, 광주의 손화중 등과 힘을 합

일본군 장교 3명이 고도중도
훈련시켜 점예 중대로 만들



쳐서 서울로 진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자신의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두역시니는 더 이상 설득에 힘을 기울이지 않았다.

〈어허! 이것도 하늘이 정한 운명일지도 모르겠구나. 공주싸움에 묶인 채 동학군의 꿈은 깨지고 마는구나〉

일본군 600명과 관군이 지닌 신예무기의 위력을 알 까닭이 없는 동학군 간부들은 그저 종전의 관군보다 조금 더 화력(火力=총포의 위력)이 강할 정도로 일본군을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역시니가 아무리 힘주어 설득하려해도 소용이 없는 노릇이었다. 두역시니를 군사(軍師)로 맞이들이 뒤 단 한차례도 그의 작전 건의를 무시해본 적이 없던 전복준이 이번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두역시니의 건의를 외면한 것이다. 의견이 갈렸을 때에는 가장 우두머리인 전복준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 전복준이 공주 피해가기를 거부한 것이다.

그러나 전복준은 참모회의가 끝난 뒤 조금은 미안한 마음이 들어 두역시니를 토닥거리기 위해 그를 남도록 한 것이다.

『군사(軍師) 이번만은 내 뜻을 따라주시요』



『허허. 언제나 장군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 동학군에 몸담고 있는 사람의 의무가 아니겠소』

『그렇게 말씀해주시니 고맙소. 우리 모두는 군사만을 믿고 있소』

『과찬(過讚=정도에 지나치게 칭찬함)의 말씀이십니까』

두 사람은 이 나라가 맞이하게 될 위기상황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청나라가 일본에게 지고있으니 일본의 조선반도 진출을 무력으로 막을 가장 가까운 세력은 아라사(俄羅

스=러시아)이며 머지않아 아라사와 일본이 한판 겨루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누었다.

『군사(軍師), 군사의 생각은 어떻소. 일본을 이 땅에서 몰아내기 위해서는 우리 백성들이 어떻게 싸워야 하겠소?』

두역시니는 전봉준의 이 질문에 글을 씀으로써 대답했다.

장수막(將帥幕) 안의 탁자에 놓인 벼루에 잠시 먹을 간 뒤 붓을 들어 종이에 단숨에 갈겨 쓴 글씨는 유격전(遊擊戰=그때 그때의 형편에 따라 주로 적의 배후나 측면에서 활동하는 유격대가 벌이는 싸움)이었다.

『유격전이라 ...?』

『그렇습니다. 장군. 우리 백성 모두가 유격대의 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학군을 곳곳에서 돕는 것입니다』

『호음! 그래만 준다면야 ...』

『다행히 우리 나라에는 지리산을 비롯한 깊은 산이 많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유격전을 벌이기에 알맞습니다』

『그러나 그러자면 유격대 조직을 위한 핵심 인물

들이 있어야 되지 않소?』

『바로 보셨소. 장군 말씀 대로요. 사실은 지리산패는 바로 그 핵심 인물 양성을 목표로 삼고 있었소. 그러나 민비가 이끄는 갑자대와의 사투(死鬪=죽을 힘을 다하여 싸움)로 갑자대는 전멸했고 지리산패도 많이 죽었습니다』

전봉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두역시니의 다음 말을 자기가 대신했다.

『그랬었군. 지리산패가 크게 세력을 꺾이지만 앓았더라면 전국에 흩어져가서 또 다른 봉기를 이끌어줄 뻔했었구먼』

『장군. 임진왜란 때 비록 명(明)나라의 도움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왜(倭=일본)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수군(水軍=오늘날의 해군)이 제해권(制海權=바다를 지배하는 권력)을 장악했던 데다 백성들이 곳곳에서 유격전을 벌여 왜군의 배후를 절렀기 때문입니다』

전봉준은 진지한 표정으로 두역시니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일본군의 구(舊=옛) 참모본부가 엮은 「일본의 전사(戰史=전쟁의 역사)에 임진왜란 편인 「조선의 역(役=일본말로는 전쟁을 뜻함)」이라는 글이 있다.

그 글 가운데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 애당초는 잘 나가던 조선 전선(戰線=육상 전투지역에서 교전상태의 보행 전투단위가 형성한 선)도 당초와는 달리 차츰 교착상태(膠着狀態=어떤 상태가 그대로 고정되어 좀처럼 변화가 없음)에 빠져들어 갔다.

그 주요한 원인은 일본의 수군(水軍)이 조선 해군의 명장 이순신의 용의주도(用意周到=마음의 준비가 두루 미처 빈틈이 없음)한 작전계획 앞에 큰 손해를 입어 끝내는 제해권을 적에게 장악 당한 때문에 탄약병량(彈藥兵糧=총알, 화약과 식량)의 해상 보급에 어려움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군사들의 식량이 궁핍해진 일본군은 현지에서 약탈을 저지르는 바람에 조선 농민들의 원한을 사서 게릴라부대가 각지에서 봉기했다.

4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해국(海國=바다의 나라) 일본이라 불린 나라가 해전(海戰=바다에서의 싸움)에서 패배해서는 도저히 승산이 없다.

원정군이 현지의 게릴라부대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어느 전쟁에서나 마찬가지이지만 당시의 전쟁양식으로서서는 게릴라부대는 상상을 넘어서는 거추장스러운 존재였을 것이다. —

전봉준과 두역시니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지금의 형편으로서는 당장 전국 방방곡곡에서 유격전의 불길기 타오르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였다.

『결국 민비는 갑자대를 잃은 대신 지리산패에도 큰 타격을 주어 우리의 계획에 큰 차질을 준 셈이었구려』

이윽고 전봉준이 신음하듯이 말했다.

『그렇소 장군. 이제 공주 총공격을 장군이 결정하셨으니 앞일은 천운(天運=하늘이 정한 운수)에 맡기고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사(軍師) 정말 고맙소』

전봉준은 공주공격을 놓고 자신과 의견이 다른데도 끝까지 따라주는 두역시니의 두 손을 꼬옥 잡고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

막강한 화력(火力)의 관군과 일본군

동학군이 두갈래로 나뉘어 공주로 진격하고 있을 때 중주 일대에는 관군의 수효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

선봉장 이규태가 이끄는 경리청, 순무영, 통위영, 장위영 등의 군사는 모두 합쳐 3천 200명을 넘고 있었으며 여기에 일본군이 끼여있었다. 관군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병력은 교도중대였다.

일본군 장교인 모리오 마사가즈 대위, 시로끼 세이파로 중위, 미야모토 다게다로 소위가 혼련시키고 지휘하는 교도중대는 최신식 무기를 지니고 통제가 잘 이루어진 중대였다. 또한 교도중대에는 일본군 하사관 몇 명과 한국인 통역 2명이 배속되어 있었다.

관군에는 모젤총 400정과 탄약 4만발을 일본군이 빌려주었고 탄약은 아무래도 모자랄 것 같아 3만발을 추가로 제공해주었다.

강화에서 온 강화병은 슈나이더 레밍턴 소총을 쏘어서 주웠으며 진남병에게는 모두 슈나이더 소총이 지급됐다.

죽창과 구식 조총으로 무장한 동학군이 이들 신식 무기로 무장한 관군과 맞대결한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나 다름이 없는 노릇이었다.

관군의 중군(中軍=전군·全军의 한 가운데에 있는 부대)은 이기동이 통솔하고 통위대는 오창성이 이끌어 급학동에 진을 쳤다.

장용진은 통위대 일부 군사를 이끌고 봉화대에 구상조는 옹기에 각각 주둔하고 있었다. 공주영의 주

력은 중군 이기동의 지휘아래 주봉에 배치됐다.

이미 10월 6일 공주에 도착해 있던 성하영과 백낙완은 견준봉(犬遯峰=개돌백이)에 자리잡아 동학군을 기다리고 있었다.

공주 동남쪽의 봉황산 효포봉과 연미봉에는 경리청군이 배치됐으며 이인과 판치에는 경리청군과 통위영군이 자리잡고 있었다.

모리오 마사가즈 대위는 우금고개를 지켰다.

공주 성안에는 총위병 1개 대대, 경리영병 1개 대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모리오 마사가즈 대위의 지휘아래 들어갔다. 일본군의 도움을 받고있는 관군의 전략은 동학군의 기세가 드높아 공주성이 겹겹으로 포위됐을 때는 공주를 사수(死守=죽음을 무릅쓰고 지키)하고 동학군의 기세가 꺾이며 성을 박차고 나가 반격하는 것이었다.

『전봉준도 이번에는 꼼짝없이 저승에 갈 수밖에 없게됐네』

『아무렴 일본군이 빌려준 신식무기 앞에는 제아무리 동학군이라도 어찌할 수없이 송장더미가 되고 말 거야』

일본군 장교로부터 훈련을 받고 신식무기 다루는 법을 익힌 교도중대를 비롯한 관군은 실제 사격훈련을 통해 겪었던 신식무기의 위력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공주성과 그 일대의 관군 사이에 몰래 스며들어 있는 간자(間者=스파이)로부터 시시각각으로 보고를 받고있는 동학군의 군사(軍師) 두역시니는 이번 공주 회전(會戰)에서 동학군이 승리할 공산은 매우 희박하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



김개남 장군은 어떻게 움직였나?

전봉준과 두역시니 그리고 공주 공략에 나선 동학군이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었는데도 원군(援軍=도와주는 군대)을 이끌고 나타나지 않은 김개남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사실 동학군 가운데서 김개남 부대는 가장 용맹



(勇猛=용감하고 사나움)하기로 이름이 있었다. 우두머리인 김개남 장군의 성격이 위낙 사나운데다 그 부하들도 거의 모두가 거친 사나이들이었다. 김개남은 1853년에 태인 땅 산외면 지급실에서 부잣집의 셋째아들로 태어났다. 그 또래의 어린이들이 그랬듯이 김개남도 서당에 다녔으나 어떤 일인지 여러 책 가운데도 특히 병서(兵書=군사작전의 방법에 관한 책) 읽기를 즐겨했다니 타고나면서의 무인(武人=무예를 닦은 사람)이었던 모양이다. 옛날에는 배고픔을 채우고 놀이를 겸해 남의 밭에서 참외를 훔치는 참외서리, 닭장에서 닭을 훔치는 닭서리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별 죄의식 없이 치러지곤 했다. 그러나 김개남은 어릴 때부터 남달리

간이 컸던지 돼지서리를 했다고 한다.

닭이면 몰라도 돼지는 그 집안의 큰 재산 가운데 하나인데도 그 돼지를 훔쳐서 잡아먹었다니 아무튼 보통 소년은 아니었던 것 같다.

김개남은 자라면서 상두재를 넘어 전주에 드나들면서 친척인 전주영장 김시풍과 친하게 됐고 세상 돌아가는 꼴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과 사귀게 됐다.

전봉준보다 먼저 동학에 들어간 김개남은 자기 집안인 도강 김씨의 자제들을 동학으로 끌어들었고 동학의 교주인 최시형도 극진히 받들었다.

1890년초 전라도를 자주 돌며 동학을 널리 퍼뜨리고 있던 최시형이 1891년 부인과 함께 태인을 들렀을 때 김개남의 집을 찾았고 김개남은 여름옷 5벌을 지어서 바쳤다고 전해진다.

김개남은 현실에 불만불평을 품은 자들의 대표자였던 셈이다.

동학의 각종 집회에서 김개남은 그때마다 무력(武力)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강경파로 주목을 끌었다.

대원군이 동학과 손을 잡으려고 시도했을 때 전봉준보다 먼저 김개남에게 교섭의 손길이 뻗었을 만치 동학군 강경파로서 그의 이름은 높았다.

그러나 이지적(理智的=감정이나 본능에 치우치지 않고 깊은 지식으로 사물을 분별하고 이해하는 슬기로운)이기보다 피가 뜨거웠던 탓에 동학군의 연합전선이 이루어졌을 때는 전봉준 대장 다음인 총관령을 맡게됐다.

동학군의 총지휘는 아무래도 균형 잡힌 성격에 인덕(仁德=어진 덕)을 갖추어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모 받는 전봉준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동학의 간부들이 의견을 모았던 것이다.

전주화약(全州和約)이 맺어지고 동학군이 전주를 떠날 때 김개남은 전봉준, 손화중과 갈라져 지리산 언저리로 갔다. 김개남은 남원을 중심으로 한 임실, 장수, 무주 등에 세력권을 펼치고 천민(賤民)부대를 거느렸다.

노비, 백정, 승려, 장인(匠人=목공이나 도자기 만드는 도공 등과 같이 손으로 물건을 만드는 것을 생업으로 삼는 사람), 재인(才人=재주를 넘거나 악기를 풍악으로 치던 광대)같은 천민(賤民=신분이 천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부대는 그 동안 쌓였던 한을 풀기 위해 양반, 부농, 벼슬아치들에게 모질게 앙갚음을 했다.

노비들은 주인을 겁주어 노비문서를 불태웠고 더

러는 그들의 상전을 묶어 주리를 틀고 곤장(梶杖=죄인의 불기를 치던 버드나무로 만든 길고 넓적하게 만든 몽둥이)을 치기도 했다. 길 가던 양반의 갓을 벗겨 『네가 그대 양반이나?』라고 욕바지르며 갓을 찢어버리기도 하고 자기가 쓰고 다니며 동료들을 웃기기도 했다.

김개남은 남원에 눌러 있다가 전주로 올라가 새로 부임하는 남원부사 이용헌을 죽이고 고을 수령들이 고분고분하게 말을 듣지 않으면 역시 지체없이 목숨을 빼앗고 말았다.

김개남이 이끄는 천민부대가 가는 곳마다 지배계급에게 저지른 지나친 양갓음은 뒷날 동학봉기가 진압된 뒤 동학도와 이에 연루된 사람들에게 대한 철저한 탄압으로 나타나고 만다.

김개남은 공주 공격에 참가해 달라는 전봉준의 간곡한 요청은 외면한 채 장수, 금산, 진장을 치고 들어가 끝내 공주로는 향하지 않았다.

이인에서 거둔 동학군의 첫 승리

공주로 향한 동학군은 복점부대가 이인을 출발했고 전봉준은 주력부대를 이끌고 효포 쪽으로 나갔다. 그리고 영동, 옥천 등지에서 올라온 동학군은 공주 동쪽 30리의 대교리에서 진을 쳐서 공주를 압박하도록 했다.

복점 동학군은 노성에서 용수막을 지나 취병산에 자리를 잡아 이인 들판을 장악했다.

공주에 이르는 중요한 길목인 이인을 지키기 위해 관군은 구원회가 이끄는 순영병 4분대, 새로 서산 군수로 발령 난 성하영이 인솔하는 경리청 1소대를 매복(埋伏=적군을 기습하기 위해 요긴한 곳에 숨어서 기다리는 일)시켜놓고 있었다. 또한 스즈끼 소위가 이끄는 일본군 100명도 이인 역까지 내려가 마을 뒤의 당상에서 동학군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있었다.

어제 내린 비로 공기가 깨끗이 씻긴 탓인지 10월 23일의 가을 하늘은 무척 맑았다.

복점 동학군 일부는 봉황산을 넘어 공주 감영을 공격하기 위해 곧나루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그날 오전은 조용하게 지나갔다. 동학군과 관군 양쪽 모두 상대방의 움직임을 살피고 척후병들이 알려오는 보고를 분석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김개남부대의
지배계급을 향한
가혹한 양갓음은..



점심식사를 마치고 오후로 들어서자 동학군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다.

갑자기 천지를 뒤흔드는 함성이 울려 퍼지고 산과 골짜기를 메운 깃발들이 요란하게 흔들리면서 동학군의 공격은 시작됐다.

『겁먹지마라. 동비(東匪=동학의 도적 무리)들은 농사꾼인데다 무기도 낡은 것밖에 갖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신식무기 앞에 역도(逆徒=반역의 무리)들은 추풍낙엽(秋風落葉=가을 바람에 떨어지는 잎)이란 뜻으로 세력이나 형세가 갑자기 시드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지휘관들은 관군들이 겁을 먹을까봐 소리 높여 용

감하게 싸울 것을 독려(督勵=감독하며 격려함)했다.

성하영 부대의 포가 불을 뿜자 건디다 못한 동학군이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고 관군은 이인역을 탈환했다.

하지만 후퇴한 동학군은 곧 전열을 가다듬고 산 위에서 아래를 향해 포를 쏘아대기 시작했다.

『팡! 팡!』

양쪽의 포가 불을 뿜을 때마다 이인역과 산에서는 흙먼지가 뿜어 올랐고 간간히 군사들이 피로 물들면서 쓰러졌다.

저녁때까지 동학군과 관군은 서로 물러나지 않고 싸웠다.

한참 전투를 지휘하고 있던 성하영에게 공주 감영으로부터 전령(傳令=부대와 부대 사이를 오고가며 명령을 전달하는 병사)이 달려온 것은 땅거미가 지려고 할 때였다.

『무엇이? 감영으로 철수하라고?』

전령이 가져온 것은 공주 감영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이었다.

공주 감영을 공격하기 위해 봉황산으로 이동하던 동학군이 목적지에 이르자 공주 감영은 황급히 내보냈던 군사들을 감영 안으로 거두어들여야 하는 것이었다.

『철수다! 공주 감영으로 돌아간다. 후미(後尾=대열의 맨 끝)는 적의 추격에 대비하면서 철수한다.』

성하영이 이끄는 부대를 비롯, 관군은 이인을 뒤로하고 재빨리 공주 감영 쪽으로 철수하기 시작했다.

철수하는 관군의 대열 꿈무늬는 신식무기로 무장한 군사들이 가끔 뒤돌아보면서 동학군의 추격을 경계했다.

이인에서 벌어진 동학군과 관군의 첫 싸움에서 관군이 120명이 넘는 전사자와 300여명의 부상자를 내는 큰 피해를 입고 말았다.

공주를 향해 복상한 이래 첫 승리를 거둔 동학군은 사기가 크게 올랐다.

『무엇이라고? 100명이 넘는 관군이 적에게 포살(砲殺=총포로 쏘아 죽임)당했다고?』

『부상자도 300명이 넘는다니 당해도 크게 당했네.』

『무기는 우리 쪽이 더 우수한데 어쨌서 그 시골 무지렁이(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얕잡아 이르는 말)들에게 당해야 된단 말인가.』

이인 전투에서 관군이 졌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공주 감영은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시끌시끌했다.

『동학의 간자(間者=스파이)들이 이 공주 감영 안에도 득실거리기야 하겠나. 하지만 우리 쪽 소식도 그 쪽에 새어나가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으니 서로 말조심하고 수상한 자가 있으면 지체없이 알리게.』

공포감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만든다 그래서 전쟁 때에는 갖가지 루머가 난무하고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차분히 앞뒤를 따져보지 않고 그 루머를 믿게되기가 쉽다.

뒷날 잡힌 전봉준이 『전군(全軍) 모두 합쳐서 1만 명』이라고 밝힌 동학군이 공주 회전(會戰) 때에는 몇 십만으로 불어나서 알려져 있었다.

이인에서의 첫 전투

관군 120명 전사, 300여명 부상 동학군 사기는 하늘을 찌르고

관군도 여러 사람의 정탐꾼을 내보내 동학군의 정확한 병력과 그들의 화력(火力)을 파악하려고 했으나 뜬소문이 퍼지고 있는 바람에 제대로 된 정보를 입수할 수 없었으며 따라서 알맞은 대응을 하기가 힘들었다.

『대교리 쪽으로 동학이 밀려온다』는 소문이 들려오면 효포를 지키고있던 관군을 빼내 금강 건너 대교리 쪽으로 배치했다. 정보수집은 차라리 동학군 쪽이 정확하고 빨랐다. 많은 서민들이 심지어는 관군에 몸담고 있는 자까지도 동학군에 협조하는 뜻으로 자신이 알고있는 정보를 동학군의 정탐꾼에게 털어놓았기 때문이다.

『효포의 관군이 대교리로 옮겨 지금 효포는 비어 있다』는 보고가 들어오자 전봉준은 때를 놓치지 않고 동학군 1개 부대를 효포로 보냈다.

또 다른 1개 부대는 이인으로부터 우금치를 향해 가서 사방으로부터 공주를 조여 들어갔다.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고있는 공주언저리의 산과 고개에는 동학군들의 깃발이 뽀뽀이 나부끼고 있었으며 가을 햇살에 창과 칼이 번뜩이고 있었다.

동학군 주력부대는 가마에 탄 전봉준의 인솔아래 판치를 넘어서 능치로 향하고 있었다.

전봉준이 탄 가마 옆에는 검은 말 흑룡을 탄 두역시니가 가마의 움직임을 맞추어 나란히 가고 있었다.

<다음호에 계속>

하권익 박사와 심종섭 박사가 쓰는



하 권 익 박사

성균관 의대
삼성 서울병원 정형외과 교수
(스포츠의학과)

스포츠 의학



심 종 섭 박사

성균관 의대
삼성 서울병원 정형외과 교수
(소아정형외과)

저항력과 질병

몸에 이상이 있으면 저항력 떨어져

자라나는 어린이는 팔다리나 척추가 어른에 비하여 형태가 다르고 성장에 따라서 변화하기 때문에 과연 우리 아이가 정상인지, 좀 이상이 있으면 치료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때가 많다.

또한 치료도 운동이나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쉽게 될 수 있을지, 수술 등 특수한 치료를 요하는지도 궁금할 때가 많다.

특히 나이가 어린 아이가 사지나 척추 모양이 조금 이상한 경우는 전문가들도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

건기전의 어린이는 허리가 굽어서 간혹 등골게 휘어 보이는 수도 있지만 이는 허리의 유연성이 크고 허리를 세우는 근육이 아직 발달되지 않아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걷는 나이를 지난 15개월 이상 24개월까지도 허리의 구부러짐이 심하고 잘 앉지도 못하면 근육이나 신경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많다. 두툼하다 되도록 걷지 못하면 이는 신경근육계통의 선천성, 발달성 이상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러한 질병 중 선천성 근육병은 대개 점점 진행하거나 나빠지는 경우가 많다. 다행히 이러한 근육병은 매우 드물고 최근에는 태아시 양수검사, 유전자병 검사 등으로 감별되기도 한다.

가장 흔한 신경계통 질병은 뇌성마비인데 뇌성마비는 진행되지 않고 성장하면서 다행히 운동능력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최근에는 뇌성마비 등의 근육신경계통 질환에 대한 치료방법이 점점 호전되고 있다.

성장기 어린이들에서 사지나 척추 또는 신경 근육계통의 이상이 있는 어린이들의 공통점은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져서 건강한 어린이에 비하여 잔병, 또는 심각한 병을 더 많이 앓는다는 것이다. 어린이가 자라면서 여러 가지 거처야 할 도전에 직면하는데 이겨내야 할 질병도 마찬가지로 있다.

어린이들은 어른에 비해 저항력이 떨어져 있어서 감염되기 쉽다. 가벼운 질병은 쉽게 걸린 만큼 어른에 비하여 쉽게 낫지만, 심각한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증이나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따라서 몸에 이상이 있는 어린이들은 저항력이 떨어지기 쉬우므로 주위의 보살핌이 더욱 필요하다. 이러한 환경으로부터의 도전을 슬기롭게 이긴 어린이들은 건강한 어른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다.

계절이 바뀌는 추운 겨울이 오면 어린이의 저항력이 시험대에 오른다. 몸밖으로부터의 여러 가지 병원균이 저항력이 떨어진 어린이의 몸에 침투하여 여러 가지 병을 일으킨다.

이러한 병균에 의한 감염은 흔히 감기같은 가벼운 호흡기 질환부터 시작하여 드물게는 몸안의 중요한 장기의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때 사람의 뼈, 즉 척추나 사지의 뼈에도 염증이 일어날 수 있다. 뼈나 관절의 급성 염증은 어른에 비하여 어린이들이 훨씬 흔하다.

특히 어린이들 팔다리의 관절 주위에는 어른에서는 볼 수 없는 “성장판”이란 것이 존재하는데, 성장판 주위는 다른 부위에 비하여 혈액순환이 늦고 병균의 침투와 결절이 용이하여 이 부근에 급성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소위 급성 골수염이다.

급성 골수염은 매우 위중한 질병으로 그대로 방치하면 만성 골수염이 되어 평생 고생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성장판 파괴를 가져오는 일이 허다하여 팔다리의 성장이나 모양에 변형을 가져와서 불구가 될 수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급성 골수염이나 화농성 관절염 같은 위급한 질병은 대개 저항력이 떨어진 어린이에게 잘 생긴다는 것이다.

잘 뛰노는 아이들이 리아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강해진다



분은 저절로 이겨내지만, 관절에 관절액이 증가되는 “일과성 활액막염”이란 질병을 앓는 어린이들이 종종 있다.

대개 엉덩이 관절에 잘 생기며 어린이들은 다리와

저항력 떨어지면 병균에 의한 감염 쉬워 균형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으로 저항력 길러야

예를 들어 조산한 신생아나 저체중아는 정상분만 된 건강한 신생아에 비해 저항력이 떨어져 이러한 병균의 침투에 대항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마찬가지로 평소에 건강하게 신체를 단련한 어린이들은 병균이 들어와도 이를 퇴치할 능력을 몸에 지니지만 건강에 소홀히 한 어린이는 염증에 노출되고 이를 이기는 힘이 감퇴된다.

팔다리나 척추에 이상을 보이는 어린이나 신경 근육계통의 만성 질병을 앓는 어린이는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고 앓는 어린이는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고 외부의 충격이나 병균에 대항하는 신체적인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어린이에게는 더더욱 주위의 보살핌이 필요하다.

균형있는 신체단련이 보약

평소에 건강해 보이던 어린이도 환절기에는 쉽게 감기나 다른 염증에 노출되며 앓고 지나간다. 대부

무릎이 아프다고 호소한다. 이 질환은 마치 감기와 같은 가벼운 염증이지만 어린이가 매우 심하게 고통을 호소하고 잘 걷지도 못하여 보호자나 치료하는 의사를 당황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급성 골수염이나 관절염과 증세가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건강한 어린이들은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아도 1~2주안에 스스로 이겨낸다. 드물게 나타나는 일이지만 저항력이 떨어져 있는 어린이들은 후유증으로 심한 관절염을 앓기도 한다.

요즘 어린이들은 너무 바빠서 균형있는 신체단련을 대개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많은 어린이들이 운동부족, 비만, 편식 등으로 신체가 쇠약해 있다.

주로 집안에서 화초처럼 자란 어린이들은 저항력이 떨어져 있다는 면에서는 몸에 이상이 있는 불구 아동과도 다를 바가 없다.

평소의 건강한 체력단련, 균형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이 건강하게 자라는 어린이의 저항력을 길러주는 보약이다.

비정신적인 원인들을 제거하기

앨런S. 골드버그

자, 이제 시작해봅시다. 슬럼프에서 빠져 나와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한 첫 단계는 무엇 일까요? 바닥인 성적을 위로 끌어올리는 길은 매우 간단한 이해에서 시작합니다. 즉, 모든 슬럼프가 정신적인 문제가 원인이 되

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무엇보다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때때로 몇 가지 적절한 이유로 성적이 지속적으로 잘못때가 되는 조짐을 설명할 수 있는데, 이 이유는 「머리 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진선 옮김〉



▲저조한 성적으로 좌절된 골프선수. 경기력 저하가 지나친 훈련과 정력고갈이 원인이 아닌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력이 고갈됐습니까?

경기력 문제의 육체적 원인을 제거하려면, 하나의 영역을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나친 훈련과 정력고갈이 슬럼프의 직접적인 원인일 수도 있다.

운동 선수가 적절한 휴식 없이 지나치게 열심히, 지나치게 오랫동안 훈련을 한다면 경기력에 문제가 생긴다.

만성 피로가 시작될 수도 있고, 피로 골절을 입거나 경기력이 나빠진다.

이런 상태의 스포츠 선수는 연습을 하거나 경기에 나가서 단지 끝까지 해내기만을 바라며 끝날 시간을 계산하는데 이러한 상태를 '드디어 끝났다(TGIF: Thank goodness it's Friday)' 정신상태나 '정력고갈' 정신상태라고 한다. 반대로 최고 기량을 펼치는 선수는 훈련에 대한 흥미와 훈련 참여 의지로 가득 차있다. 이런 선수들은 시작되기를 가만히 기다리지 못한다. 이 선수들은 '아 드디어 시작이다(TGIM: Thank goodness it's Monday)'라는 마음이짐으로 활동한다.

과도한 훈련과 정력 고갈은 바로 슬럼프로

휴식은 모든 종목의 스포츠에서 훈련의 중요 부분이지만, 흔히 간과된다.

『훈련량은 많을 수록 좋다(more is better)』라는 철학에 지배되는 스포츠 선수는 자신의 몸에 귀기울이지 않는다.

그 결과로 과도한 훈련을 하게 돼서 자신의 몸이 회복될 시간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훈련기간의 노력은 무효로 돌아간다.

훈련이나 경기 일정의 몸이 회복할 시간을 충분히 두지 않고 짜여졌다면, 그 결과 모든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평상시보다 낮은 성적을 낸다.

바바라의 상황에서 이러한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LPGA 골프 선수인 바바라는 좌절 상태에서 나를 만나러 와서, 정말로 중요할 때 경기를 잘 풀어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바바라는 연습에서는 좋은 성적을 냈지만 큰 상금이 걸려 있는 경기에서는 연속적으로 엉망이었다. 그녀는 몇년 동안 투어에 지속해서 왔고, 한 시즌 정도는 정말로 좋은 성적을 내야만 했다.

그녀는 절망해서 모든 것을 그만두어야겠다고 말했다. 토너먼트가 두려워졌고, 경기를 하는 동안에 『경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라는 태도를 지니게 됐다. 바바라는 경기를 즐기던 때가 과연 있었는지를 기억할 수 없었다.

내가 바바라에게 훈련 계획이 어떠하며, 평소에 얼마나 휴식을 갖느냐고 묻자, 그녀는 내가 마치 외국어로 이야기를 한다는 듯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

보았다.

그녀는 2년 이상을 경기를 떠나서 자신만의 중요하고 충실된 시간을 갖지 못했다.

바바라는 기력이 완벽하게 소진되어 있었고, 휴가가 필요했다. 이것이 그녀의 지속적인 부진에 대한 주된 이유였다.

4개월의 휴식 후 바바라는 다시 생기발랄해져서, 경기를 다시 하고 싶어했다.

2년만에 처음으로 코스에서의 경기를 즐기기 시작했다.

이 새로운 즐거움으로 인해 그녀의 성적은 뛰어나게 향상되었다.

당신은 어떠한가? 당신의 경기력 문제는 과도한 훈련과 정력고갈에 관련되지는 않는가?

다음의 정력고갈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고 정력과 같이 당신의 슬럼프의 원인인지를 결정해 보아라.

정력 고갈에 관한 질문들

다음의 질문에 T(true)나 F(false)로 대답해보자

1. 항상 피곤하다.
2. 늘 해오던 방식으로 하는 연습은 재미가 없다.
3. 연습 도중에 종종 지금 다른 장소에 있다면 하고 바란다.
4. 경기하는 것이 두렵다.
5. 진실로 즐겁게 플레이를 하던 때가 아주 옛날 같다.
6. 내가 왜 아직도 이 스포츠에 몸 담고 있는지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묻는다.
7. 꾸준히 내 목표에 맞춰 나가는 일이 어렵다.
8. 전보다 자주 부상을 당하는 것 같다.
9. 부상이 회복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10. 내 태도가 지난 몇개월 동안에 갈수록 나빠진다.
11. 내 시간의 많은 부분을 스포츠를 위해 희생해야만 하는 사실에 분노한다.
12. 힘든 훈련에서 생기는 불편함을 옛날처럼 잘 조절할 수가 없다.
13. 때때로 내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사실조차 신경 쓰지 않는다.
14. 내 자신과 나의 훈련에 대해 보통 이상으로 부정적이다.
15. 연습에 집중하는 게 힘들다.
16. 최근 부쩍 나 자신을 비난하고 있다.
17. 코치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18. 예전보다 팀동료와 잘 지내기가 힘들다.
19. 계속해서 이 스포츠를 하라고 타인에게 압력을 받고 있다.
20. 나는 좌절에서 회복될 것 같지 않고 역시나 실패한다.

■ 점수 매기기

- ※ 각 문항당 T=1점, F=0점으로 해서 총계를 구하자.
- ※ 총 20점 중 1~3점 사이면, 정력 고갈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 ※ 4~7 사이면 얼마 동안 쉬어라.
- ※ 8~14의 점수를 얻었다면 훈련과 시험에서 떨어진 휴가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태이다.
- ※ 15점 이상이면 정말로 심각하게 정력이 고갈된 상태이다. 코치와 함께 앉아서, 계속해서 지금의 스포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마음을 더놓고 의논해야만 한다.



▲적절한 휴식없이 지나치게 열심히 오랫동안 훈련을 하면 만성피로나 피로골절로 경기력이 나빠질 수 있다.

정력과같은 우스꽝스러운 문제가 아니다. 육체적으로 에너지원이 고갈돼서 슬럼프가 발생했다면, 훈련을 더 열심히 하는 방법으로는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훈련의 강도를 높이면 슬럼프에 더 깊숙이 빠져들 뿐이다.

때로는 목표에 도달하는 가장 빠른 길은 가장 천천히 하는 것이다. 훈련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면 다시 좋은 성적을 내기도 한다.

1986년, 막 16번째 생일이 지난 테니스계의 신동 안드레 아가시는 프로로 전향했다.

아가시는 경기에서 놀라운 속도로 코트를 누비고,

는 버터로 기력을 소진시켰다.

아가시는 프로데뷔 첫 해에 1번 결승전에 진출하고 세계 89위에 올라서는 놀라운 성적을 낸 반면, 건방지고 불경스러운 행동으로 상대 선수와 경기 관련자들의 분노와 경멸을 샀다.

두번째 해에 워싱턴에서 열린 1라운드에서 패배하자, 아가시는 라켓을 집어 던지고 경기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후로 아가시의 특성을 잘 이해함과 동시에 아가시를 괴롭힌 기복이 심한 8년간의 세월이 시작되었다. “나는 만족스러운 한해를 보내면 그 다음해는 엉망이었다.” 라고 아가시는 말했다. 1988년에 세계 3위로 오르고 1989년 7위로 떨어

지나친 훈련과 정력고갈은 슬럼프의 원인 훈련에 대한 흥미와 의지로 가득찰 때 최고 기량

마치 손에 눈이 달린 것 같은 조정력과 가장 강력한 포핸드를 구사하였다.

이런 뛰어난 능력과 출중한 외모로 광고 스폰서들이 아가시를 섭외하기 위해 아가시의 퍼레이드차에 올라타려고 경쟁하였고, 거의 하루밤 사이에 아가시는 세계적인 존재가 되었고, 카메라와 운동화 등의 모델이 되었다.

엄청난 양의 제품 광고에 둘러 싸인 아가시는 때때로 쇼맨십을 발휘하는 언행, 무례한 행동, 큰 시합에서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기를 모으

졌다.

1990년 아가시는 프랑스 오픈과 유에스 오픈 결승에 진출해서 다시 세계 4위로 올랐다.

1991년에 10위로 떨어졌는데, 프랑스 오픈 결승전에서 패하고, 유에스 오픈 첫 라운드의 패배라는 쓰라림을 안고 해를 마쳤다. 유에스 오픈 첫 라운드 패배로 아가시는 다시 경기를 포기하였다.

엉망인 상태를 재정비하고 2년마다 발생하는 슬럼프를 저지하기 위해 아가시는 혹행을 일삼고 강압적인 아버지로부터 떨어지기로 하고 집을 나왔다.

8개월 후인 1992년 7월에 아가시는 워블던에서 우승했다. 다음 해 아가시는 심한 하강곡선을 그리며 몰락해서 거의 땅에 처박힐 수준이었다.

1993년, 고통스러운 손목 부상으로 겨우 14경기밖에 치르지 못했다. 몸무게가 8파운드 늘었고 순위는 24위로 곤두박질했다. 동시에 아가시와 10년 동안 일해왔던 코치 닉 볼테라가 이별의 편지를 보내왔다. 부상당하고, 체중은 늘어나고, 몸은 망가지고, 저조한 성적으로 아가시는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있었다. 심지어 그의 형제인 필립조차도 아가시의 복귀에 회의적이었다고 고백했다.

이런 상황에서 은퇴한 순회 경기 선수인 브래드 길버트가 아가시의 새 코치가 되었다. 길버트는 아가시의 약점을 세밀하게 분석하고는 육체적인 재능은 성공을 위한 반짝짜리 열쇠에 지나지 않는다고 가르쳤다. 아가시는 "나는 항상 재능이 있었고 이 재능으로 인해 여러 힘든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이 재능에 대한 책임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에 뒤떨어졌고,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고 매진해야만 하고, 나의 재능을 꽃 피우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했다."라고 했다.

1994년 3월 길버트는 아가시의 경기와 태도를 철저히 분석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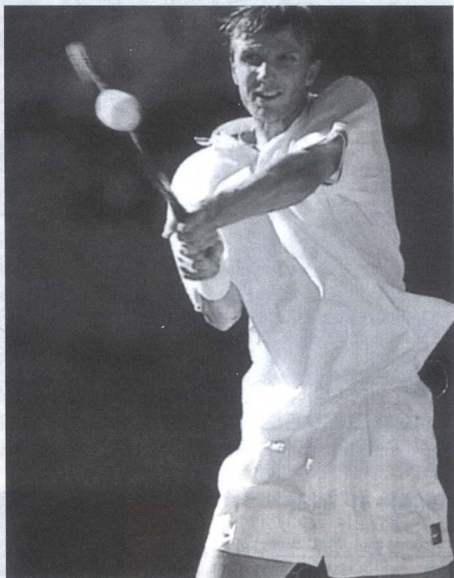
아가시는 개인 코치인 길 라이스와 일하기 시작해서 곧 새로운 몸을 만들어 나갔다. 코치와 트레이너는 아가시의 지나친 정크 푸드 섭취를 제한했고, 한때 블록했던 아가시의 복부는 단단한 근육으로 바뀌었다. 코치와 트레이너는 아가시가 토너먼트 진행기간 동안 더 힘차게 활약하도록 하기 위해 육체적 지구력을 키우는 일에 착수하였다. 길버트는 아가시가 점수 획득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서, 생각 없이 공을 주고 받는 게 아니라 시합에 대한 계획을 짜서 행동하도록 가르쳤다. 이러한 모든 노력으로 인해 아가시는 훌륭하게 변신했다. 1994년 말까지 9달 동안의 노력으로 아가시는 세계 10위권 안에 있는 모든 선수를 이기고 세계 2위로 올라갔다.

1994년에 유에스 오픈에서 우승하고 세계 정상에 넘보고 있었다. 1995년 아가시는 전년의 기세를 몰아 호주 오픈에서 우승했고 일년 내내 세계 1위 자리를 두고 피터 샘프라스와 경쟁했다.

1996년 부상을 입어서 출장한 경기 수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태도, 경기를 풀어나가는 새로운 방법, 몸 조절력으로 아가시는 슬럼프를 헤쳐나올 수 있었고, 다시 정상의 자리에 복귀했다.

결론

완벽하게 육체적, 전술적, 기술적 요인을 제거하고 슬럼프 문제가 정력고갈과 관련이 없다는 확신이 들면, 슬럼프 탈출 모델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거기에는 경기력의 정신적인 면이 서술되어 있어서 강인한 정신을 기를 수 있다.



▲선수들은 항상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원한다. 만약 성적이 계속해 저조하다면 우선 육체적, 전술적, 기술적 요인을 제거한 후 정신적인 원인을 살펴보도록 한다.

첫번째로 힘과 컨트롤에 대한 느낌을 원래대로 돌려 놓는 일을 할 것이다. 슬럼프를 겪고 있는 대부분의 선수들은 슬럼프의 손아귀에서 빠져 나오기 위해 전력을 다해 모든 것을 시도해본다.

이러한 탈출 시도에서 계속적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은 무기력하고 조절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인다. 슬럼프 탈출의 단계 2에서는 사람들은 슬럼프에서 회복하고 어려움을 이기고 강한 경기가 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한다. 단계 2는 도움도 없고 희망도 없다는 감정 상태에서 빠져 나와 강인함과 희망의 상태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줄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올 바 른 심판의 조건

(제 19회)

심판 뿐만 아니라 선수, 코치에게도 도움되는 시리즈

감정과 임무수행 간의 관계

당신이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의 개념에 익숙해 졌다면 이제 그것들이 심판 활동에 미치는 실제적인 영향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선수들과 코치들은 감정이 최상의 임무 수행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래전부터 인식했다. 그들은 큰 경기나 이벤트를 위해 임무 수행력을 극대화 하는 '긴장'의 단계' 훈련을 일관성있게 추구해 왔다.

심판 여러분들도 역시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상의 감정적 단계에 이를 필요가 있다. 중요한 문제는 바로, 당신으로 하여금 최상의 업무 수행을 할 수 있게 하는 최상의 감정상태가 무엇이나 하는 것이다.

그 답은 아마도 역(逆) - U 원칙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역(逆) - U 원칙

긴장 정도와 임무 수행간의 관계는 역(逆) - U 곡선에 의해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 조사에서 입증되고 있다. (그림 62 참조)

이 가장 단순한 모형에서 그 곡선은 긴장 정도가 어떤 최적의 상태일 때 임무 수행 성과가 증가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 긴장 정도가 증가할 수록 임무 수행에 있어 오히려 역효과가 생기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임무 수행은 긴장 정도가 너무 적거나 너무 많을 때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역(逆) - U 곡선의 정점은 긴장 정도가 최적의 상태일 때 임무 수행을 가장 훌륭하게 해내는 때라고 할 수 있다.

역(逆) - U 원칙은 일반적 상식의 산물이다. 당신이 흥분하고, 자극받고, 혼란스러워 할 때 일이 잘



▲한순간도 눈을 땔 수 없는 경기에서 심판은 불안과 긴장 등 부정적인 감정들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안되었던 때를 생각해 보라. 비슷한 경우로, 만사가 귀찮아지고 부정적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일이 엉망이었음을 상기하라. 심판으로서 당신의 목표는 컨디션에 상관없이 매 게임마다 일관성있게 자신의 최적의 긴장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어야 한

다.

역(逆) - U 원칙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당신은 긍정적 감정의 에너지와 부정적 감정의 에너지의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Martens는 많은 코치들과 선수들이 그때 느끼는 긴장이 부정적인 것인지 긍정적인 것인지에 관계없이 무조건 긴장 정도의 중간 단계에서 임무 수행이 최고치를 기록한다는 사실만을 가정함으로써 역(逆) - U 원칙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사실 여러 조사들과 일화들에서 보여지듯, 선수들은 그들이 부정적인 에너지가 전혀 없거나 거의 없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높을 때 최상의 임무를 수행하는 상태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림 63에서 역(逆) - U 원칙을 다시 그려 보았다.

그림 63과 그림 62의 차이점은 긴장의 정도 표시가 달라지는 수평축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니까



▲심판은 선수나 코치, 관중들로부터 스트레스를 받기 쉽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확신을 갖고 심판을 보아야만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원론적인 개념 정리에 있어, 수평축에서 감정적인 에너지는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이동함을 보여 주는 데, 감정적 에너지가 중간 단계에 이르렀을 때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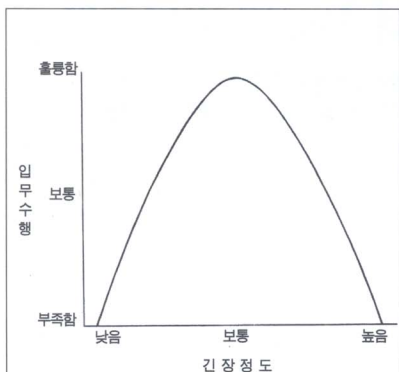


그림 6.2 < 역(逆) - U원칙 가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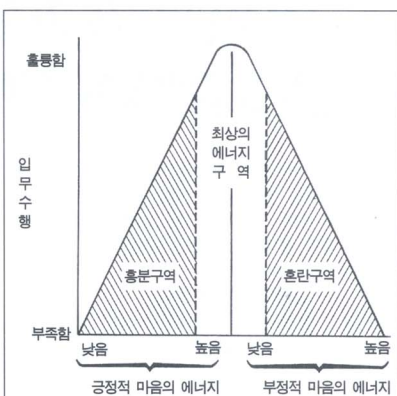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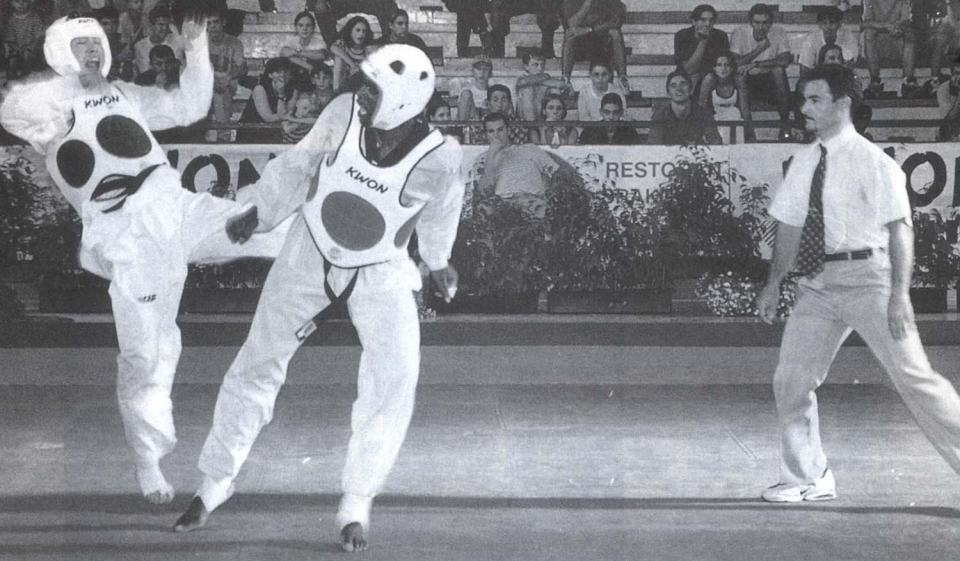


그림 6.3 < 긍정적 에너지와 부정적 에너지, 그리고 임무수행간의 관계 >



▲심판은 긍정적 감정이 최고치일 때 임무수행을 제일 잘 할 수 있다.

무 수행이 최고치를 기록한다.

수정된 역(逆) - U 원칙의 설명에서, 감정적 에너지는 긍정적인 경우와 부정적인 경우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최고의 임무 수행 영역은 부정적인 에너지의 혼란이 없고 긍정적인 감정의 에너지의 양이 최고치인 구간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당신은 비록 어느 정도 불안과 긴장과 같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이에 맞먹는 높은 긍정적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심판 일을 잘 해내고 있고, 앞으로도 더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그럼 61을 참조하면 당신은 왜 최상의 임무 수행

긍정적인 마음 가질 때 최고의 임무수행 최상의 감정상태 위해 적당한 긴장유지 필요

Martens 의 역(逆) - U 원칙의 개념 정리화에 따르면,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의 관계는 중요한 임무 수행 결정 요소다. 그렇다면 이제 목표는 부정적인 에너지는 없애는 반면 높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다.

물론 이는 말처럼 쉽지가 않다.

심판들은 심판의 업무가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긍정적 에너지 부분인 제 4구역에서 가장 지속적으로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견해를 더 뒷받침하자면, 관련 종사자들은 그들이 높은 긍정적 에너지를 갖고 있고 부정적인 에너지가 없을 때 최고의 임무 수행을 할 수 있었다는 경험을 보고한 자료에서도 엿볼 수 있다.

다른 세 개의 구역에서 나타나는 감정적 상태들은 최상의 상태까지 이르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거기에는 너무 많은 부정적 에너지가 있거나(A구역과 B구역) 혹은 충분한 정도의 긍정적 에너지가 없기(C구역) 때문이다.

임무 수행의 개인차

비록 우리가 최상의 에너지 구역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마치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처럼 말했지만, 최상의 에너지 구역이 각 개인마다 다르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감정적 에너지가 낮은 수준에서도 일을 최고로 잘 해낸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개인차를 그림 6.4에서 볼 수 있다. 비록 임무 수행자 A와 B와 C 모두가 감정적 에너지와 임무 수행간에 역(逆) - U 관계를 갖고 있지만, 그들은 각각 독특한 최상의 에너지 구역을 갖고 있다. 그것은 왜 당신이 자신을 다른 심판들과 비교해서는 안되는가를 말해준다. 사람들은 서로 다르므로 당연히 기능이 다를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감정적으로 준비



▲심판은 모자라거나 넘치지 않는 긴장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긍정적인 마음으로 심판을 보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를 하는 간에 신경쓰지 말고 자신의 감정적 상태를 최상의 상태에 이르게 초점을 맞추라.

이 장의 나머지 부분은 훈련들, 기술들, 그리고 당신이 자신의 이상적인 임무 수행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제안들을 제공할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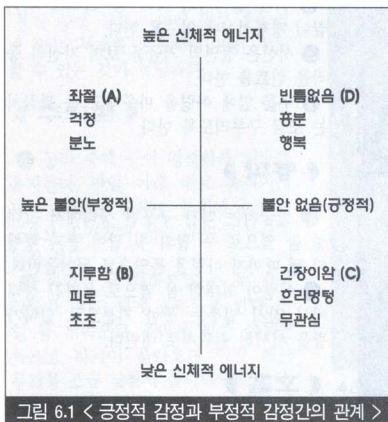


그림 6.1 <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간의 관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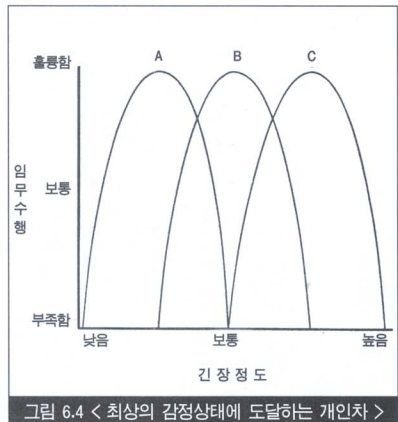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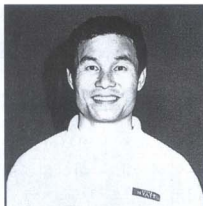


그림 6.4 < 최상의 감정상태에 도달하는 개인차 >

전문가가 지도하는

태권도를 위한

시범 : 이 호 열
(태권도 공인 7단 / 국기원 심사위원)



지도 : 박영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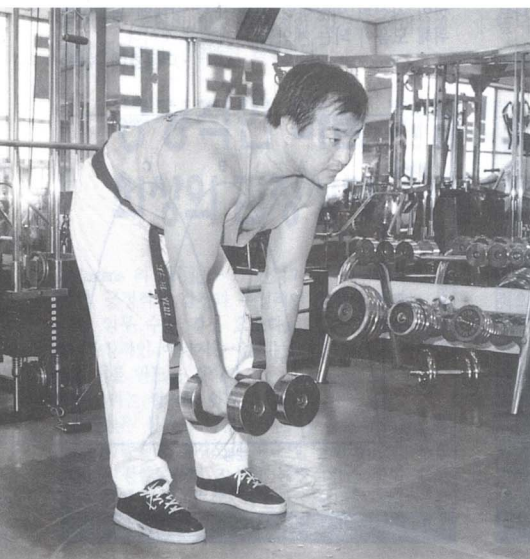
'76 미스터 코리아
'82, '86, '88 미스터 아시아
'88 미스터 유니버스 3위
'89 월드컵 2위
하이아트호텔 체력관리센터 부장

웨이트 트레이닝

허리

리를 앞으로 구부리고 실시하는 운동에 있어서 무게를 잘 다루려면 복직근과 요배근이 잘 발달되어 있어야 한다. 즉 바꾸어 말하면 위의 두가지 근육이 조화를 이루어 잘 발달되지 않으면 허리의 부상을 입기 쉽다는 의미이다.

허리 앞으로 구부리고 아령 몸 앞으로 들어 올리기 *BENT OVER DUMBBELL LATERAL RAISE*



❶ 자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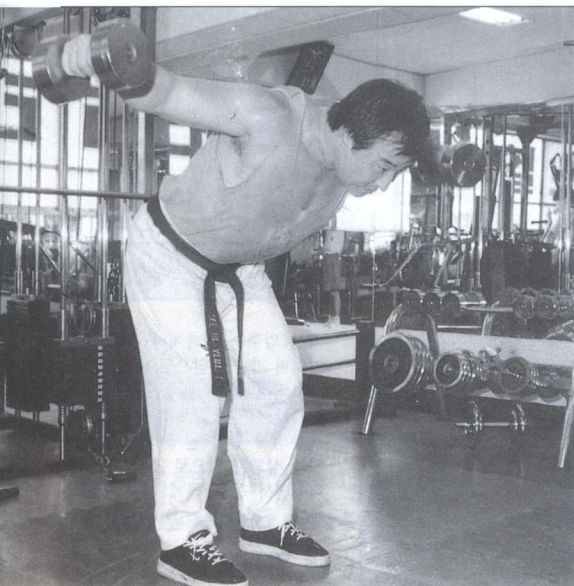
- 1 어깨넓이로 발을 벌린 자세에서 무릎을 약간 구부려 상체를 앞으로 구부린다.
- 2 이때 실시자의 목과 등, 그리고 허리 끝이 평행선상에 있도록 한다.
- 3 시선은 정면의 거울을 보며 자신의 동작을 컨트롤 한다.
- 4 무릎 앞에 아령을 마주대고 두 팔꿈치는 조금 구부리도록 한다.

❷ 동작

- 1 발꿈치는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그대로 몸 옆으로 두 팔의 윗 팔이 등과 평행이 될 때까지 아령을 몸 옆으로 들어올린다.
- 2 아령이 최대한 몸 옆으로 올라간 상태에서 잠시 멈추는 듯한 기분으로 있다가 팔을 서서히 원위치로 내린다.

❸ 호흡

- 1 코로 숨을 들이 마시며 아령을 몸 옆



중에도 항상 바닥을 향하도록 한다.

④ 팔꿈치는 항상 조금 구부러진 상태에서 실시하는 것이 팔꿈치 관절에 자극을 줄일 수 있으며 보다 더 무거운 무게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⑤ 허리에 부상이 있는 경우에는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이마를 책상이나 의자 모서리에 대고서 실시하거나, 한 손으로 의자나 책상을 잡고 한 손으로만 실시하여 교대로 실시하면 허리에 부상을 줄이며 똑같은 운동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 용용동작 ▶

① 아령대신 케이블(CABLE)을 사용하면 삼각근과 견갑골에 지속적인 긴장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② 허리에 부상이 있는 경우에는 한 손으로 의자나 벤치 모서리를 잡고 한 손에 아령을 잡고 실시할 수 있다.

③ 아령을 잡은 손바닥이 무릎 쪽을

으로 들어올린다.

② 입으로 숨을 내뿜으며 아령을 잡은 팔을 서서히 원위치로 내린다.

◀ 알맞은 무게와 횟수 ▶

동작 중에 상체가 아래 위로 흔들리지 않는 무게를 사용하여 10번 정도 할 수 있는 것이 적당하다.

◀ 주의점 ▶

① 동작 중에 등이 평평하게 되도록 유지한다. 만일 아래 위로 움직이게 되면 자극은 원하는 부위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지며 허리 부위에 부상을 입기 쉽다.

② 아령이 몸 옆쪽으로 즉 두 팔의 각도가 180도 되게 올리도록 한다. 만일 몸 뒤쪽으로 올리게 되면 삼두근 쪽으로 자극이 옮겨오며 이럴 때는 무게를 조금 낮춰서 실시하도록 한다.

③ 두 손은 아령을 잡았을 때 손바닥이 아래쪽을 향하도록 하며 동작



▲손과 발을 사용해 공격과 방어를 하는 태권도 경기에서 선수들은 자신의 몸을 조정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은 이 점에서 유리하다.

항하게끔 하고서 실시하면 삼각근 후면을 집중적으로 자극하게 된다.

- 능형근
- 소원근

◀ 발달 근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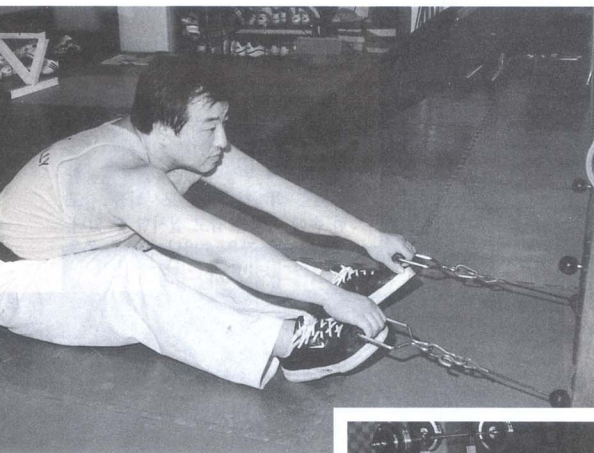
- 삼각근(POSTERIOR) : 후면
- 승모근

◀ 발달 동작 ▶

- 야구의 배팅, 테니스의 백스트로크, 양궁에서의 줄 뒤로 잡아당기기 등의 동작의 발달

앉아서 케이블 잡아 당기기

SEATED CABLE ROWING



약간 멈추는 상태에서 등을 뒤로 기대며 가슴을 앞으로 내민다.

③ 천천히 팔을 앞으로 내밀며 상체를 서서히 앞으로 숙인다.

④ 양쪽 팔이 곧게 펴진 상태에서 서는 상체가 앞으로 조금 숙인 상태이면서 등을 곧게 펴져 있도록 한다.

◀ 호흡 ▶

① 코로 숨을 들이마시며 바를 배쪽으로 잡아 당긴다.

② 바가 배에 닿기 전까지는 호흡을 멈추지 않도록 한다.

③ 입으로 숨을 내쉬면서 상체를

◀ 자세 ▶

① 두 손에 케이블 바를 잡고 서 양 발을 받침대에 놓고서 무릎을 15도 정도 구부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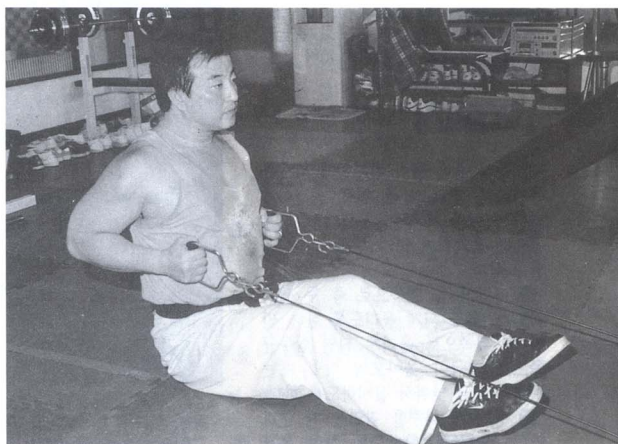
② 이 때 두 손의 위치가 서로 손바닥이 마주보게 되는 중립 손잡이가 바람직하다.

③ 등은 곧게 유지하며 시선은 정면을 응시하도록 한다.

◀ 동작 ▶

① 바를 아래배로 잡아 당기며 등을 약간 뒤로 젖힌다.

② 바가 아래배에 닿는 순간,





최대한 스트레치가 되도록 한다.

③ 항상 무릎을 조금 구부려서 요추부위에 부담을 줄이도록 한다.

④ 일정하게 호흡을 해서 최대한의 운동효과와 부상의 위험을 줄이도록 한다.

《 응용동작 》

① 바를 잡은 손의 손바닥이 천장을 향하도록 하면 광배근 아랫부위에 자극이 올라가게 된다.

② 팔꿈치를 옆구리에 붙이면서 운동을 실시하면 광배근 아랫부위를, 또 몸 바깥쪽으로 구부리면 어깨 뒷부분과 견갑골 부위의 근육을

앞으로 조금 숙이면 바를 앞으로 내민다.

《 알맞은 무게와 반복횟수 》

정확한 동작으로 12번 내지 15번 할 수 있는 무게가 적당하다.

《 주의점 》

① 동작 중에는 항상 등이 곧게 펴져 있도록 한다. 만일 등그런 등을 만들게 되면 허리에 부담을 주게 된다.

② 주어진 가동범위를 최대한 사용하도록 한다. 즉, 바를 배에 갖다대고 가슴을 앞으로 내밀어 등근육이 최대한 수축하도록 하며 상체를 앞으로 조금 숙이며 팔을 앞으로 내밀어 등 가운데 근육을

육을 발달시키게 된다.

《 발달 근육 》

- 삼각근
- 승모근
- 삼두근
- 이두근
- 광배근
- 능형근

《 발달 동작 》

- 조정 동작의 강화
- 끌어 당기기(CLINCH) 동작의 강화
- 테니스의 스트로크 강화

★ 트레이닝 도움말

‘어떻게’ 섭취하느냐가 중요

보통 영양학자들은 “You are what you eat” 즉, 영양상태가 신체상태를 가리킨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무엇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한다.

예를 들어 오렌지 주스와 우유를 같이 마시면 위속에서 많은 가스를 발생시켜 소화를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식사를 할 때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한꺼번에 많이 섭취하기 보다는, 단백질을 많이 섭취할 때는 탄수화물의 양을 적게하거나 또는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할 때는 단백질의 섭취를 줄임으로써 소화와 영양의 흡수를 도울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99 세계선수권 일본이 금 8개 차지 한국은 은 1, 동 3으로 10위에 그쳐

85개국에서 572명이 참가해 영국 버킹검에서 치러져 10월 10일에 막을 내린 '99 세계유도선수권대회에서는 일본이 사상 최다인 금 8개를 차지한 반면 일본 프랑스 등과 함께 유도 최강국 가운데 하나였던 한국은 은 1, 동 3 밖에 따지 못해 10위에 머무는 수모를 겪었다.

일본 신문과 유도전문 잡지에 실린 세계유도선수권 소식을 간추려 본다.

이번 대회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의 전조전이라고 할 수 있는 대회였기 때문에 한국유도의 부진은 시드니 올림픽에서의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어 레슬링, 태권도 등 다른 격투기가 잘 나가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번 대회의 특징으로는 수비위주의 「재미없는 유도」에서 벗어나 과감한 「공격위주의 유도」가 뚜렷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결승 16개 경기중 12개 경기가 한판승

남녀 16개 체급의 결승 가운데 12개 체급의 결승이 한판으로 판가를 난 것으로 알 수 있듯이 관중들로서는 볼만한 경기대회였다고 할 수 있겠다.

IJF(국제유도연맹)의 집 고지마(캐나다) 심판위원장은 대회가 끝난 뒤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이야기했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를 통틀어 이렇게 재미있었던 대회는 처음이다. 관중들도 충분히 만족했으리라 생각한다.」

일본이 극력 반대했던 컬러 도복이 세계선수권에서는 처음으로 이번 대회에 채용돼 관중들은 공격과 수비의 기술이 엇갈리는 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

개막전에는 깃이 두꺼운 도복착용 문제로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으나 IJF쪽의 개정 이전에 심판위원회의 자주(自主)규제로 깃이 두꺼운 도복 착용은 금지시켰다.

깃이 두꺼운 도복은 상대방이 잡기 힘들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었으나 착용금지가 효과를 거둔 탓인지 첫날부터 선수들은 적극적인 공격위주의 유도를 펼쳐 환승이 자주 눈에 띄었다.

유럽세를 중심으로 쓰여져왔던 반칙을 이끌어내기 위한 위장공격도 줄어들었으며 정확한 기술로 승패를 가리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이유를 우에무라 하루끼 일본선수단 부단장은 다음과 같이 풀이했다.

「다른 나라들의 기술수준이 정말로 일본에 접근해 옴으로써 반칙 이끌어내기를 중시해왔던 종래의 생각이 부정되어 한판에 집착하는 유도가 부활한 것이라고 여긴다.」

요즘 IJF의 움직임에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었다.

세계유도선수권대회 국가별 메달획득 순위

순위	나	라	금	은	동	계
1	일	본	8	2	1	11
2	쿠	바	4	2	2	8
3	영	국	1	0	3	4
3	프	랑스	1	0	3	4
5	폴	란드	1	0	0	1
5	미	국	1	0	0	1
7	중	국	0	2	1	3
7	벨	기에	0	2	1	3
7	터	키	0	2	1	3
10	한	국	0	1	3	4
17	북	한	0	0	2	2

전문지들이 전하는 세계 격투기 소식

를 개정과 함께 경기내용이 따라야

올림픽 경기로서 살아남기 위해 킬러도복을 채택하고 단조롭다고 여겨지는 누르기의 포인트시간을 5초씩 단축하는 등 TV 방영을 배려하는 등 세 일즈에 필사적이었다.

그러나 룰 변경과 함께 경기내용이 인기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이번 대회에서 확인됐다.

심판원들의 의식개혁도 주목할 만하다.

중전에는 반칙을 너무 빨리 잡아 심판이 경기를 컨트롤하려는 경향이 필요이상으로 강했으나 이번 대회에서는 서로 잡은 상태를 계속시킴으로써 포인트를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었다.

다만 기술의 판정에 대해서는 미숙한 심판이 있어 몸이 높게 뜬 것만으로 「한판」을 불렀다가 당황해서 「효과」까지 포인트를 내리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 대회부터는 한판승으로 가장 많이 이긴 선수에게 「한판 트로피」가 주어지게 되어 남자는 일본의 시노하라, 여자도 일본의 마에다가 각각 그 영예를 안았다.

올림픽 전년 세계선수권자의 부담

일본은 남자부에서 3명이 4개의 금메달을 여자부에서 4명이 금 4개를 각각 따냈다.

남자부의 시노하라 신이찌는 100kg이상 급과 무제한 급에서 각각 금메달을 획득함으로써 세계최강자로 떠올랐다.

일본여자자유도의 간판스타인 다무라 료코는 48kg급에서 우승, 사상 세번째로 세계선수권 4연패를 이

록, 막강함을 자랑했다.

한국의 박성지는 준결승에서 다무라로부터 먼저 「효과」를 빼앗아 좋은 스타트를 끊었으나 그 뒤 다무라의 공세에 밀려 주의를 빼앗기고 허리후리기로 「효과」를 추가당해 아깝게 지고 말았다.

그러나 거의 모두가 신인으로 이루어진 한국이 이



▲일본은 '99 세계유도선수권대회에서 남자 3명이 4개, 여자 4명이 4개 모두 8개의 금메달을 따내 세계최강을 자랑했다. 여자선수 왼쪽으로부터 두번째가 세계선수권 4연패의 다무라.

번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였는지도 모른다.

일본유도대표팀의 남자감독인 야마시마는 이렇게 평했다.

「쿠바의 남자가 두각을 나타낸 것을 빼놓고 유럽세의 친구 교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신진들로 모두 바꾼 한국도 이번 대회에서는 역부족이었다고 보아야한다.

올림픽 전년의 세계선수권 우승자는 각국 선수로부터 마크를 당하기 때문에 올림픽에서는 매우 고전하게 된다. 이번 대회에서 일본이 매우 좋은 성적을 올렸다고 마음을 놓는 것은 위험하다.

앞으로는 세계선수권대회에서의 압승이라는 실적을 마음 속으로 모두 버리고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자세로 선수강화에 힘을 기울여야한다.

'96 애틀란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북한의 계순희는 52kg 준준결승에서 일본선수에게 한판으로 지고 말았으며 북한은 동 2개로 17위였다.

전문지들이 전하는 세계 격투기 소식

가 라 데 KARATE

환갑을 지나고도 막강했던 무도인들 극진회관 노초웅 고문을 경악시킨 무예

실전무도(實戰武道)인 극진가라데는 창시자인 재일동포 최영의 관장이 5년전 세상을 떠나고 난 뒤 몇갈래로 갈라졌다.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최영의 관장이 생전에 「내가 죽고나면 극진가라데는 분열되고 말 것이다」라고 내다보았던대로 상황은 돌아가고 있다.

그러나 최영의 관장의 유언에 따라 극진회관 관장으로 취임한 재일동포 문장규(일본이름 마쓰이 쇼케이)은 같은 한국계 선배인 노초웅 고문 등의 도움을 받으면서 최영의 관장으로부터의 정통성을 이어 받은 문장규파 극진가라데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파괴력 강한 하단 돌려차기의 노초웅

문장규 관장이 존경하고 의지하는 노초웅 고문은 현역시절 파괴력 강한 하단차기로 이름을 떨쳤던 인물이다. 170cm 65kg으로 작은편이었으나 현역시절 그의 상단 돌려차기는 위력이 있었으며 세월이 흐를수록 하단 돌려차기를 갈고닦아 야구배트를 부러뜨릴만한 파괴력을 지니게 됐다.

극진회관 본부 지도원이었던 노초웅은 최영의 관장이 명에 따라 몸집 큰 외국으로부터의 가라데 유학생에게 본때를 보이는 임무를 주로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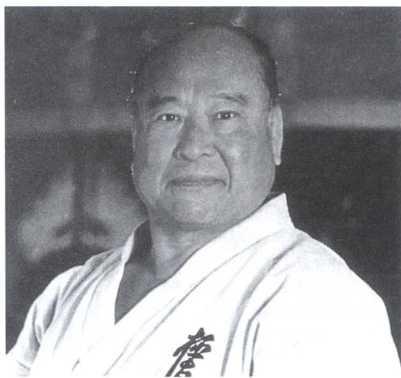
「해외로부터 온 유학생에게는 극진가라데의 막강함을 보여주어야한다. 입으로만 말해서는 잘 듣지 않는다. 때려눕혀서 몸으로 가르쳐주어야 한다」

180cm가 넘는 외국으로부터의 유학생들을 노초웅은 차레차레 때려눕혔다.

나이도 젊었던 때라 노초웅의 쿨대가 높아졌던 것도 무리는 아니다.

〈사범적인 선배를 제외하면 내가 가장 강한 것이 아닐까?〉

그러나 노초웅은 네덜란드에서 온 카렌바치에게



▲작고한 극진가라데의 창시자 최영의 관장(일본이름 오오야마 마쓰다쓰)은 같은 한국계인 제자 노초웅을 두고 「제1회 세계선수권 때 일본의 심판들의 편파적 판정이 아니었다면 우승했었다」고 말했다.

흔썩이 나고 만다.

당시 노초웅은 2단 카렌바치는 3단이었으나 노초웅은 <그래 보아야 해외의 3단이다. 실력으로 하면 내가 이길 수 있을 거야>라 생각하고 있었다.

일본의 유단자 모두하고 돌아가면서 겨루기를 원했던 카렌바치는 어느날 오후 노초웅에게 정중히 겨루기를 요청했다. 그래도 혹시 망신이나 당하지 않을까 여긴 노초웅은 10명 가량이 훈련하고 있는 2층 도장을 회해 1층 도장에서 안으로부터 문을 잠그고 겨루기를 가진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다.

190cm 100kg 넘는 몸무게의 카렌바치와 마주선 노초웅은 새삼 상대의 몸집에 놀랐으나 과감하게 상단 돌려차기 뛰어올라 정권지르기를 시도했으나 하나도 닿지 않았다.

차츰 거리를 좁혀오는 카렌바치에게 밀려 뒤로 물러나는 노초웅의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었다.

전문지들이 전하는 세계 격투기 소식

가끔 카렌바치가 내지르는 가벼운 앞차기를 맞고 는 허공에 뜨고 퍼스톤처럼 내뿜는 정권지르기에 샌드백처럼 얻어 맞았다.

할 수 없이 몸을 숙여 택클해 들어갔더니 유도도 3단인 카렌바치는 쉽사리 모두발걸기로 노초옹을 쓰러뜨렸다.

몇차례 패당이질 당하고 조르기로 실신하기 직전 때마침 최영의 관장이 붙일 있다고 노초옹을 부르 러 제자를 보내는 바람에 그는 살아날 수 있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 노초옹은 깊은 좌절감에 사로 잡혔고 만다.

〈나는 평생동안 나보다 체력이 강한 자에게 이길 수 없는 것이 아닐까? 한사람이 몇사람을 단숨에 쓰러뜨리고 곱이나 몸집 큰 상대를 한대에 때려죽 이며 나이가 들수록 원숙(圓熟=나무랄데 없이 익 속함)해지고 강해지는 가라데란 실제로는 존재하 지 않는 것일까?〉

그뒤 노초옹은 한때 극진가라데를 떠나 킥복싱에 몸을 담는다. 킥복싱로서의 데뷔전에서 태국의 쿡 수크 카타피트를 3회 KO로 물리친 노초옹은 매일 공원에서 킥복싱 훈련에 땀을 흘리고 있었다.

쿵푸의 달인 사와이의 가르침

어느날 한사람의 노인이 가만히 노초옹의 훈련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노인은 최영의 관장의 친지인 중국 쿵푸의 달인(達人=어떤 분야에 통달한 사람) 사와이 겐지였다.

『자네는 극진회관에서 본 적이 있는데 지금은 무 엇을 하고 있나?』

노초옹은 킥복싱을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조용히 노초옹의 훈련을 지켜보던 사와이는 다시 노초옹에게 말을 건넸다.

『자네. 이번에는 나를 힘껏 발로 차보게. 가르쳐 줄테니...』

노초옹은 망설였다.

〈아무리 쿵푸의 달인이라고 해도 60세 넘은 몸집 작은 노인을 어찌 찰 수 있겠는가?〉

할 수 없이 가볍게 상단 돌려차기를 날려보았다.

그러자 사와이는 그 순간 허리를 낮추고 바짝 노 초옹에게 다가갔다. 눈깜짝할 사이에 노초옹은 엉덩방아를 찧고 말았다.

어안이 빙빙해진 노초옹이 앞차기를 날렸으나 사

와이의 몸에 닿을 수가 없었다.

사와이가 『이번에는 지르기를 해보라.』고 말했다.

노초옹은 있는 힘을 쥐어짜 사와이의 배를 향해 정권을 뻗었다.

그러자 정권을 내지른 순간 사와이는 그 손을 쳐서 노초 옹의 몸이 돌아가게 만들어 버렸다.

사와이는 차분히 말했다.

『공격도 그렇고, 수비고 그 랑고 이치(理致=사물의 정 당한 조리)에 맞아야 한다. 이치에 맞으면 나이가 들어 도 시들지 않고 오히려 나이 와 함께 원숙해진다. 기(氣)의 힘을 보여주겠네. 힘껏 나를 잡아보게.』

노초옹은 두 손으로 사와이 를 붙잡고 자신의 허리를 낮 추어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사와이가 물었다.

『다 잡은 거나?』

『네!』

기합소리와 함께 무서운 힘 으로 쳐서 잡았던 노초옹의 손을 놓치게 했다.

『이것이 기의 힘이다. 이번에는 내가 자네를 지를 테니 건드려보게.』

사와이는 자신의 주먹을 노초옹의 배에 던 채 기 합과 함께 가볍게 찧었다. 그러자 사와이의 손이 노초옹의 배에 박혀들어가 등에 통증을 느꼈다.

저도 모르게 노초옹은 자신의 배를 움켜쥐고 신음 소리를 내배알았다.

사와이가 타이르듯이 말했다.

『이것이 기의 힘일세. 순간적인 폭발력이 있으면 되는 거야. 이 기의 힘이라는 것은 나도 처음에는 몰랐네.』

사와이는 2차대전 중 일본 관동군의 특무기관원으 로 일본에서 찍은 가짜 중국지폐를 뿌리면서 스과 이 업무를 수행했었다.

그러던 어느날 한 중국인의 소개로 대성권(大成 拳)의 종수(宗帥= 으뜸 스승)인 왕항제를 만났다.

60살 넘은 왕항제가 30대인 사와이를 가르쳐 준다 고 하자 처음에는 <이렇게 작고 늙은 노인이 무엇을



▲노초옹의 하단 돌려 차기는 야구배트를 부러뜨릴 만치 위력 이 있었다.

전문지들이 전하는 세계 격투기 소식



▲노초옹은 초대 관장인 최영의의 뜻을 받들어 후배인 문장규를 도와 극진 가라데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가르쳐준다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던다.

그러나 막상 맞서보니 사와이의 몸은 2~3cm씩 뒤틀려져 나가기만 했다.

사와이는 그로부터 1주일 동안 밤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을만치 강한 쇼크를 받았다.

『제자로 삼아달라.』는 사와이의 요청을 거절했던 왕항제는 한달 동안이나 꾸준히 찾아가 조르는 사와이의 정성과 『평생 무술훈련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그의 각서를 받고서야 입문을 허락했다.

왕항제로부터 사와이로 이어진 쿵푸를 노초옹은 배우기로 마음먹었다.

로 나가서 얼마뒤 뒤로 물러선다. 허리를 곧게 편 상태로 두손을 높이든 자세로 슬로 모션처럼 이동한다. 한발자국 나갈 때마다 한쪽다리에 모든 무게가 실린다.

사와이는 이것만을 3년 동안 계속했다.

사와이는 힘들어서 몇번이나 이 훈련을 그만두고 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혈서까지 써놓았기 때문에 그만둘 수도 없었다. 그러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자세가 바르게 되고 정신이 안정되어갔다. 기맥(氣脈) 혈액(血脈)도 좋아졌다. 원래 사람이 지니고 있는 본능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 됐다. 상대의 공격김새를 알아차리게 되면서 반격도 가능해졌다. 사와이는 12년 동안 왕항제에게 배웠던 2차 대전이 일본의 패망으로 끝나자 사와이는 자결하려고 했으나 스승인 왕항제가 『왜 일본사람은 결핍하면 죽음밖에 생각하지 않느냐. 너는 일본으로부터 중국으로 건너와 쿵푸를 배웠다. 배운이 상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의무가 있다. 일본에 돌아가 가르치라.』고 타이렸다.

사와이는 스승의 말에 따랐다.

사와이는 노초옹에게 타이르듯이 말했다.

『가라데의 품세를 배웠다고해도 어둠속에서 기습당한 경우 사람은 엉뚱한 동작을 취한다. 물론 배운 품세를 쓰면 되지만 그때 어떤 움직임을 나타내는가는 평소 훈련의 결과다. 무의식속에서 나오는 근본적인 움직임. 그것을 알고 닦기 위해 훈련을 하는 것이다. 체력차(體力差)도 상관없고 나이들어 도 이 힘은 시들지 않는다. 평생 계속하라.』

무척 힘이 드는 세가지 훈련

훈련은 세가지 뿐이었다.

첫번째는 허리를 낮추어 무릎을 안쪽으로 향하게 해서 뒷꿈치를 조금 들어 올린다. 이렇게 하면 싫더라도 양쪽발의 엄지 발가락에 몸의 중심(重心)이 실린다. 이때 상체는 곧바로 세우고 두손은 큰 볼을 안듯이 원을 만든다. 5개의 손가락은 살짝 떨어져 있으면서 오른손가락과 왼손가락 사이에 기(氣)가 서로 흐른다.

처음에는 5분 가량하면 다리가 떨리기 시작한다. 끝난 뒤에도 떨림은 그치지 않는다. 노초옹은 처음부터 이것을 15분 가량 하도록 지시를 받았다.

첫번째 훈련이 끝나면 두번째 훈련으로 들어간다. 두번째는 아랫배에 모아둔 기(氣)를 호흡법에 따라 단숨에 폭발시키는 방법이다. 온몸의 힘을 뺀 상태에서 아랫배로부터 쥐어짜는 듯한 기압을 지르며 순간적으로 힘을 집중시킨다. 그때는 두손을 가지런히 해서 무엇인가를 위로부터 짓누르듯 단숨에 손바닥을 통해 기를 폭발시킨다.

마지막 세번째로 땅바닥을 기어가듯 천천히 앞으

나까무라 10단과의 만남



▲차원이 다른 가라데를 노초옹에게 가르친 나까무라 히데오 10단(무덕회).

노초옹이 킥복싱과 훈련과 함께 사와이가 가르쳐준 쿵푸훈련에도 맘을 홀리고 있었다. 극진가라데 후배의 소개로 다른 유파의 가라데 거물인 나까무라 히데오(무덕회 10단)를 알게됐다.

나까무라는 명문 교토대학 출신이며

전문지들이 전하는 세계 격투기 소식

교토에서도 도쿄의 신주쿠에도 야마나시에서도 폭력단 10여 명과 싸워 정당방위였지만 몇사람을 죽음에 이르도록 만든 강호.

〈아니 어떻게 이토록 작은 사람이...?〉

처음 나카무라를 만나본 노초웅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나카무라는 165cm의 키에 안경을 쓰고 있어 무도인(武道人)이라기보다 학자같은 인상이었다.



▲쿱의 한 유파인
대성권(大成拳)의 창
시자인 왕항제.

무라는 앞으로 쭉쭉 나오더니 노초웅의 손을 어떻게 찔는지 견딜 수 없는 심한 통증을 손에 느꼈다.

나카무라는 노초웅의 왼손을 찔다기보다 켜 것이 다. 통증에 정신이 나간 사이 노초웅의 몸은 허공에서 한바퀴 돌고 바닥에 떨어졌다. 노초웅이 쓰러진 뒤에도 나카무라는 손을 놓지않아 노초웅은 꼼짝할 수가 없었다.

노초웅은 한동안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고 가슴도 두근거리며 두려움 때문에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그다음 나카무라는 한번의 길이가 7~8cm되는 길이 40cm 가량의 각목을 가지고 나와 한쪽 끝을 바닥에 대고는 나무젓가락 꺾듯이 손날로 분질러 버렸다.

이번에는 그 각목을 비스듬히 세우고 또하나의 각목으로 받친 뒤 하단 돌려차기로 두개의 각목을 모두 분질러 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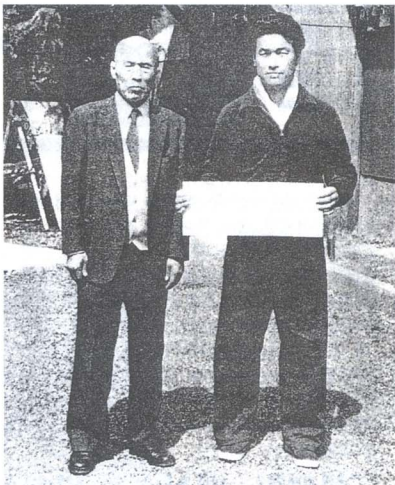
나카무라의 제자가 된 노초웅은 4년 동안 옛날 무도인의 가르침 그대로 지도를 받았다.

나카무라는 처음에는 아무 것도 안가르치다가 기

노초웅의 간청에 따라 나카무라의 지도를 받게된 이틀째 나카무라는 『자아, 자유 겨루기 훈련을 합시다. 어디로부터라도 좋으니 공격해보시오』라고 말하면서 두손을 벌렸다.

나카무라의 왼손은 얼굴높이 오른손은 명치팔 위치에 있었으며 양쪽 겨드랑은 조이고 있어 빈틈이 없는데다 엄청난 위압감을 풍기고 있었다.

노초웅은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가 알아보고 왼손 짚으로 나카무라의 안면을 노렸다. 그러자 그순간 나카



▲쿱의 달인 사와이(왼쪽)로부터 지도자 자격증을 받은 노초웅.

회를 보아 한수씩 가르쳐 나갔으며 하나의 움직임 하나의 동작을 깊이 파고들어가 심리상태 생리상태에 이르기까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타일었다.

노초웅은 나카무라로부터 기본 이동, 품새, 겨루기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가르침을 받았다. 허리높이 다리의 위치 간격, 심지어 얼굴표정까지 주의를 받았다.

나카무라는 늘 임버릇처럼 말했다.

『가라데인의 평가는 50살부터다. 50살이 되면 기력이나 체력이 쇠퇴하기 시작해 그때까지 몇십년 가라데를 해왔어도 잘못된 훈련을 쌓아왔으면, 예컨대 체력에만 의존하는 훈련을 해왔으면 50살 이후는 계속해 나갈 수가 없다. 그때까지 올바른 훈련을 해온 사람은 50살부터 더욱더 원숙해진다. 아무리 명인, 달인이라 불리워도 훈련으로부터 떠나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최영의 관장이 숨을 거두기전까지 도복을 입고 땅을 흘렀던 것처럼 뛰어난 무도인들은 평생 훈련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노초웅은 지금도 제자를 가르치면서 『원숙한 가라데』를 지향하고 있다.



얼마전 신촌에 있는 김동길 박사택에서 소문이
로만 들어왔던 그 맥의 냉면을 대접받았다.

최창식 전 씨름협회 부회장이 유제두, 홍수환, 박
찬희, 김환진 씨 등 그를 따르는 전 프로복싱 세
계 챔피언들과 함께 초청을 받았을 때 필자가 끼
어 김동길 박사의 누나인 고(故) 김옥길 이화여
대 총장이 살아계실 때부터 소문이 자자했던 이
북냉면을 맛보는 행운을 누릴 수 있었다.

그 이름난 김동길 박사택 냉면이라는 것이 시원
하고 독특한 동치미 국물에 모밀국수만 잠겨있는
것이였다.

세를 풀고 주먹을 맞은 노리스에게도 문제는 있
습니다。」고 덧붙였다.

그의 말에 따르면 공이 울리고 난 뒤 서로 한발
자국씩 물러나 양쪽 모두가 라운드 끝난 것을 확
인하고서야 방어태세를 푸는 것이 프로복서의 기
본이라는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경기에 열중하다보면 주먹은 마
구 나가게 마련이고 일단 날린 주먹을 공이 울렸
다고 도로 불러들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필자가 홍수환 씨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눈
것은 그가 현역선수로 활약했던 시절이었으니 약

「핵주먹」 타이슨의 반칙으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하나?

스스로를 억제하고 이기는 극기(克己)의 중요함

『김박사님, 이것이 진짜 냉면의 원래 모습입니
까?』라고 필자가 묻자 『그렇소, 아무 것도 없지요
않는 것이 본래의 냉면입니다.』하는 대답이였다.

가만 있자, 사실은 냉면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
니라 냉면을 함께 먹던 홍수환 씨의 말을 빌어
자기억제라는 주제의 뚜껑을 열려는 것이 그만
이야기가 셋길로 들어가고 말았다.

세계챔피언 출신이 4명이나 한자리에 모였던 점
심식사라 김동길 박사는 재치있게 이 모임에 『힘
깨나 쓰는 사람들의 모임,이란 재미있는 이름을
붙였고 바로 며칠전 「핵주먹」 마이크 타이슨이
울린 노리스와의 경기도중 1회 종료의 공이 울리
고 난 뒤 노리스에게 일격을 가함으로써 「노 콘
테스트」(NO CONTEST)가 되고만 사건이 화제에
올랐다.

『한국의 프로복서 가운데는 공이 울리고난 뒤
주먹을 날리는 사람은 없습니다.』라고 홍수환 씨
는 말한 뒤 『그러나 공이 울린 바로 뒤에 방어태

20년 전의 일이다.

그러나 다재로웠던 그의 복싱기술만치나 좋았던
그의 입심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홍수환 씨의 말이 맞다. 링 위에서 공이 울렸다고
바로 방어태세를 풀어버리는 것은 위험하다.

실생활에서도 건널목의 신호등이 푸른빛으로 밝
귀었다고 바로 발을 내디뎠다가는 신호가 바뀌기
전에 속력내고 지나가려던 자동차에게 치일 수가
있다. 그러나 이번에 타이슨이 공이 울린 뒤에 노
리스를 가격한 것은 실수였다기보다 자기자신을
통제하지 못해 감정을 폭발시킨 일격이라는 견해
가 꽤 강해 타이슨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

미국의 일간 유에스에이 투데이(USA TODAY)
에 스포츠 칼럼니스트인 존 사라세노는 다음과
같이 썼다.

『자기자신을 컨트롤 못하는 프로복서는 보잘것
없는 인간이다. 그런 점에서 타이슨은 보잘것 없
는 인간이다.

만약 커스 다마토(타이슨에게 복싱과 함께 어떻게 살아야하는가를 가르친 인물)가 살아있었다면 몸부림치는 타이슨에게 복싱이란 무엇인가를 새삼 일깨워주려 했을 것이다.

타이슨은 자기수련으로 마음속의 악마를 억누르고 지배할 수 있어야 지난날 굴복했던 헤비급 왕좌의 자리를 다시 차지할 수가 있다. 링 안에서나 밖에서나 자기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한다면 타이슨은 끝장이다。」

그러지 않아도 이벤트 홀리필드의 귀를 물어뜯어 한동안 링에서 추방당했던 타이슨은 프로복서로서는 결코 젊다고 할 수 없는 33살이다.

그가 무하마드 알리와 이벤트 홀리필드의 두사람만이 기록한 헤비급 정상 3차례 정복의 꿈을 이루려면 가장 먼저 자기자신에게 이겨 자기자신을 컨트롤 할 수 있게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자기자신을 컨트롤 못하는 바람에 타이틀매치에서 거의 다 따놓았던 헤비급 세계타이틀을 놓쳐버린 사나이도 있다.

1941년 6월 빌리 콘은 그때의 헤비급 세계챔피언인 조 루이스에게 도전했다.

조 루이스라면 헤비급왕좌에 11년 8개월 동안이나 군림하면서 25차례나 세계타이틀을 방어하고 1949년 3월 1일 스스로 타이틀을 내놓고 물러난 위대한 챔피언이다.

1939년 라이트헤비급 세계챔피언의 자리에 오른 빌리 콘은 뛰어난 테크닉을 밀친삼아 한체급 위인 헤비급의 왕좌를 넘보았다.

경기가 시작되자 관중들은 놀라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빌리 콘이 화려하고 뛰어난 테크닉으로 위대한 조 루이스를 첫 라운드부터 압도해나갔기 때문이다.

『빌리! 제발 지금까지처럼 떨어져서 싸워. 결코 서로 치고받을 생각은 하지마!』

세컨드는 빌리 콘에게 거의 애원하듯이 말했다. 누가 보더라도 12라운드까지는 빌리 콘이 압도적으로 포인트를 리드하고 있었다. 챔피언타이틀

은 거의 눈앞에 와 있는 것이다.

그때까지 빌리 콘은 치고는 빠지고 치고는 빠지는 아웃복싱으로 조 루이스에게 잡히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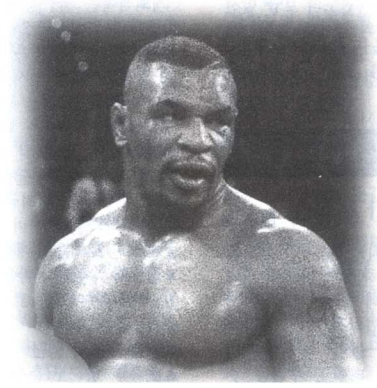
그러나 전통적으로 피가 뜨거운 아일랜드계인데다 확실한 리드에 강한 자신이 불어버린 빌리 콘은 세컨드의 충고를 무시하고 말았다.

13라운드에서 빌리 콘은 조 루이스의 방아자세에 큰 허점을 발견한 것처럼 착각했다.

〈이때다!〉하고 조 루이스를 KO시키기 위해 돌진하는 순간 눈앞에 캄캄해진 빌리 콘은 그대로 머리로부터 캔버스에 고꾸라지고 말았다.

발이 빠른 빌리 콘에게 그때까지 시달렸던 조 루이스는 빌리 콘이 돌진해 들어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번개같은 한 대로 경기를 뒤집어 끝내고 말았다.

만약 그때 빌리 콘이 〈KO로 이기겠다〉는 지난친 욕심을 내지않고 마지막 라운드까지 포인트만 착실히 쌓아나갔다면 헤비급타이틀의 역사는 달라졌을 공산이 크다. 자기자신을 억제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챔피언이 된 사나이와 챔피언이 될뻔한 사나이로 갈라지기도 하는 것이다. 자기자신을 이기고 억제한다는 극



▲자기자신을 컨트롤 못하는 한 「핵주먹」을 지니고 있어도 마이크 타이슨의 왕좌복귀는 가능성이 없다고

기(克己)는 모든 스포츠 특히 무도(武道)에서는 중요한 덕목(德目=도덕의 내용을 분류한 명목)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다.

지금의 용인대학교의 전신인 유도대학교의 창시자고(故) 이계황 교장은 그의 저서 「신유도」(新柔道)에 이렇게 썼다.

『모든 무도는 인내를 기초로 한다. 인내란 간단히 정의하면 가장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아 이기는 것이다. 모든 승고하고도 위대한 정신의 핵심적 기반은 오로지 극기(克己)를 기초로 하는 것이니 모든 무도의 덕은 곧 극기의 덕이다.』

하긴 자기억제는 비단 스포츠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속에서도 중요한 덕목이다. 태권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극기(克己)하는 삶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

부산광역시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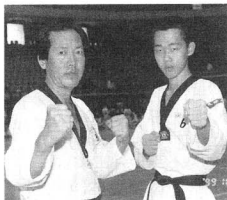
교육청별 소년태권도대회 개최

태권도의 꿈나무 선수발굴 육성을 위해 각 교육청이 주최하고 부산협회가 주관하는 소년태권도대회가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12일까지 동부, 서부, 남부, 북부, 동래 등의 교육청별로 각기 개최되었다. 그 동안 틈틈이 수련해온 태권도 꿈나무들이 열띤 경합을 펼친 이번 대회를 통해 태권도의 보급 발전은 물론 꿈나무 육성과 소속팀의 명예를 높이는 데 한 몫을 더하였다. 연일 치러진 교육청별 경기일정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고 질서정연한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손호준 리포터>

광주광역시협회

제 78회 승품·단 심사 개최

광주협회는 99년도 제 4차(78회) 승품·단 심사를 10월 3일 엄주체육관에서 실시하였다. 1품부터 5단까지 610여 명이 응심한 가운데 열린 개회식에서 김정록 원로관장(9단·체육관협의회장)은 응심자들을 격려하면서



▲부자 간에 태권도 심사에 응심한 박재열 씨(왼쪽)와 아들 시호

태권도 수련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무도정신을 함양하여 태권도인의 자긍심을 높이자고 강조하였다. 이어 지난 제 3차 심사대회에서 품새 및 겨루기부분에서 우수한 실력을 보여준 10명을 선발하여 표창하고 격려하였다.

이번 심사에서 부자간에 나란히 응심하여 눈길을 끌었는데 이들은 김삼곤 관장(광주협회 감사)이 지도하는 덕림체육관에서 함께 수련해 온 아버지 박재열(50세·교사) 씨는 4단에, 아들 시호(18세·고교 2년)는 3단에 응심하여 멋진 동작을 보여주었다. 특히 아버지 박재열 씨는 76년도에 태권도 3단에 승단한 후 교육계에 투신하여 시골 벽지학교 등을 전근 다니는 관계로 태권도 수련을 하지 못하다가

86년도에 광주로 전입 오게 되어 다시 운동을 시작하여 4단에 응심했다. <이병도 리포터>

울산광역시협회

제 3회 울산협회장기대회 개최

제 3회 울산광역시 협회장기 쟁탈 태권도대회가 10월 29일과 30일 이틀간 울산종합실내체육관에서 514명의 많은 선수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개회식에는 울산광역시 시장을 대신하여 참석한 박종화 문화체육국장은 축사를 통해 제 80회 전국체전에서 울산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기여한 태권도협회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며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황세열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전국체전에서 선전한 임원, 코치 및 선수들을 격려했으며 전국체전 여고부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고수진 선수 및 코치와 주무에게 격려금을 전달했고 전국체전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준 협회 발전에 기여한 지도자들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공로패 수상자 : 박종복(주무), 임재익(일반부 코치), 허현배(여고부 코치), 김용수(남고부 코치), 김윤식(동아체육관장)

■부별 우승자 명단

▲초등부 양근모(춘추체), 김규환(선인체), 서성철(우정초), 장세욱(오양초), 양봉수(삼일초), 김운(우정초), 김동우(옥서초), 이동현(상무체), 한찬희(옥서초), 박민재(옥서초), 김정범(화봉체) ▲중등부 (여) 김지연(유성체), 김아람(우정초), 윤미희(우정초), 남은혜(농소초), 이혜진(우정초), 박효성(선인체) ▲중등부 이명석(남창체), 문영훈(상무체), 윤성민(역도산체), 홍석수(동평중), 서동규(농소중), 정상현(동평중), 김경식(농소중), 최길호(동평중), 최재웅(동아체), 한삼일(동평중), 신현필(명선체) ▲중등부(여) 김진혜(동평중), 김근영(동평중), 이길문(옥동중), 서보영(옥동중), 정혜선(옥동중), 김민정(청량중), 우가현(옥동중), 김미진(옥동중), 강슬기(삼호중) ▲남고부 김대현(울산상고), 송정명(쌍용체), 하정민(방어진고), 강이성(방어진고), 김성우(나토안체), 황한삼(방어진고), 김자민영(방어진고) ▲고등부(여) 황지현(서여상고), 심지영(성광여고) 유영화(서여상고), 김현주(서여상고), 김미래(서여상고), 송희정(서여상고) ▲일반부 강철승(태극체),



전주석(역도산채), 윤용기(이화대덕채), 이영진(상무채), 김윤철(태극채), 정진환(명정채), 공진혁(남강채), 양득근(상무채) **▲일반부(여)** 정윤희(태극채)
〈박성배 리포터〉

대전광역시시합회

제 11회 대전광역시교육감기대회



▲우수한 경기력을 보여준 입상자들이 시상식에서 메달과 상장을 받고 있다.

장과 장태윤 전무 등 각계 인사 및 임원, 선수 약 9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지난해까지 경기가 없던 여 초등부가 신설되어 우수선수를 초등학교부터 연계하여 육성하게 될과 아울러 여고부 관저고가 창단돼 그 동안 낙후되었던 대전 여자선수들의 활성화를 기대하게 되었다.

■ 대회 성적 및 학교

▲ 종합우승 : 동대전초, 송강중, 서대전공고

▲ 개인전

남초부	여초부	중등부	남고부	여고부
노설우(중리)	이수연(동광)	최 준(갑천)	박은영(세일)	송나영(동양여)
송진기(후룡)	박영진(금성)	최정오(갑천)	한광호(명석)	백선애(진잠)
김재훈(양치)	노수정(대평)	문두수(대평)	정상환(명석)	조소라(양남)
고명설(대동)	이희연(세천)	황병현(중앙)	김영진(화명)	최지연(세일)
김수영(백운)	김혜선(문지)	최현오(동양)	김근수(남대전)	정지연(동양여)
정윤희(후룡)	권소연(단방)	김운영(법동)		
최명현(동대전)	이은희(법동)	진선중(동양)	김준진(대덕공)	김민정(명양여)
김대일(갑천)	지유선(문정)	박형국(동원)		
박범철(둔산)	이현진(진잠)	서기원(중앙)	노준호(계룡공)	양영은(둔산여)
전선민(서원)	이수희(동대전)	최정운(계룡)		
송건영(동대전)	홍주현(서원)	정승우(중리)	이성희(서대전공)	조수연(동양여)

〈임연우 리포터〉

강원도협회

제 4회 강원도지사기태권도대회 개최

제 4회 강원도지사기타기태권도대회가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속초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렸다.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일반부 경기가 펼쳐진 이번 대회에는 18개 시, 군에서 1,076명이 출전한 가운데 치열한 접전을 펼쳤다.

강원도와 강원도협회가 주최하고 속초시와 속초시협회가 주관한 가운데 열린 이번 대회는 '99 강원국제관광 엑스포 행사로 펼쳐져 더욱 의미가 컸다.

대회 마지막 날 시상식에서는 부별 입상팀을 비롯해 강원도태권도 발전에 공로가 큰 인사들에게 대한태권도협회 표창 및 강원도협회 공로상 수상자들에게 시상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 부별 우승 현황

▲단체 우승 : 초등부 후평, 흥천, 춘천교대 중등부 강원, 봉의여 고등부 기린고 일반부 철원군

▲지도상 : 흥천국제체육관 김태환

▲최우수선수상 : 강원중 김성규

▲대한태권도협회 표창 수상자 : 최홍영, 이광익, 류장훈, 박경수

▲공로상 수상자 : 전문철, 김호, 김봉수, 이종명

▲우수심판상 : 원인호, 이상규

코리아오픈 춘천태권도대회 흥보 미주태권도협회 70여 명 초청 설명회

춘천시가 내년 6월에 있을 『코리아오픈 춘천국제태권도대회』를 앞두고 미주지역 태권도협회(회장 이상철) 방문단을 초청,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세계 각국 선수단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유치 홍보 활동에 나섰다.

춘천시와 강원도협회에서는 지난 11월 3일 국민생활관 소회의실에서 미주지역 태권도협회 한국 방문단 70여명을 초청해 대회 준비 상황과 춘천의 관광 명소 등을 소개하고 새천년을 맞아 태권도 중추국에서 열리는 이 대회에 많은 선수의 참가를 요청했다.

특히 태권도 성전 춘천 유치와 관련 시의 유치 계

획 등을 설명하고 미주지역 태권도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춘천시는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12월 호주시드니에서 열리는 프레올림픽 태권도대회에 홍보 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전을 펴기로 했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대회 관련 홈페이지를 구축, 인터넷을 통해 세계 각국에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코리아오픈 춘천국제태권도대회는 내년 6월 24일부터 7월 1일까지 8일간 미국을 비롯한 세계 40여 개국 3,0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겨루기와 품새 경연 등 태권도 한마당 잔치를 펼친다.

(양희석 리포터)

경북태권도협회

제 36회 경북학도종합체육대회 포항시 교육청 우승

경북협회는 지난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포항 수산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제 36회 경북학도종합체육대회 태권도경기를 개최했다.

경북의 태권도 꿈나무들이 참가한 가운데 펼쳐진 이번 대회에는 고령초등학교가 3체급 우승자를 배출하며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주었고 중등부는 영신중이 4체급을 석권하는 활약을 펼친 결과 포항시 교육청이 종합우승, 경산시 교육청이 준우승, 고령군 교육청이 3위를 각각 차지했다.

■ 체급별 우승자 명단

▲초등부 전현범(고령), 지성철(고령), 이주형(청림), 손태진(중앙), 김재형(광평), 공강호(암랑), 최재민(성산), 이노현(광평), 이호형(문경), 백현수(춘양), 박준영(고령) ▲남중부 정대식(고령), 김수영(영신), 최준영(강주), 남상진(마성), 최병주(영신), 정민호(영신), 최대우(홍해), 이병훈(영신), 이준호(경북체), 민학기(점촌), 홍은준(봉양) ▲여중부 이현주(경안여), 박효영(고령여), 전해정(성산), 김희진(홍해), 조순영(고령여), 김지애(경북체), 박미영(경북체), 권현(안동여) ▲남고부 김세호(고령실), 김은철(금오공), 이은식(경북체), 이진욱(고령실), 손준석(금오공), 유봉선(금오공), 이형주(영천), 이동현(금오공) ▲여고부 김선희(홍해공), 서혜주(홍해공), 박주희(홍해공), 이희정(경북체), 박재향(경북체), 김혜정(성의여중)

(김태현 리포터)

충청북도협회

제 28회 충북도민체전 청주시 우승

“화합, 질서, 우정”이란 슬로건 아래 열린 제 28회 충북도민체전이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단양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

태권도 경기는 시군별 대표 5명이 출전, 3승을 먼저 저하는 팀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간혹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신세대와 구세대와의 대결이 펼쳐지기도 했다.

이번 대회에는 중평출장소 대표로 출전한 왕년의 국가대표 한재구 선수가 출전해 눈길을 끌었으나 상대방 선수의 기권으로 게임은 성사되지 못했다.

이날 경기는 청주시가 막강한 전력을 과시하며 단체우승을 차지했고 2위는 음성군, 3위는 청원군과 옥천군이 차지했다.

제 26회 충북교육감기대회 초·중·고 선수 630명 참가

제 26회 충북교육감기태권도대회가 지난 10월 30일과 31일 이틀간 보은군 보은농공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보은군 태권도협회에서 태권도성전 유치 기원사업의 하나로 도교육감기대회를 유치, 충북도 내에서 630명의 태권도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펼쳐졌다.

대회를 개최한 보은군 태권도협회 조상준 회장은 이번 도교육감기 유치에 공헌한 보은군민 회장 이재수, 주석회사 MPM 송시용, 보은군협회 최석환, 신은식, 류재민 전무이사, 보은군의회 김연정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경기결과 초등부에서는 충주 성남초가 우승을 차지했으며, 중등부 경기에서는 청주중학교가 5체급을 석권하며 종합우승을 달성했다.

한편 고등부 경기에서는 청주기계공고가 전 체급을 휩쓸며 우승을 차지했다.

이날 최우수상의 주인공은 월등한 기량을 펼쳐 차세대 유망주로 떠오르는 청주중 김상현 선수가 차지했다.

▲우수지도상 : 충주성남초 이충희 코치, 청주중 지민규 코치, 청주기계공고 권오철 코치



■ 각 부별 우승자

남초부	중등부	고등부
최준희(예성초)	신동호(충주중)	조준현(청주기공)
황인준(한솔초)	박두호(청주중)	김동석(청주기공)
최원호(성남초)	이영우(서원중)	이성범(청주기공)
황태연(성남초)	한대환(충주중)	유재형(청주기공)
이명환(풍광초)	이제훈(충주중)	김상혁(청주기공)
이상인(수성초)	유제경(청주중)	
박지훈(죽향초)	김상연(청주중)	
서정묵(동명초)	최준락(재천중)	
김시택(용암초)	김인기(청주중)	김용휘(청주기공)
김기범(내덕초)	안력모(한일중)	
서종환(대림초)	김효식(청주중)	김정호(청주기공)

제 2회 청원군협회장기타기대회
북일 수성초, 오창중 종합우승 차지

제 2회 청원군협회장기타기대회가 10월 9일 부용면 부강 생활체육관에서 청원군내 초·중 태권도 선수 160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초등부 경기에서 북일 수성초등학교가 3체급 석권으로 종합우승의 영광을 얻었다.
한편 중등부 경기에서는 오창중학교가 문의중학교를 근소한 차로 앞서며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제 2회 청원군 협회장기 타기 대회에서는 전 선수와 대회에 참가한 학부모까지 협회에서 점심을 무료로 제공하여 청원군협회의 훈훈한 정을 보여주었다.

〈단체 우승〉 ▲초등부 수성초등 ▲중등부 오창중
〈김경수 리포터〉

충청남도협회

도민 체육대회 천안시 우승 탈환

금세기 마지막 도민체전이 천혜 관광의 도시 보령시에서 “새 천년의 충남, 서해로, 세계로”라는 구호와 함께 지난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3일간) 열렸다.

200만 도민의 화합과 결집을 위하여 화합축제, 애항축제, 관광축제의 슬로건 하에 개최된 제 51회 도민체전의 태권도 경기는 충남 태권도 협회(회장 이종승)가 주관하여 대전 체육관에서 질서 정연한 가운데 열띤 경쟁을 벌인 결과 천안시가 3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주최도시인 보령시는 종합 2위에 올랐고, 서산시 는 종합 3위에 입상했다.
올해 대회부터 신설되어 수여한 모범상은 금산군



▲충남협회 이병로 전무이사 (오른쪽)가 충남도민체전 태권도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한 천안시에 우승컵을 수여하고 있다.

조상준 보은군 태권도협회장
충북도 교육감기대회 성황리에 마쳐



▲조상준

제 26회 충북도교육감기타기 및 보은군 태권도협회장대회를 유치해 성공리에 마친 조상준 보은군태권도협회장.

조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해주신 군수님과 협회 임원들에게 감사한다.”며 “열악한 경기장 시설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수단과 임원이 참가해 열띤 경기를 통해 기량을 다했고 특히 아무 사고 없이 경기를 마친데 대해 다행”이라

고 말했다.

태권도 성정유치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조회장은 태권도성전 보은 유치를 기원하고 지역 태권도 인구 저변확대 등의 활성화를 위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교육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전국중·고연맹회장기대회의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조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얻은 여러 가지 교훈과 미흡했던 점을 앞으로 더욱 보완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두 단위 대회와 전국 대규모 대회를 유치, 보은을 태권도 고장으로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김경수 리포터>



선수단에게 돌아갔다.

이번 대회는 어느 도민체전보다 공정한 심판 판정으로 대회가 성공리에 끝났다.

한편 보령시 새마을회 부녀회원들이 경기 기간 중 무료로 음료 및 따뜻한 차를 제공하여 시군 임원 및 선수단들에게 보령시의 따뜻한 정을 나누어주었다.

■ 종합성적

1위 천안시, 2위 보령시, 3위 서산시

■ 우승자명단

▲중등부 박재철(홍성군), 이근호(천안시), 주영한(천안시), 김성호(당진군), 김중남(부여군), 이종철(태안군), 한민영(태안군), 강현성(당진군), 이동근(공주시), 편의장(서산시), 김영진(서천군) ▲고등부 장용희(당진군), 유용현(보령시), 신언철(공주시), 이행구(천안시), 송은규(보령시), 박경훈(보령시), 이종민(천안시), 강경도(서천군)

충남학생체전 서산중 4체급 석권

충청남도 교육청(교육감 오재욱)이 주최하고 충남 태권도협회(회장 이종승)가 주관하는 제 8회 충남 학생체육대회가 지난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관공의 도시인 보령 대천중학교 학생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21세기를 이끌 훌륭한 태권도전수의 발굴을 위한 꿈나무들의 제전인 충남학생체육대회 태권도 경기는 대회 첫날 20일 초등부 117명이 출전해서 2분 3회전 중간 휴식 30초로 예선전부터 결승전까지 치러 11명의 우승자를 가렸다. 초등부 경기는 서천 장항 중앙초등학교가 3체급을 석권하며 새로운 초등부 강자로 떠올랐다.

대회 이틀째는 중등부 114명이 출전하여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는데 서산중학교가 4체급 우승자를

배출하며 중등부의 새로운 강자로 등극했다.

■ 부별 우승자 명단

▲남초부 윤원근, 나승근, 박지훈(이상 서천 장항중앙), 이영일(공주 봉황), 석연호(천안 구성), 이소규(부여 중화), 최혁(논산 용남), 김주한(천안 신웅), 김명식(공주 고동), 채성룡(보령 청라), 김현승(예산 대흥) ▲남중부 박재철(홍성), 변성훈(부여 백제), 김성운(서산), 이희상(보령 청라), 김승겸(천안북), 이영화(서산), 조희연(서천), 박준민(서산), 김용수(서천), 김영진(서천) ▲여중부 이장미(부여 백제), 사영주(연기 조치원), 백아름(서산 대산), 이항미(부여 백제), 방윤미(태안 창기), 박현정(부여 백제), 강미향(부여 백제), 이윤지(당진), 김효진(논산 건양), 고아라(당진 석문), 김미선(논산 노성)

5차 승품·단 심사 대회 개최

충남 태권도협회는 지난 10월 24일 대천체육관에서 올해 5차 승품·단 심사대회를 개최하였다.

응심자 1200여명과 학부형 등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린 개회식에서 이병로 전무이사는 이종승 회장을 대신하여 국기 태권도를 사량하며 평소 열심히 수련한 응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이어서 김득권 심사위원장이 심사 응심자들에게 주의 사항과 심사규정을 알려주었으며 이번 심사에는 김득순, 김영근, 채경일, 김윤호, 정현도, 권재일 심사위원이 심사를 맡아보았다. 화창한 가을 날씨에 치러진 이날 심사에는 1200여 명이 참가하였으나 조용하고 질서 정연하게 심사가 진행되었다.

특히 보령 무술체육관에서 수련한 손대회, 손완희(10세) 쌍둥이가 심사에 응시해 많은 학부형들의 갈채 속에 심사를 마쳤다. 쌍둥이 형제는 최경우

태권넷, 태권도 도장 무료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

태권넷(<http://www.taekwon.net>)이 태권도 도장의 홈페이지를 무료로 제작해준다고 밝혔다.

국내외의 도장을 대상으로 전가형 무료 홈페이지는 태권도 관장과 권원 그리고 학부모들이 모두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있다.

도장 홈페이지에는 관장소개, 약도와 전화번호, 그리고 교육시간표로 구성되어 있는 도장 소개 섹션, 태권도 뉴스와 태권도의 역사, 그리고 추천사이트

등 태권도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될 정보섹션을 비롯해 태권도 행정에 관련된 양식 서비스, 누구나 의견 올릴 수 있는 게시판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태권넷의 이번 태권도 도장 무료 홈페이지 제작은 태권도가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정식종목이라는 점에서 볼 때, 인터넷 시대를 맞아 중추국 태권도의 정보화를 한발 더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여겨진다.(문의 872-2241)

사범의 지도로 1년 동안 열심히 수련하여 공인 1품을 취득하는 영광을 안았다. <김영근 리포터>

전라북도협회

제 36회 도민체육대회 태권도 경기 전주시 우승

제 36회 전라북도민체육대회 태권도 경기가 지난 10월 25일과 26일 이틀간 김제중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



▲도민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전주시 선수단.

도민체전 개최 사상 처음으로 김제시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 태권도는 씨름과 함께 새로 추가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10개 시군에서 만 30세 이상의 도내 관장, 사범, 감독, 코치 등 50여 명이 참가해 열전을 펼쳤다. 1위는 전주시, 2위는 고창군, 3위는 부안군이 각각 차지했다.

승품·단 심사에 1,400여명 참가

제 5차 승품·단 심사대회가 1,400여명의 응시자가 참가한 가운데 10월 31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심사에서 응시자들은 도장에서 같고 님은 품새와 겨루기 실력을 마음껏 발휘했다.

■ **우승명단** ▲-58kg 서인오(김제시) ▲-67kg 이훈(전주시) ▲-75kg 김찬구(남원시) ▲-83kg 황동순(전주시) ▲+83kg 최상진(전주시) <이윤영 리포터>

전라남도협회

제 24회 전남학생종합체육대회 태권도경기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여수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제 24회 전남학생종합체육대회 태권도경기가 열렸다. 유망선수를 조기 발굴 육성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대회에는 남초부 60명, 남중부 88명, 여중부 37명, 남고부 40명, 여고부 6명 등 총 232명이 출전한 가운데 치열한 접전을 펼쳤다.

■ 제급별 우승자

▲**남초부** 유선각(순천 동산), 김해인(여수 신원), 이충렬(순천 동산), 최정훈(여천 무선), 김은배(순천 동산), 박세현(여천 무선), 김동욱(여천 여도), 김민규(안양 동초), 신대수(순천 부영), 신희민(완도 금일), 문대현(여천 무선) ▲**남중부** 고진호(여수), 권훈(여천), 송대근(여천), 황순호(여수), 김동섭(광양 광영), 강현우(신안 압해), 정태훈(순천 이수), 채순철(여천), 권남호(동광양), 김태현(고흥 도화), 윤보람(순천 연향) ▲**여중부** 정은선(무안 망운), 김유란(고흥 녹동), 최소라(순천 남산), 조희영(신안 압해), 신다혜(순천 남산), 김재안(동광양), 문나래(영광 법성), 최상아(동광양), 박인순(영광 법성), 김다람(해남 황산), 김사랑(나주 금천) ▲**남고부** 이종호(여수), 송상원(순천공), 윤지운(여수), 박형선(광양), 박원범(여수), 전봉준(광양), 정채길(순천공), 이민수(여수) ▲**여고부** 마성심(해남 황산), 신현하(구례), 허안라(해남 황산), 정효정(영광 법성상) <홍명숙 리포터>

경문대학 '99 월드대학 태권도문화체험축제 출범식

이날 행사에는 평택시 이석우 부시장을 포함한 많은 내빈과 대회 임원과 도우미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학교를 대표하여 김상호 학장을 대신한 권오복 부학장의 인사 말씀에 이어 평택시 이석우 부시장의 축사가 있었고, 국기원 기술심의회 김병운 의장의 격려사가 있었다.

시후행사로에는 군산 동초등학교 손도철 단장이 지도하는 어린이 시범단 60명의 멋진 시범으로 많은 갈채와 박수를 받았다.

이승훈 사무총장(생활체육과 학과장)은 "각각에 총의 인사들로 조직위원회 및 대회 임원이 구성되어 출범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며 "성공적인 월드대학 태권도문화체험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독자 페이지

소식과 작품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이 태권도에 관해 겪은 이야기, 일러스트레이션, 만화, 본지에 대한 희망이나 건의 등 무엇이든 좋으니 보내주십시오. 일러스트레이션, 만화 등은 돌려드릴 수가 없으니 필요하신 분은 복사를 해서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곳 : 서울시 송파구 오륜동
88-2 (편의시설 A-3동)
「월간 태권도」 편집실

◆전화 : 420-4568

◆팩스 : 420-4274

◆이메일 : DKY@KOREATAEKWONDO.ORG

PC 태권도

다음은 대한태권도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WWW.KOREATAEKWONDO.ORG)
자유토론장과 방명록, E-mail에 올라온 글입니다.

단증 조회는?

〈건각〉

문 지난 82년쯤에 2단 심사를 본 것 같은데 사정이 생겨 그 후로 단증을 수령하지 못하고 운동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를 통해 저같은 사람들이 단 자격을 취득하였는지 찾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놓으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수고하시길...

답 품, 단증 관리는 국기원 전산실(567-1058 · 9)에서 하고 있습니다. 생년월일로 품단증 번호를 조회할 수 있으며 재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태권도협회와 국기원 전산실과는 전산망이 연결되지 않아 협회 홈페이지에서는 단증 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야...

〈태권〉

안녕하십니까?

이 글을 읽으실 분들은 모두들 태권도를 아시는 분들이겠죠? 저는 태권도를 지도하고 있는 사범입니다. 태권도가 세계 각국에 널리 보급되어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아주 태권도를 열심히 합니다. 제가 시범단으로 해외 파견을 나갔을 때 느낀 건데 신체조건으로 보나, 힘과 스피드 모두 외국인도 흠잡을 곳이 없더군요. 아주 감탄했습니다. 태권도 종주국인 만큼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선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성인들을 위한 새벽반이 있었으면

〈이상우〉

왜? 태권도도장은 성인회원을 위한 새벽시간이 없습니까?

저는 30대의 남성입니다. 군복무시절 태권도 단증



▲도장에서 어린이 수련생들이 태권도를 배우고 있다.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적극 개발되어야 한다.

독자 페이지

이 없어 호되게 태권도를 배운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최근 가까운 도장에 가서 새벽에 태권도를 배우려 했으나 성인회원이 없으며 오후 늦게나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지요.

아무튼 정부나 태권도협회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강화하여 주시고 전국의 태권도 도장도 성인들이 태권도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일본범새가 많은 검도학원에 가기 싫어서 일부러 태권도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더군요. 태권도는 왜 새벽반이 없습니까?

전국대학친선탈권도대회

많은 격려와 관심 보내주세요

<정경호>

저는 조선대학교 태권도 동아리 졸업생입니다. 한가지 아쉬움이 있어 몇 글자 적습니다.

올해로 20회 대회가 치러지는 전국대학친선탈권도대회는 각 대학 태권도 동아리 학생들이 참가합니다.

96년도에 조선대에서 우여곡절 끝에 17회 대회를 치르고 그 다음은 항공대, 경북대를 거쳐 올해는 시립대학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동아리 차원이라 미숙하고 경기장도 미흡할 때가 많지만 태권도에 대한 열정으로 전국 대학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개최를 하는 대학이 심판진을 섭외하고 경기장을 마련하고 대회를 치르고 있는데 전에도 느꼈고 지금도 느끼는 것이지만 대한태권도협회에서는 이런 대학친선탈권도에 관심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국대학친선탈권도대회에는 대학에서 각자 자신의 전공을 따로 가지고 있으면서 태권도가 좋아서 동아리 활동을 해온 전국의 태권도 동아리들이 모여서(해마다 30~40개 대학이 참여하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수하게 태권도를 교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전국대학친선탈권도대회는 각 대학끼리 어렵사리 해마다 치러내고 있고 또한 자긍심도 큼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대한태권도협회의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고, 각 대학 동아리들도 좀 더 짜임새 있는 경기운영과 전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몇 자 적어보았습니다.

대회를 앞둔 후배들에게

<새벽>

저는 전국대학친선탈권도대회가 잉태되던 시간에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 1회 대학태권도대회는 1983년 봄 서강대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의 실무진으로 준비과정에 참석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후배들의 값진 노력으로 20회 대회를 앞두고 있구나 대견하고 고맙습니다.

각 대학교별로 졸업생 동아리가 활성화되어 후배들에게 장학금 혜택도 주고 하는데 동아리 연합회는 그다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대단히 미안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관심은 늘 가지고 있고 조금 더 현실적인 도움을 주고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벌써 십오년이 지났군요. 못하는 운동이지만 열심히 하던 때가 그리웁습니다. 참신한 프로그램도 많이 시도했습니다.

택견명인을 모셔다 태권도와 비교 관찰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비록 태권도로 밥을 먹고 살지는 않지만 태권도에 진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을 갖는 길은 사회 각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해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량을 태권도 발전에 조금이나마 쏟는 것입니다. 현장에 있는 후배들에게 조금더 노력하시길 당부합니다.

서울 종합우승으로 3연패 영광

김제경 8번째, 정명숙 7년 연속 우승 기록 세워



10. 11~16 · 인천남부학생체육관

지난 10월 11일부터 16일까지 인천 남부학생체육관에서 열린 제 80회 전국체육대회 태권도경기는 지난해에 이어 여고생들이 맹활약을 펼친 서울이 금메달 11개를 따내며 종합우승을 차지했고, 개최지 인천이 남고부와 여자 일반부의 뛰어난 활약으로 금 2, 은 9, 동 13개를 따내며 2

위를 차지했다.

전, 현 국가대표선수들을 포함한 전국의 시도 대표선수들이 모두 참가해 열전을 펼친 이번 대회에서 올해 국가대표들이 대거 초반에 탈락하는 이번이 속출하는 가운데 김제경과 정명숙이 우승을 차지하며 각각 대회 8번째 우승과 7연승을 달성해 관록을 과시했다.



폐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김윤웅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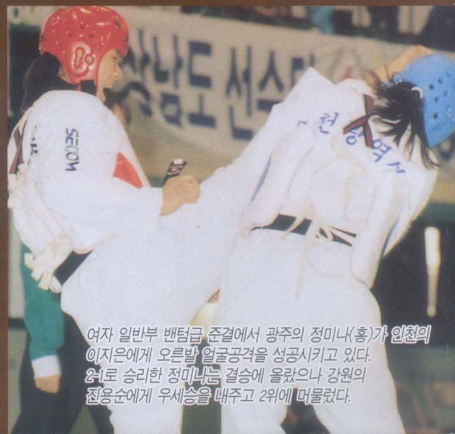


시상대에 오른 서울(1위)의 임윤택 전무이사, 인천(2위)의 노순영 전무이사, 경기(3위)의 안종중 부회장 겸 전무이사가 자랑스럽게 컵을 들어올리고 있다.



"부산에서 만납시다."

200년도 전국체전 개최지인 부산광역시 안상영 시장에게 축하를 전하고 있는 김윤웅 회장.



여자 일반부 밴텀급 준결에서 광주의 정미나(홍)가 인천의 이지은에게 오른발 앞굽공격을 성공시키고 있다. 2:1로 승리한 정미나는 결승에 올랐으나 강원의 정용순에게 우세승을 내주고 2위에 머물렀다.



▲남고부 헤비급 준결에서 맞붙은 차세대 유망주 윤원중(서울·청)과 김민석(대구)이 뛰어난 기술을 발휘하며 치열한 점전을 펼치고 있다. 김민석이 3-1로 승리를 거두고 결승에 올랐다.



▲시상식에서 이승환 상임부회장이 입상자들에게 약수를 건네며 축하해주고 있다.(사진은 남고부 헤비급 우승자인 인천의 박용수)

◀남자일반부 헤비급 우승으로 전국체전에서만 8번째 금메달을 따낸 김제경(삼성 에스원)에게 김순배 부회장이 축하해주고 있다.



올해 국가대표로 활약한 이동원(강원·홍)이 1차 예선에서 대전의 유지영을 원발 앞차기로 공격하고 있다. 준결에 오른 이동원은 안철의 차승희에게 4:0으로 패하며 3위에 머물렀다.



전국체전은 시도권 지나친 과열경쟁으로 심판판정 항의가 자주 일어난다. 그러나 두 여성 심판에게는 유한 점수를 주었다. 정희민(왼쪽) 남정돈 심판을 공명정대한 심판으로 칭찬을 받았다.



'95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리스트인 이승민(경북·홍)이 결승에 올라 안철의 윤명숙과 공방을 펼칠 끝에 1:0으로 플라이급 금메달을 따내며 저력을 과시했다.



여자 헤비급 간판스타인
정명숙(전남·홍)이 결승에서
인철의 박성회를
3:1로 누르고 체급 정상에
올라 대회 7연승 기록을 세웠다.



국제무대에 나가면 적수가 없는 조항미(인천시청)이지만 국내무대에는
도처에 복병이 잠복해 있어 잠시도 안심을 할 수 없다. 조항미는
8강에서 서울의 장지원(한체대)에게 무릎을 내주고 탈락했다.



대회기간 내내 삼수랑 피켓을 들고 인장화 선행여성과 중앙여상의 여고생 도우미들

'88 방콕 아시안게임의 금메달리스트인 강동국(경남·홍)이 남자 일반부 미들급 결승에서 인천의 차용희와 접전 끝에 2:1로 승리를 거두었다.



심판이 청 선수의 승리를 알리자 홍 선수는 매우 안타까운 표정이다. 여자 일반부 핀급 결승에 오른 인천 서미라(청)와 대구 강지현은 3:3 동점을 이루며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막강마한의 실력을 보여주었다.



경기대 내관 선수들만큼이나 학부모들의 가슴도 긴장으로 가득차 있다. 득점을 올리자 박수를 보내면서도 종이 울릴 때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이 얼굴에 쓰여있다.

99년도 전국남녀 우수선수선발대회

10. 26~29

국기원

올해 전국규모대회 입상자들이 출전해 최고의 기량을 겨룬 전국 남녀 우수선수선발대회가 남자 281명, 여자 190명 총 471명이 출전한 가운데 국기원에서 펼쳐졌다.

체급별 1, 2위자에게 내년도 국가대표선발전 최종전 티켓이 주어진 이번 대회에서 태극마크를 향해 선수들은 치열한 접전을 펼쳤다. 체급별 최강자가 가려진 이번 대회에서 조진호(삼성 에스원)와 윤현정(웅인대)은 남녀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했다.



▲남녀 최우수선수상을 받은 조진호(삼성 에스원)와 윤현정(웅인대).

▶시상식에서 이승원 상임부회장이 입상자들에게 악수를 건네며 축하해주고 있다. 사진은 남자 헤비급 우승자인 문대성(삼성 에스원).



올해 전국대회 조진호(남)

▲개회식에 참석한 임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여자 테ควัน 결승에서 심성 애소원의 이선희(울)가 서둘러고 김양지에게 오른팔 돌려차기로
입금공격을 성공시키는 가운데 3:0 점수에 유세승을 거두고 채금 정상에 올랐다.



입상자들 한자리에 모여 열전 윤현정(여) 최우수선수상 수상



남자부 경기에서 한체대 3학년 선수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결승에 올라
2000년 국가대표 최종전 티켓을 따낸 (왼쪽부터) 민병석, 이광수, 최희성, 이승재.

99년도 전국남녀 우수선수선발대회

▶조신대 이원재(청)와 용인대 한정대(홍)가 남자 페더급 결승에 올라 접전을 펼치고 있다. 우세승으로 이원재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자 밴텀급 결승에서 인천시청의 이지은(홍)이 경성여실고 전남수에게 오른발 돌려차기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 두선수 모두 득점을 올리지 못한 가운데 이지은이 우세승을 거두었다.



▼관중석에서 힘찬 응원을 보내고 있는 선수들의 얼굴에도 열기가 가득하다.



미국태권도연맹(USTU)지도자 및 대표선수 150명

'99 세계한민족축전 태권도 한마당 참가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의 및 미국의 태권도지도자들에게
김운용 회장이 '태권도정신, 그리고 세계화'란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11.1 ~ 7

미국태권도연맹에 소속돼 있는 150여명의 원인과 대표선수들이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지난 11월 1일부터 7일까지 개최한 '99 세계한민족축전 태권도 한마당 행사에 참가차 한국을 방문했다. 이들은 국기원을 방문해 김운용 회장의 특강을 듣고 면담한 것을 비롯해 민속촌과 경복궁 등을 둘러보며 태권도 본고장인 한국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배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미국 태권도연맹 이상철 회장과 박연완 부회장이 김운용 회장을 비롯한 태권도계 임원들과 자리를 함께했다. 왼쪽부터 이승완 대한태권도협회 상임부회장, 박연완 부회장, 김운용 회장, 이상철 회장, 이금홍 세계연맹 사무총장.

11월 5일 워커히호텔에서 열린 환영만찬에는 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한가운데) 등 각계 각층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미국태권도연맹의 지도자들과 대표선수들 일행 150명이 국기원을 방문해 기념촬영을 했다.

2000년 국가대표 선발전 예선전

태극마크를 향해 치열한 접전!

11.9 ~ 12

국기원

2000년도 국가대표를 선발하기 위한 국가대표선발전이 11월 9일 국기원에서 시작된 예선전을 시작으로 치열한 열전에 들어갔다.

지난해와 올해 각종 전국대회에서 입상경력이 있는 535명의 남녀 선수가 출전한 가운데 열린 이번대회는 내년도 시드니 올림픽이라는 큰 대회를 앞두고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태극마크를 향해 더욱 더 뜨거운 열기를 뽐냈다.

이번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들은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국기원에서 열리는 국가대표 최종전에 출전하게 된다.

▶11월 9일 개막과 함께 펼쳐진 라이트급 경기에서 상무의 유웅진(청)과 영천시청의 김중은이 8강에서 격돌을 벌이고 있다. 유웅진은 결승에 올라 용인대 정동혁을 우세승으로 이기고 체급 정상에 올랐다.



국가대표선발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열전을 펼치는 만큼 심판의 공정과 역할이 중요하다. 개회식에서 조영오 심판이 태표선서를 하고 있다.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을 대표로 용인대 정동혁이 페어플레이를 다짐하는 선서를 하고 있다.

아시아연맹, 새 회장 취임식 및 제 15회 학술세미나 개최

제 7대 회장에 이대순 경원대 총장 취임



김운웅 회장이 이대순 신임회장에게 아시아태권도기를 전달하고 있다.

11, 11
경원대 국제회의실

아시아태권도연맹은 지난 11월 11일 경원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제 7대 회장으로 추대된 이대순 신임 회장의 취임식과 함께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아시아연맹의 새 회장으로 취임한 이대순 경원대 총장은 "앞으로 태권도 문화를 세계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개최된 제 15회 학술세미나에서는 「태권도장의 PC 및 인터넷 활용방안」(경원대 박장기)과 「태권도장 프로그램의 개선방안」(연세대 김석력)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대순 회장이 취임사를 통해 아시아 주니어선수권대회 창설과 홈페이지를 개설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김운웅 회장은 축사를 통해 연맹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며 태권도 발전의 기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학술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한 김석력 씨(왼쪽)와 박장기 씨.

전국경찰무도대회

서울경찰청 단체 우승 개인전 우승자 이혜원(경찰대학) 씨 1계급 특진

10. 19
중앙경찰학교

제 54주년 경찰의 날 기념 전국 경찰 무도대회가 10월 19일 충북 충주시에 있는 중앙경찰학교에서 개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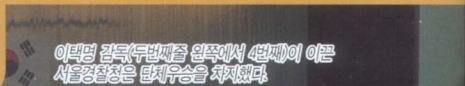
각 지방 경찰청과 경찰대학, 중앙경찰학교 등에서 현직 경찰관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번 대회에서 서울경찰청이 단체우승을 차지했고, 1계급 특진이 걸린 개인전 경기에서는 불꽃 튀는 접전 끝에 경찰대학의 이혜원 씨가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1계급 특진이 걸린 개인전 결승전은 치열한 접전의 연속이었다. 경찰대학의 이혜원(황)이 경북경찰청의 박용우(청)를 이기고 승리를 거두었다.



◀중앙경찰학교 김재희 교장이 개인전 우승을 차지한 이혜원 씨에게 경장에서 경사로 1계급 특진 계급장을 달아 주고 있다.



이탁명 감독(두번째줄 왼쪽에서 4번째)이 이끈 서울경찰청은 단체우승을 차지했다.



제 34회 전국교도관무도대회

“교도관 신체단련과 상무정신 높이는 계기”



경비교도대 악대의 힘찬 행진곡에 따라 전국에서 참가한 선수단이 입장했다.



유턴자부 우승을 차지한 청송교도소 선수단.
달의자부는 영등포구치소, 경비교도부는 대전교도소가 우승을 차지했다.

10. 22

법무부 교정연수부 연무관

제 34회 전국교도관무도대회가 법무부 주최로 지난 10월 22일 경기도 용인에 있는 교정연수부 연무관에서 개최됐다. 교도관의 신체단련과 상무 정신을 높이기 위해 개최된 이번 대회는 태권도를 비롯해 유도 검도 경기가 펼쳐졌다. 태권도 경기에서는 청송교도소, 영등포구치소, 대전교도소가 각각 부별 단체우승을 차지했고 대전교도소의 안우용 씨가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했다.



개회식에서는 태권도시범이 펼쳐져 많은 박수를 받았다.



▲우수선수상을 수상한 대전교도소의 안우용 씨에게 대한태권도협회 박종명 심판분과위원장이 상장과 트로피를 수여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7년간의 태권도한마당을 내년에는 전세계 태권도장을 대상으로 하는

기간 : 1999년 12월 15일 (수)~18 (토) 4일간
장소 : 국기원
주최 : 국기원/대한태권도협회/KBS
주관 : 국기원
행사일정

일 자	내 용	비 고
99. 12. 15 (수)	참가등록/인내사항 공지 외국인부 10:00~12:00 국내부 13:00~17:00	국기원 경기장
99. 12. 16 (목)	11:00~20:00 5개 종목 예선 및 결승	개회식
99. 12. 17 (금)	12:00~19:00 6개 종목 예선 및 결승	
99. 12. 18 (토)	14:00~20:00 6개 종목 예선 및 결승	폐회식

*종목방송 일정에 따라 경기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대회요강 (국내부)

1. 참가자격

가. 92년 1회 대회부터 98년 7회 대회까지 각부별/종목별 입상자 (개인부문 또는 입상팀(단체부문) - 외국인부는 예년과 동일
나. 개인부문은, 다수종목/다수입장에 관계없이 1종목에만 출전가능
다. 단체부문은 입상 당시 팀소속원에게는 출전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팀의 다수/다년급 입상에 관계없이 1팀에만 부여 - 단체부문 타 종목에도 1팀씩만 출전 가능
라. 개인부문은 소속과 참가부(등)가 바뀌어도 무방하나, 단체부문은 현 소속원으로만 팀을 구성하여야 하며, 입상당시의 부(팀)로만 출전 신청이 가능. (단체부문의 소속원은 입상경력이 없어도 출전가능)

2. 참가부문

가. 부별구분

- 1) 초등부 :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남/녀 유품자
- 2) 중등부 : 15세 미만 또는 중학교에 재학중인 남/녀 유품자



- 3) 청장년부 : 15세 이상 남자 유단자
- 4) 여성부 : 15세 이상 여자 유단자
- 5) 외국인부 :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 나. 종목별 구분 : 개인부문 4종목과 단체부문 4종목으로 실시

	세부종목	초등부	중등부	청장년부	여성부
개인부문	손날격파			*	
	주먹격파			*	
	발 격 파			*	
	종합격파		*	*	*
단체부문	일반품새	*	*	*	*
	청작품새	*	*	*	*
	호 신 술			*	
	태권체조	*	*	*	*

*얼리뛰어치기/돌이뛰어치기 - 2개 종목은 식재

3. 종목별 요강

(개인부문)

가. 경연종목

- ◆손격파 : 화강석 격파
- ◆주먹격파 : 기와 격파
- ◆발격파 : 송판 격파
- ◆종합격파 : 고난도 기술이나 종합기술을 평가하여 격파물의 소재는 제한치 않음(참가자가 격파를 준비)

단, 화약/폭죽/칼/괴일 등의 사용과 이마격파는 금지하며, 뒤꿈치종돌기격파는 중등부에 한하여 금지함.
나. 평가

예선전은 지정된 기준을 통과한 자를 합격시키고, 결승전(종목별 5명은 참가자의 격파매수 신청에 따라 진행하며 최다량 격파자 1명을 최우수자로 선발함)(동점시는 재경기로 결정)

종합격파는 예선전에서 각 부별 상위점수 획득 5팀을 결승전에 진출시키고, 결승전에서 최고점수자를 최강자로 선발함.

■ 각 격파종목의 기준

격파물	규격	1차예선	2차예선	결승전
손 격 파	화강석	2.5cm	5매	6매
주먹격파	기 와		14매	16매
발 격 파	송 판	2cm	5매	6매

*시정에 따라 예선기준은 변동될 수 있음.

(단체부문)

가. 경연종목 : 일반품새는 3-5세, 청작품새/태권체조의 팀은 3-9명으로 구성(기준을 벗어날 경우 평가에서 감점처리)

◆일반품새

	선 택	지 정
유품자	태극 - 태백 중 1장	고려, 태극 1장 - 8장 중 1
유단자	팔괘 - 일여 중 1장	고려, 태백, 평원 중 1

◆청작품새 : 과거 입상작품이나 새로운 작품 모두 가능



충결산하는 왕중왕 선발대회로

<국제오픈태권도한마당 2000>이 펼쳐집니다.

- 기증품새에 포함되지 않은 맨손기술 또는 무기를 든 상대와의 공방기술로 구성된 새로운 품새
- 경연시간은 3분 이내이며, 반드시 도복민을 착용하고 음악사용은 금지.

◆호신술: 과거 입상작품이나 새로운 작품 모두 가능
- 위험에 처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기술로 구성하되, 시나리오에 의한 실연(實演)도 가능

◆태권체조: 과거 입상작품이나 새로운 작품 모두 가능
- 일반인이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쉽게 태권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태권도 동작을 위주로 한 전신운동으로 구성.

- 체조와 에어로빅 스타일의 동작은 허용하되, 전체 동작의 2/3이상이 태권도 동작으로 구성되어야 함.

- 경연시간은 3분 이내로 제한하며, 필요시 음악 및 음향효과 사용 가능.

나. 평가

예선전에서 각 부별/종목별 상위 5개팀을 결승전에 진출시키고, 결승전에서는 최고득점을 최우수팀으로 선발함 (1개팀씩만 선발)



4. 시상: 총 17개 세부종목 시상

◆개인 3개종목 각 1명씩 선발

* 손격파 최우수자/주먹격파 최우수자/발격파 최우수자

◆종합격파는 각 부별 1명씩 선발

* 종합격파는 최우수자(청장년부/여성부/중등부)

- 결승진출자는 전원(각 종목별 4명은 <우수자>로 시상)

◆단체 4개종목 각 부별 1팀씩 선발

* 일반품새 최우수팀(초등부/중등부/청장년부/여성부)

* 창작품새 최우수팀(초등부/중등부/청장년부)

* 호신술 최우수팀

* 태권체조 최우수팀(초등부/중등부/청장년부)

- 결승진출팀은 전원(각 종목별 4명) <우수팀>으로 시상

■ 시상내역

◆개인부문

최우수자 인증서

부상(최우수자 시상품/상금 또는 장학금 - 100만원)

특전(승단기간 단축/2000년 국기원 주최 무도경연대회 결승 진출권)

◆단체부문

최우수팀 인증서

부상(최우수팀 시상품/개인별 소형시상품/상금 또는 장학금-150만원)

특전(승단기간 단축 - 지도자 포함/2000년 국기원 주최 무도경연대회 결승진출권)

* 각 부별/종목별 우수자(팀) - 결승진출 4인(팀) - 은 별도의 인증서 및 시상품 수여

외국인부 참가요강

1. 참가구분

가. 부별구분

1)소년부: 15세 미만의 남자 유급/품자

2)청년부: 15세 이상 35세 미만의 남자 유단자

3)장년부: 35세 이상의 남자 유단자

4)여성부: 15세 이상의 여자 유단자

나. 종목별 구분: 개인부문 4종목과 단체부문 4종목으로 실시

2. 종목별 요강: 국내부와 동일

	세부종목	소년부	청년부	장년부	여성부
개인부문	손날격파		*		
	주먹격파		*		
	발격파		*		
	종합격파		*	*	*
단체부문	일반품새	*	*	*	*
	창작품새	*	*	*	*
	호신술		*		
	태권체조		*		

* 참가인원에 따라 부별구분없이 통합운영할 수 있음.

* 1인당 개인부문 1종목, 단체부문 1종목에 참가가능.

* 멀리뛰어차기/높이뛰어차기 - 2개 종목은 식제.

3. 시상

각 종목별 결승진출 3-5명(팀)에게 인증서 및 시상품 수여

기술심의회 임원 체육대회

11. 4
산정호수

대한태권도협회 기술심의회 임원들이 지난 11월 4일 산정호수에서 체육행사를 갖고 친목을 도모했다. 이날 행사에는 노상석 의장을 비롯해 각 분과 임원들과 상임 심판원 등 100여 명이 참가했다.

한빛동안 태권도협회의 각종 행사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기술심의회 임원들이 단풍이 물든 가을산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했다.

심판부와 경기부가
축구시합을 펼치고 있다.



제 109기 태권도 3급 사범지도자연수 실시

10. 11~15
국기원 연수원

국기원태권도지도자연수원은 지난 10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109기 태권도 3급 사범 지도자연수를 실시했다.

태권도 4단 이상 22세 이상의 자격을 갖춘 100여 명의 태권도인들이 참가한 이번 교육에는 예비 지도자들이 매일 8시간씩 이론과 실기 교육을 받으며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키웠다.



3급 사범교육과정을 마친 수료생들이 국기원 임원들과 기념촬영을 했다.